

2013 제2권 제1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특별기고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기상 및 작황 정보
부록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 11-2013-01

2013 제2권 제1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grains.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 당

성명환 연구위원 mhsung@krei.re.kr

최수진 연구원 sujinchoi@krei.re.kr

TEL 02-3299-4341

FAX 02-965-4395

contents

02 특별기고

5대 곡물 이야기 / 02

05 해외곡물시장 동향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07

에너지 · 원자재시장 동향 / 24

외환시장과 세계경제 동향 / 33

곡물 가격 동향과 전망 / 42

57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2014-2022년 중장기 세계 곡물수급 전망 / 59

2013/14년 미국 곡물수급 전망 / 88

브라질 곡물시장 및 바이오연료 정책 / 109

밀, 옥수수 기말재고량에 대한 고찰 / 122

미국 경질밀과 연질밀 / 126

135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165 세계 기상 및 작황 정보

2012년 미국 농업기상 요약 / 167

2013년 2월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요약 / 175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현장조사 보고 / 183

187 부록

세계 곡물 통계 / 189

주요 수출국 대두가공품 통계 / 193





이 태 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중앙농정심의위원회 위원

5대 곡물 이야기

오늘날 가장 필수적인 식량은 곡물이다. 인류는 필요한 영양의 적어도 반 이상을 곡물에서 얻고 있다. 곡물을 사료로 사용해 얻은 축산물까지 고려한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많은 곡물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 다섯 가지- 쌀, 밀, 옥수수, 콩, 보리를 보통 5대 곡물이라고 한다. 5대 곡물은 또 식량곡물과 사료곡물로 나누어지는데, 사람이 주식으로 삼는 쌀과 밀을 식량곡물(food grain)이라 하고, 주로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콩, 보리를 사료곡물(feed grain)이라 한다.

곡물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또 매우 값싼 것이기도 하다. 한국인이 하루에 먹는 쌀의 양은 약 200g인데, 쌀 200g은 500원이 채 안 된다. 이렇게 한 공기의 밥이 커피 한 잔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었지만 곡물이 처음부터 흔한 것은 아니었다. 인류의 역사는 곡물을 얻기 위한 피나는 노력으로 이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노력들이 결실을 보아 20세기 중반 이후 90% 이상의 인류는 식량부족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함을 지키기 위해 곡물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대 곡물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량농업기구(FAO)와 미국 농무성(USDA) 곡물통계에 의하면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50년 간 세계의 5대 곡물(밀, 옥수수, 쌀, 콩, 보리; 재배면적 순서) 재배면적은 약 7억 ha 안팎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들 곡물의 평균 단수(1ha 당 생산량)는 약 1.4 톤에서 약 3.6 톤으로, 생산량은 약 10억 톤에서 약 25억 톤으로 증가하였다. 그 동안 세계 인구는 30억에서 70억이 되었으며, 1인당 5대 곡물 소비량은 약 300kg에서 360kg으로 증가하였다.

좀 더 자세히 곡물별로 살펴보자면, 각 곡물의 재배면적은 밀 2.2억 ha, 옥수수 1.7억 ha, 쌀 1.6억 ha, 콩 1억 ha, 보리 0.5억 ha이다. 생산량은 옥수수가 약 9억 톤으로 가장 많고, 밀이 7억 톤, 쌀이 4.7억 톤, 콩이 2.5억 톤, 보리가 1.5억 톤 가량이다. 이들 곡물의 생산 효율성은 눈부시게 증가해 왔는데, 1960년대 이후 밀, 옥수수, 쌀의 단수는 모두 2.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콩과 보리의 단수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이들 5대 곡물은 1ha에서 최소한 2.5톤 이상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옥수수의 단수는 무려 5톤 이상이다. 이들 만큼 단수를 증가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한 곡물들의 재배면적은 대체로 감소하였다. 1960년대에는 수수, 귀리, 호밀, 기장, 등의 잡곡도 2-3억 ha 재배되었으나 쌀, 옥수수, 콩의 재배면적이 각각 0.5ha, 0.6ha, 0.7ha 증가하면서 현재 이들 잡곡 재배면적은 1억 ha 정도로 감소하였다.

식량작물인 쌀과 밀의 최대 생산국은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고, 사료작물인 옥수수과 콩의 최대 생산국은 경작지가 가장 넓은 미국이다. 보리의 최대 생산국은 러시아이다. 2010년 옥수수, 콩, 밀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고, 쌀의 최대 수출국은 베트남, 보리의 최대 수출국은 프랑스이다. 이들 수출국의 고객은 누구인가? 대체로 인구가 많거나 땅이 좁은 나라이다. 2010년에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일본(한국은 2위 수입국)이고, 콩 최대 수입국은 중국(무려 5천 7백만 톤을 수입)이다. 중국은 옥수수(4위)와 보리(2위)도 많이 수입한다. 밀의 최대 수입국은 이집트인데, 일본(4위)과 한국(8위)도 큰 고객이다. 쌀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사우디 아라비아(2위), 이란(3위), 아랍에미레이트(4위) 등 주로 중동국가인데 놀랍게도 필리핀이 최대 수입국이고 미국(6위)도 50여 만 톤의 쌀을 수입한다. 보리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최대 수입국이며 벨기에(4위), 독일(6위) 등 맥주로 유명한 나라도 많이 수입한다.

이처럼 20세기 후반의 농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는 5대 곡물 모두를, 국가와 국가가 서로 다른 나라와의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국제적인 무역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쌀 이외의 다른 곡물 자급률이 매우 낮은 나라는 해외곡물시장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 세계 곡물재고가 감소하고,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5대 곡물의 세계시장이 불안정한 동향을 보이게 된 원인은 대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옥수수와 콩으로 만든 경유나 알콜을 연료로 쓰게 되었다. 둘째,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인구대국의 경제성장으로 사료곡물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셋째, 금융위기로 투자할 곳을 잃은 투기자본이 국제 곡물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넷째, 각국의 금융정책,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달러표시 곡물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세계곡물시장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세계적인 곡물위기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행히 곡물이 세계적으로 부족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곡물의 수요와 공급이 그런대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2012년 현재 5대 곡물의 재고량이 1990년대 말의 6억 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0년대 초의 4억 톤에서 상당히 회복되어 약 5억 톤에 이르고 있다. 5억 톤은 세계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므로 어지간한 위기를 극복할 만한 물량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곡물별 재고율(=연말재고/소비량)을 살펴보면, 쌀과 옥수수의 재고율이 불안정한 것이 두드러진다. 쌀의 경우, 재고율이 2000년 대 초의 생산부족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다시 생산초과의 행진이 계속되자 20% 이상으로 상승했다. 옥수수는 2000년 대 초의 재고감소의 여파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채 15% 미만의 재고율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옥수수는 한국이 8백만 톤 이상 수입하는 중요한 사료곡물이므로 세계 옥수수 시장의 불안정은 국내 축산업, 특히 옥수수 사료를 많이 쓰는 양돈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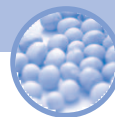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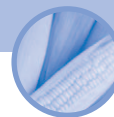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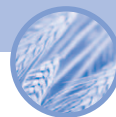
마지막 질문은 한국에 식량불안사태가 야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5대 곡물의 달러표시 세계시장가격이 2-3배 상승하였으므로 국내물가를 자극하여 서민가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고 Engel계수가 15% 미만이므로 농식품 가격이 웬만큼 상승한다고 해도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걱정할 만큼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약간의 물가상승에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5대 곡물의 세계시장을 살펴 볼 때, 불안정한 세계시장 동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축산업, 특히 양돈산업과 서민가계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part 01

해외곡물시장 동향

2013 World Grain Market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07

에너지 · 원자재시장 동향 / 24

외환시장과 세계경제 동향 / 33

곡물 가격 동향과 전망 / 42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주요 곡물 가격이 대내외적 요소로 인하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옥수수를 비롯한 대두 등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가뭄에 따른 생산량 저조 전망이 가격 하락세를 견제하고 있다. 품목별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밀의 경우 내수 소비 및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생산량 급감으로 인하여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옥수수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급감이 소비량 및 교역량 감소폭보다 더 커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기말 재고량의 감소 폭은 줄어들고 있다. 대두의 경우 내수 소비 및 교역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미의 생산량 급증으로 기말재고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아르헨티나의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기말 재고량 증가폭을 줄이고 있다.

작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곡물 가격 폭등이 하반기 들어 기상 상태 호전으로 주요 생산국의 작황 피해가 다소 줄어들음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반구의 주요 곡물 수확에 따른 밀어내기 식 수출하물량의 단기 급증이 곡물 가격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위협요소로 작용하였던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다소 해소되어 곡물에 대한 투기 자본의 유입 증가가 곡물 가격 하락세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반구 특히 아르헨티나의 곡물 작황이 가뭄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과 브라질의 곡물 운송 지연 및 항만의 극심한 체선, 관련 단체의 파업 조짐 등으로 곡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 또한 곡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는 2013/14년도 농업 전망에서 옥수수 및 대두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올해 2월말까지 연기된 미국 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의 회피가 어려울 경우 투기자본 이탈로 인하여 대폭적인 곡물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향후 곡물 가격의 패턴은 펀더멘털적인 요소와 더불어 거시경제적인 요소의 변동에 따라 곡물 가격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펀더멘털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 자료인 미국 농무부의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2013년 2월 8일자 발표)를 토대로 밀, 옥수수, 대두에 대한 주요국의 수급 동향과 전망 등을 살펴본다.

* 작성: 한국사료협회 김민수 과장(mskim@kofeed.org)

1. 밀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세계 밀 기초 재고량은 2011/12년 대비 0.7% 감소한 1억 9,654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전월 전망치 1억 9,578만 톤에 비해서는 0.4%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밀 기초 재고량을 살펴보면 미국 2,021만 톤, 캐나다 588만 톤, 아르헨티나 76만 톤, 브라질 173만 톤, EU 1,227만 톤, 러시아 1,090만 톤, 카자흐스탄 638만 톤, 우크라이나 536만 톤, 호주 698만 톤, 인도 1,995만 톤, 중국 5,595만 톤이며, EU,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인도를 제외한 주요국의 밀 기초 재고량은 2011/12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 주요국의 밀 기초 재고량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경우만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주요국의 밀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97.94	195.78	196.54	-0.7	0.4
미국	23.47	20.21	20.21	-13.9	0.0
캐나다	7.18	5.88	5.88	-18.1	0.0
아르헨티나	4.11	0.76	0.76	-81.5	0.0
브라질	1.86	1.73	1.73	-7.0	0.0
EU-27	11.75	12.27	12.27	4.4	0.0
러시아	13.74	10.90	10.90	-20.7	0.0
카자흐스탄	2.88	6.38	6.38	121.5	0.0
우크라이나	3.34	5.16	5.36	60.5	3.9
호주	8.13	6.98	6.98	-14.1	0.0
인도	15.36	19.95	19.95	29.9	0.0
중국	59.09	55.95	55.95	-5.3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생산량

세계 밀 생산량은 2011/12년 대비 6.2% 감소한 6억 5,361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6억 5,431만 톤에 비해서도 0.1%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밀 생산량을 살펴보면 미국 6,176만 톤, 캐나다 2,720만 톤, 아르헨티나 1,100만 톤, 브라질 430만 톤, EU 1억 3,173만 톤, 러시아 3,770만 톤, 카자흐스탄 984만 톤, 우크라이나 1,576만 톤, 호주 2,200만 톤, 인도 9,390만 톤, 중국 1억 2,060만 톤이며,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밀 생산량은 2011/12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 브라질 및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은 감소함에 반해,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표 2. 주요국의 밀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696.64	654.31	653.61	-6.2	-0.1
미국	54.41	61.76	61.76	13.5	0.0
캐나다	25.29	27.20	27.20	7.6	0.0
아르헨티나	15.50	11.00	11.00	-29.0	0.0
브라질	5.80	4.80	4.30	-25.9	-10.4
EU-27	137.23	131.73	131.73	-4.0	0.0
러시아	56.24	37.70	37.70	-33.0	0.0
카자흐스탄	22.73	10.50	9.84	-56.7	-6.3
우크라이나	22.32	15.50	15.76	-29.4	1.7
호주	29.92	22.00	22.00	-26.5	0.0
인도	86.87	93.90	93.90	8.1	0.0
중국	117.40	120.60	120.60	2.7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소비량

세계 밀 소비량은 2011/12년 대비 3.5% 감소한 6억 7,343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6억 7,345만 톤과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밀 소비량을 살펴보면 미국 3,811만 톤, 캐나다 885만 톤, 아르헨티나 600만 톤, 브라질 1,110만 톤, EU 1억 2,150만 톤, 러시아 3,400만 톤, 카자흐스탄 680만 톤, 우크라이나 1,200만 톤, 호주 634만 톤, 인도 8,541만 톤, 중국 1억 2,300만 톤이며,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밀 소비량은 2011/12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서는 미국 및 우크라이나의 밀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EU 및 카자흐스탄의 밀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밀 소비량의 20%를 차지하는 사료용 밀 소비량은 2011/12년 대비 9.5% 감소한 1억 3,306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1억 3,276만 톤에 비해서는 0.2%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사료용 밀 소비량을 살펴보면 미국 1,021만 톤, 캐나다 370만 톤, 아르헨티나 10만 톤, 브라질 30만 톤, EU 5,200만 톤, 러시아 1,200만 톤, 카자흐스탄 200만 톤, 우크라이나 350만 톤, 호주 300만 톤, 인도 360만 톤, 중국 2,300만 톤이며, 미국과 아르헨티나, 인도를 제외한 주요국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2011/12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서는 미국 및 우크라이나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증가함에 반해, EU 및 카자흐스탄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주요국의 밀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698.03 (147.04)	673.45 (132.76)	673.43 (133.06)	-3.5 (-9.5)	0.0 (0.2)
미국	32.16 (4.46)	37.43 (9.53)	38.11 (10.21)	18.5 (128.9)	1.8 (7.1)
캐나다	9.72 (4.62)	8.85 (3.70)	8.85 (3.70)	-9.0 (-19.9)	0.0 (0.0)
아르헨티나	5.95 (0.10)	6.00 (0.10)	6.00 (0.10)	0.8 (0.0)	0.0 (0.0)
브라질	11.20 (0.50)	11.10 (0.30)	11.10 (0.30)	-0.9 (-40.0)	0.0 (0.0)
EU-27	127.50 (58.00)	122.00 (52.50)	121.50 (52.00)	-4.7 (-10.3)	-0.4 (-1.0)
러시아	38.00 (15.50)	34.00 (12.00)	34.00 (12.00)	-10.5 (-22.6)	0.0 (0.0)
카자흐스탄	7.40 (2.60)	7.00 (2.20)	6.80 (2.00)	-8.1 (-23.1)	-2.9 (-9.1)
우크라이나	14.95 (6.10)	11.80 (3.30)	12.00 (3.50)	-19.7 (-42.6)	1.7 (6.1)
호주	6.51 (3.20)	6.34 (3.00)	6.34 (3.00)	-2.6 (-6.3)	0.0 (0.0)
인도	81.41 (3.10)	85.41 (3.60)	85.41 (3.60)	4.9 (16.1)	0.0 (0.0)
중국	122.50 (24.00)	123.00 (23.09)	123.00 (23.00)	0.4 (-4.2)	0.0 (0.0)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수출량

세계 밀 수출량은 2011/12년 대비 16.3% 감소한 1억 3,167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1억 3,197만 톤에 비해서도 0.2%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밀 수출량을 살펴보면 미국 2,858만 톤, 캐나다 1,850만 톤, 아르헨티나 500만 톤, 브라질 120만 톤, EU 1,850만 톤, 러시아 1,050만 톤, 카자흐스탄 650만 톤, 우크라이나 620만 톤, 호주 1,650만 톤, 인도 650만 톤이며,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우크라이나, 인도를 제외한 국가들 즉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등의 밀 수출량은 2011/12년 대비 급감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서는 EU의 밀 수출량은 증가함에 반해, 브라질 및 카자흐스탄의 밀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주요국의 밀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57.29	131.97	131.67	-16.3	-0.2
미국	28.56	28.58	28.58	0.1	0.0
캐나다	17.35	18.50	18.50	6.6	0.0
아르헨티나	12.90	5.00	5.00	-61.2	0.0
브라질	2.04	1.50	1.20	-41.2	-20.0
EU-27	16.57	18.00	18.50	11.6	2.8
러시아	21.63	10.50	10.50	-51.5	0.0
카자흐스탄	11.84	7.00	6.50	-45.1	-7.1
우크라이나	5.44	6.20	6.20	14.0	0.0
호주	24.69	16.50	16.50	-33.2	0.0
인도	0.89	6.50	6.50	630.3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수입량

세계 밀 수입량은 2011/12년 대비 6.2% 감소한 1억 3,925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1억 3,935만 톤에 비해서도 0.1%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밀 수입량을 살펴보면 브라질 770만 톤, 중국 300만 톤, 서남아시아 1,758만 톤, 북아프리카 2,160만 톤, 동남아시아 1,540만 톤이며, 주요 수입국 가운데 북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의 경우 2011/12년 대비 수입량이 급감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서는 브라질의 밀 수입량은 늘어난 반면,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경우 밀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주요국의 밀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48.47	139.35	139.25	-6.2	-0.1
브라질	7.31	7.50	7.70	5.3	2.7
중국	2.93	3.00	3.00	2.4	0.0
서남아시아	16.26	17.58	17.58	8.1	0.0
북아프리카	24.66	22.10	21.60	-12.4	-2.3
동남아시아	17.27	15.60	15.40	-10.8	-1.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기말 재고량

세계 밀 기말 재고량은 2011/12년 대비 10.1% 감소한 1억 7,673만 톤에 이를 전망임에 반해, 전월 전망치 1억 7,664만 톤에 비해서는 0.1%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밀 기말 재고량을 살펴보면 미국 1,882만 톤, 캐나다 613만 톤, 아르헨티나 77만 톤, 브라질 143만 톤, EU 1,000만 톤, 러시아 560만 톤, 카자흐스탄 293만 톤, 우크라이나 302만 톤, 호주 626만 톤, 인도 2,195만 톤, 중국 5,555만 톤이며,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및 인도를 제외한 주요국의 밀 기말 재고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서는 미국의 밀 기말 재고량이 감소함에 반해, 카자흐스탄 및 우크라이나의 기말 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주요국의 밀 기말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96.54	176.64	176.73	-10.1	0.1
미국	20.21	19.50	18.82	-6.9	-3.5
캐나다	5.88	6.13	6.13	4.3	0.0
아르헨티나	0.76	0.77	0.77	1.3	0.0
브라질	1.73	1.43	1.43	-17.3	0.0
EU-27	12.27	10.00	10.00	-18.5	0.0
러시아	10.90	5.60	5.60	-48.6	0.0
카자흐스탄	6.38	2.89	2.93	-54.1	1.4
우크라이나	5.36	2.76	3.02	-43.7	9.4
호주	6.98	6.26	6.26	-10.3	0.0
인도	19.95	21.95	21.95	10.0	0.0
중국	55.95	55.55	55.55	-0.7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2.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세계 옥수수의 기초 재고량은 2011/12년 대비 2.4% 증가한 1억 3,101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전월 전망치 1억 3,179만 톤에 비해서는 0.6%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을 살펴보면 미국 2,512만 톤, 캐나다 135만 톤, 아르헨티나 94만 톤, 브라질 958만 톤, EU 670만 톤, 우크라이나 105만 톤, 남아프리카 306만 톤, 중국 5,934만 톤이며, 2011/12년에 비해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등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은 감소하는 반면, 캐나다, EU 및 중국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 주요국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브라질의 경우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주요국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27.92	131.79	131.01	2.4	-0.6
미국	28.64	25.12	25.12	-12.3	0.0
캐나다	1.28	1.35	1.35	5.5	0.0
아르헨티나	4.13	0.94	0.94	-77.2	0.0
브라질	10.28	10.08	9.58	-6.8	-5.0
EU-27	4.83	6.70	6.70	38.7	0.0
우크라이나	1.12	1.05	1.05	-6.3	0.0
남아프리카	3.42	3.06	3.06	-10.5	0.0
중국	49.42	59.34	59.34	20.1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생산량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2011/12년 대비 3.2% 감소한 8억 5,438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8억 5,230만 톤에 비해서는 0.2%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량을 살펴보면, 미국 2억 7,383만 톤, 캐나다 1,306만 톤, 아르헨티나 2,700만 톤, 브라질 7,250만 톤, EU 5,467만 톤, 우크라이나 2,092만 톤, 남아프리카 1,350만 톤, 중국 2억 800만 톤이며, 캐나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및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1/12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감소함에 반해, 브라질 및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882.47	852.30	854.38	-3.2	0.2
미국	313.95	273.83	273.83	-12.8	0.0
캐나다	11.36	13.06	13.06	15.0	0.0
아르헨티나	21.00	28.00	27.00	28.6	-3.6
브라질	73.00	71.00	72.50	-0.7	2.1
EU-27	66.17	54.67	54.67	-17.4	0.0
우크라이나	22.84	20.50	20.92	-8.4	2.0
남아프리카	12.42	13.50	13.50	8.7	0.0
중국	192.78	208.00	208.00	7.9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소비량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2011/12년 대비 1.4% 감소한 8억 6,734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8억 6,811만 톤에 비해서도 0.1%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옥수수 소비량을 살펴보면, 미국 2억 6,257만 톤, 캐나다 1,200만 톤, 아르헨티나 790만 톤, 브라질 5,300만 톤, EU 6,600만 톤, 우크라이나 800만 톤, 남아프리카 1,110만 톤, 중국 2억 950만 톤이며, 2011/12년 대비 미국 및 EU의 옥수수 소비량은 감소함에 반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및 중국의 옥수수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서는 미국 및 EU의 옥수수 소비량이 증가한 반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옥수수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옥수수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2011/12년 대비 3.1% 증가한 5억 2,024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5억 2,171만 톤에 비해서는 0.3%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을 살펴보면, 미국 1억 1,304만 톤, 캐나다 650만 톤, 아르헨티나 510만 톤, 브라질 4,500만 톤, EU 5,050만 톤, 우크라이나 650만 톤, 남아프리카 510만 톤, 중국 1억 4,550만 톤이며, 2011/12년 대비 미국과 EU를 제외한 주요국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서는 EU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이 증가함에 반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주요국의 옥수수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879.39 (504.59)	868.11 (521.71)	867.34 (520.24)	-1.4 (3.1)	-0.1 (-0.3)
미국	279.02 (115.52)	262.06 (113.04)	262.57 (113.04)	-5.9 (-2.1)	0.2 (0.0)
캐나다	11.67 (6.43)	12.00 (6.50)	12.00 (6.50)	2.8 (1.1)	0.0 (0.0)
아르헨티나	6.70 (4.60)	8.30 (5.50)	7.90 (5.10)	17.9 (10.9)	-4.8 (-7.3)
브라질	50.50 (43.00)	55.00 (47.00)	53.00 (45.00)	5.0 (4.7)	-3.6 (-4.3)
EU-27	67.30 (52.00)	64.00 (48.50)	66.00 (50.50)	-1.9 (-2.9)	3.1 (4.1)
우크라이나	7.80 (6.50)	8.00 (6.50)	8.00 (6.50)	2.6 (0.0)	0.0 (0.0)
남아프리카	10.80 (5.00)	11.10 (5.10)	11.10 (5.10)	2.8 (2.0)	0.0 (0.0)
중국	188.00 (131.00)	209.00 (145.00)	209.50 (145.50)	11.4 (11.1)	0.2 (0.3)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수출량

세계 옥수수 수출량은 2011/12년 대비 23.1% 감소한 9,003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8,977만 톤에 비해서는 0.3%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옥수수 수출량을 살펴보면, 미국 2,286만 톤, 캐나다 150만 톤, 아르헨티나 1,900만 톤, 브라질 1,900만 톤, EU 100만 톤, 우크라이나 1,300만 톤, 남아프리카 250만 톤이며, 2011/12년 대비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우크라이나, EU의 옥수수 수출량은 감소함에 반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아프리카, 캐나다의 옥수수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에 비해서는 미국 및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출량이 감소함에 반해, 브라질 및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주요국의 옥수수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17.03	89.77	90.03	-23.1	0.3
미국	39.18	24.13	22.86	-41.7	-5.3
캐나다	0.49	1.50	1.50	206.1	0.0
아르헨티나	17.50	19.50	19.00	8.6	-2.6
브라질	24.00	17.50	19.00	-20.8	8.6
EU-27	3.21	1.00	1.00	-68.8	0.0
우크라이나	15.16	12.50	13.00	-14.2	4.0
남아프리카	2.00	2.50	2.50	25.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수입량

세계 옥수수 수입량은 2011/12년 대비 3.4% 감소한 9,567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9,552만 톤에 비해서는 0.2%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옥수수 수입량을 살펴보면 EU 1,000만 톤, 중국 250만 톤, 일본 1,500만 톤, 한국 800만 톤, 멕시코 850만 톤, 이집트 450만 톤이며, 2011/12년 대비 EU를 비롯한 일본, 한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증가함에 반해, 중국을 비롯한 멕시코, 이집트의 옥수수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 대비 EU 및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증가함에 반해, 멕시코와 이집트의 옥수수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주요국의 옥수수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99.00	95.52	95.67	-3.4	0.2
EU-27	6.21	8.00	10.00	61.0	25.0
중국	5.23	2.00	2.50	-52.2	25.0
일본	14.89	15.00	15.00	0.7	0.0
한국	7.64	8.00	8.00	4.7	0.0
멕시코	11.12	9.00	8.50	-23.6	-5.6
이집트	7.15	5.50	4.50	-37.1	-18.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기말 재고량

세계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2011/12년 대비 9.9% 감소한 1억 1,804만 톤에 이를 전망임에 반해, 전월 전망치 1억 1,599만 톤에 비해서는 1.8%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밀 기말 재고량을 살펴보면, 미국 1,606만 톤, 캐나다 141만 톤, 아르헨티나 105만 톤, 브라질 1,088만 톤, EU 437만 톤, 우크라이나 102만 톤, 남아프리카 299만 톤, 중국 6,014만 톤이며, 2011/12년 대비 미국을 비롯한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EU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감소함에 반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브라질, 캐나다, 중국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에 비해 아르헨티나 및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감소함에 반해, 미국 및 브라질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주요국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131.01	115.99	118.04	-9.9	1.8
미국	25.12	15.30	16.06	-36.1	5.0
캐나다	1.35	1.41	1.41	4.4	0.0
아르헨티나	0.94	1.15	1.05	11.7	-8.7
브라질	9.58	9.38	10.88	13.6	16.0
EU-27	6.70	4.37	4.37	-34.8	0.0
우크라이나	1.05	1.10	1.02	-2.9	-7.3
남아프리카	3.06	2.99	2.99	-2.3	0.0
중국	59.34	60.14	60.14	1.3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3.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세계 대두 기초 재고량은 2011/12년 대비 21.0% 감소한 5,525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전월 전망치 5,510만 톤에 비해서는 0.3%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대두 기초

재고량을 살펴보면 미국 461만 톤, 아르헨티나 1,810만 톤, 브라질 1,297만 톤, EU 70만 톤, 중국 1,592만 톤, 일본 15만 톤이며, 중국과 EU를 제외한 주요국의 대두 기초 재고량은 2011/12년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 주요국의 대두 기초 재고량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EU의 경우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주요국의 대두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69.92	55.10	55.25	-21.0	0.3
미국	5.85	4.61	4.61	-21.2	0.0
아르헨티나	22.87	18.10	18.10	-20.9	0.0
브라질	22.69	12.97	12.97	-42.8	0.0
EU-27	0.60	0.55	0.70	16.7	27.3
중국	14.56	15.92	15.92	9.3	0.0
일본	0.17	0.15	0.15	-11.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생산량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11/12년 대비 12.9% 증가한 2억 6,9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과는 근소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주요국의 대두 생산량을 살펴보면 미국 8,206만 톤, 아르헨티나 5,300만 톤, 브라질 8,350만 톤, EU 95만 톤, 중국 1,260만 톤, 일본 22만 톤이며, 2011/12년 대비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EU의 대두 생산량은 감소함에 반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증가함에 반해,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 주요국의 대두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238.73	269.41	269.50	12.9	0.0
미국	84.19	82.06	82.06	-2.5	0.0
아르헨티나	40.10	54.00	53.00	32.2	-1.9
브라질	66.50	82.50	83.50	25.6	1.2
EU-27	1.29	0.95	0.95	-26.4	0.0
중국	14.48	12.60	12.60	-13.0	0.0
일본	0.22	0.22	0.22	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소비량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11/12년 대비 2.4% 증가한 2억 6,232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2억 6,267만 톤에 비해서는 0.1%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대두 소비량을 살펴보면, 미국 4,721만 톤, 아르헨티나 3,895만 톤, 브라질 4,010만 톤, EU 1,270만 톤, 중국 7,683만 톤, 일본 292만 톤이며, 미국을 비롯한 EU, 일본을 제외하고는 주요국의 대두 소비량은 2011/12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 미국 및 EU의 대두 소비량이 증가함에 반해, 아르헨티나의 대두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대두 소비량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2011/12년 대비 2.3% 증가한 2억 3,206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2억 3,244만 톤에 비해서는 0.2%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을 살펴보면, 미국 4,395만 톤, 아르헨티나 3,730만 톤, 브라질 3,690만 톤, EU 1,180만 톤, 중국 6,565만 톤, 일본 189만 톤이며, 2011/12년 대비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EU, 일본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감소함에 반해,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 미국 및 EU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증가함에 반해, 아르헨티나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5. 주요국의 대두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256.18 (226.79)	262.67 (232.44)	262.32 (232.06)	2.4 (2.3)	-0.1 (-0.2)
미국	48.81 (46.35)	46.94 (43.68)	47.21 (43.95)	-3.3 (-5.2)	0.6 (0.6)
아르헨티나	37.50 (35.89)	39.85 (38.20)	38.95 (37.30)	3.9 (3.9)	-2.3 (-2.4)
브라질	40.04 (36.94)	40.10 (36.90)	40.10 (36.90)	0.1 (-0.1)	0.0 (0.0)
EU-27	13.10 (12.15)	12.55 (11.65)	12.70 (11.80)	-3.1 (-2.9)	1.2 (1.3)
중국	72.07 (60.97)	76.83 (65.65)	76.83 (65.65)	6.6 (7.7)	0.0 (0.0)
일본	3.00 (1.96)	2.92 (1.89)	2.92 (1.89)	-2.6 (-3.6)	0.0 (0.0)

주: 괄호 안은 착유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수출량

세계 대두 수출량은 2011/12년 대비 9.3% 증가한 9,886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전월 전망치와는 근소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주요국의 대두 수출량을 살펴보면, 미국 3,661만 톤, 아르헨티나 1,090만 톤, 브라질 3,840만 톤이며, 2011/12년 대비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감소함에 반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전월에 비해 주요국의 대두 수출량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경우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6. 주요국의 대두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90.42	98.90	98.86	9.3	0.0
미국	37.06	36.61	36.61	-1.2	0.0
아르헨티나	7.37	11.00	10.90	47.9	-0.9
브라질	36.32	38.40	38.40	5.7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수입량

세계 대두 수입량은 2011/12년 대비 3.6% 증가한 9,655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과는 근소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주요국의 대두 수입량을 살펴보면, EU 1,130만 톤, 중국 6,300만 톤, 일본 275만 톤이며, 2011/12년 대비 EU 및 일본의 대두 수입량은 감소함에 반해,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표 17. 주요국의 대두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93.21	96.51	96.55	3.6	0.0
EU-27	11.96	11.30	11.30	-5.5	0.0
중국	59.23	63.00	63.00	6.4	0.0
일본	2.76	2.75	2.75	-0.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 기말 재고량

세계 대두 기말 재고량은 2011/12년 대비 8.8% 증가한 6,012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전월 전망치 5,946만 톤에 비해서도 1.1%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을 살펴보면, 미국 340만 톤, 아르헨티나 2,125만 톤, 브라질 1,816만 톤, EU 22만 톤, 중국 1,439만 톤, 일본 20만 톤이며, 2011/12년 대비 미국을 비롯한 EU, 중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감소함에 반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일본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에 비해 미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감소함에 반해, 브라질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8. 주요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1월 (B)	2012/13. 2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세계	55.25	59.46	60.12	8.8	1.1
미국	4.61	3.67	3.40	-26.2	-7.4
아르헨티나	18.10	21.25	21.25	17.4	0.0
브라질	12.97	17.22	18.16	40.0	5.5
EU-27	0.70	0.22	0.22	-68.6	0.0
중국	15.92	14.39	14.39	-9.6	0.0
일본	0.15	0.20	0.20	33.3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5, FEB, 8, 2013.

에너지·원자재시장 동향

국제원유가격은 2012년 12월 상승으로 전환된 후 2013년 1월에도 WTI, 두바이, 브렌트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WTI 원유 가격의 상승폭이 큰 상황이다. 미국이 재정절벽과 관련된 문제를 일단락하면서 재정절벽 우려 완화로 전반적인 상승을 나타냈으며, 중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으로 중국 원유 수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12월 세계 경제 부진 우려로 감산을 실시한 점이 원유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유럽의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유럽의 원유소비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향후 원유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에탄올 시장은 생산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수급불안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 에탄올 생산량이 2012년 여름 이후 줄었는데 경기회복 가능성에 따라 생산량 회복여부가 주목된다.

1. 원유시장 동향¹⁾

■ 가격동향

지난 12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국제 원유가격은 2013년 1월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1월 WTI 원유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94.83 달러를 기록했는데 미국재정절벽 협상과 시웨이 송유관 재가동 영향으로 월초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7.5% 상승하였다. 하지만 전년 동월에 비하면 5.5% 하락한 수준이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107.93 달러로서 전월대비 1.5%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1.5% 하락을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중국의 수입 호조로 인해 강세를 나타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12.32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한 수준이다. 브렌트유는 알제리 사건으로 공급 우려가 나타나며 크게 상승하였으나 유로존 우려와 시웨이 확장공사로 인한 수급 완화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 작성: 삼성경제연구소 박환일 수석연구원(hwanil.park@samsung.com)

1) 원유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KoreaPDS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의 분석이 첨가되어 작성되었음.

표 1. 국제원유가격 동향

단위: 달러/배럴, %

	2013년 1월 평균가격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가격	변화율	가격	변화율
WTI	94.83	88.25	7.5	100.32	-5.5
두바이	107.93	106.35	1.5	109.52	-1.5
브렌트	112.32	109.2	2.9	111.45	0.8

주: WTI(CME 선물가격); 두바이(싱가폴 현물가격); 브렌트(CE 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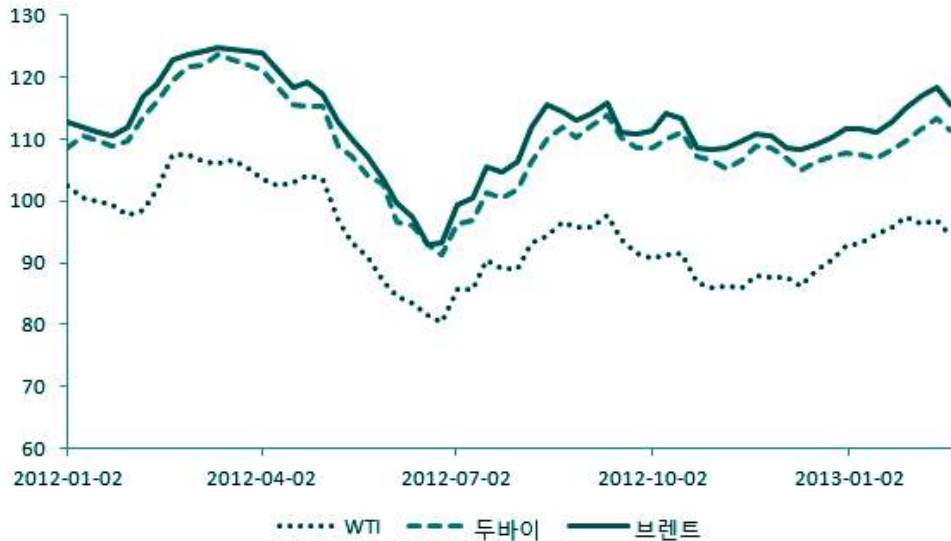
자료: KoreaPDS

1월의 국제원유시장은 WTI 원유를 제외하고 비교적 조용했는데, WTI 원유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었다. 월 초 미국이 재정절벽과 관련된 문제를 일단락하면서 재정절벽 우려 완화로 전반적인 상승을 나타냈다. 또한 미 정유사들이 회계상의 이유로 원유 조달을 잠시 늦추면서 미 원유 재고가 급감한 것도 초기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가격의 경우 미국이 시웨이 송유관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재가동을 시작하자 미국 원유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하방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유가가 강세를 보인 것은 중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으로 중국 원유 수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12월 세계 경제 부진 우려로 감산을 실시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알제리 아메나스 가스 유전에서 벌어진 인질극 역시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말까지 브렌트유 및 두바이유 가격은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였지만 WTI 원유는 높은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05~112 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120 달러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 WTI원유는 배럴당 86~98 달러의 넓은 범위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 따라서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대비, WTI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것이 주요 특징이다.

그림 1. 국제원유 주간가격 변동 추이

단위: 달러/배럴



자료: KoreaPDS

■ 수급동향

2013년 세계 원유수요량 전망은 종전 전망보다 소폭 하락 조정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수정으로(3.6% → 3.5%), 원유수요량은 종전보다 9만 배럴/일 하락한 90.7백만 배럴/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망치 하락은 유로존과 남미지역의 수요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 전망치는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2012년 원유수요량 추정치인 89.8백만 배럴/일보다 84만 배럴/일 증가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인해 원유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유로존의 경기 위축으로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4/4분기 세계 원유수요량 추정치는 91.0백만 배럴/일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 분기 수요량 90.2백만 배럴/일에 비해 80만 배럴/일 증가할 전망이며 전년 동기대비 140만 배럴/일 증가할 것이다. 중국, 브라질, 한국, 캐나다 등 국가의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의 원유소비는 감소할 전망이다.

표 2. 세계 원유수요량

단위: 백만 배럴/일

	2011년	'12.3Q	'12.4Q	2012년	'13.1Q	2013년
미주	30.3	30.5	30.6	30.3	30.0	30.4
아시아	28.4	29.0	30.4	29.5	30.6	29.9
유럽	15.0	14.5	14.5	14.5	14.1	14.2
기타	15.1	16.2	15.5	15.5	15.3	16.2
세계	88.8	90.2	91.0	89.8	90.0	90.7

자료: Oil Market Report(2013.2.13), IEA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2012년 3분기 이후 다시 반등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분기에는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로 중국 원유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4분기 이후부터 산업 활동 지표가 반등하자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다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 내 원유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자체 생산만으로는 수요 증가를 모두 만족시키기엔 힘들기 때문에 원유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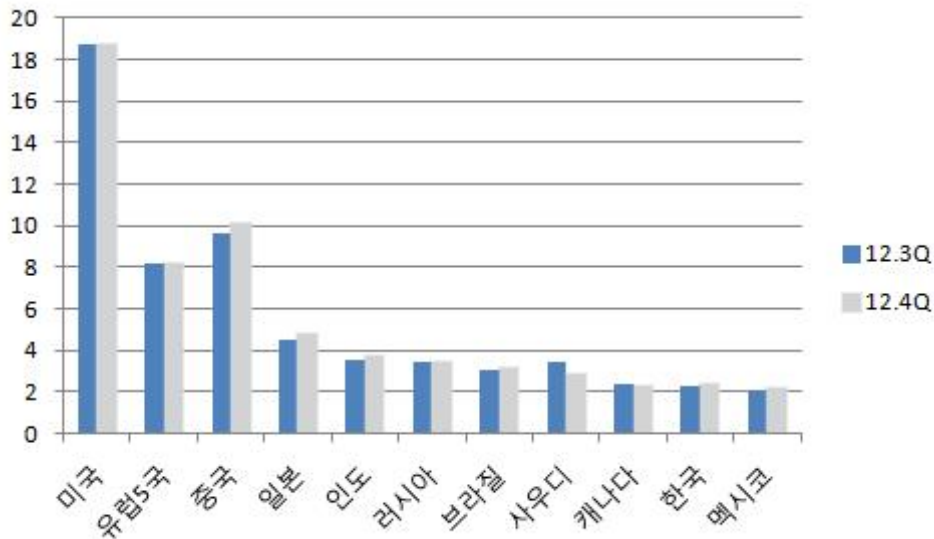
EI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중국 원유 소비량은 전월대비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소비량은 전월대비 30만 배럴/일 감소한 10.5백만 배럴/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대비 39만 배럴/일 증가한 수준이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전월대비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 12월 중국 원유 수입액은 전월대비 2억 7천만 달러 감소한 18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2월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한 4.4백만 배럴/일이지만, 전년 동기대비 18만 배럴/일 증가했다.

미국 원유 수입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3년 1월 18일 기준, 최근 4주 미국의 평균 원유 수입량은 4주 전 대비 49만 배럴/일 감소한 7.8백만 배럴/일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1.2백만 배럴/일 감소했다.

유럽은 지난 2008년 이후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EIA가 발표한 12월 유럽 석유 소비량은 전월대비 계속 감소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유럽 석유 소비량은 전월대비 35만 배럴/일 감소한 13.0백만 배럴/일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에 비하면 29만 배럴/일 감소한 수준이다. 유럽의 주요 소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개별적으로 보면 이탈리아의 석유 소비가 과거 5년 평균 동기대비 -16.43%로 가장 저조한 수준이며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경우 소비 감소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 국가별 원유 소비량

단위: 백만 배럴/일



주: 유럽5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자료: Oil Market Report(2013.2.13), IEA

2013년 1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은 전월대비 30만 배럴/일 하락한 90.8백만 배럴/일을 기록했다. OPEC과 OPEC 이외 지역에서 모두 공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과 비교하면 4만 배럴/일 증가했다. OPEC 이외 국가에서의 1월 원유생산은 전월보다 19만 배럴/일 감소한 54.2백만 배럴/일을 기록했지만 전년대비 54만 배럴/일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1분기에는 75만 배럴/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13년 전체적으로는 1백만 배럴/일 증가한 54.4백만 배럴/일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OPEC 지역의 원유 생산량은 2013년 1월에 최근 12개월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는데 전월대비 10만 배럴/일 감소한 30.3백만 배럴/일에 그쳤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리비아, 카타르 등 국가에서의 원유 생산 감소량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알제리 아메나스 가스전에서의 테러공격으로 인근지역의 석유기업들이 생산활동이 저조해졌기 때문이다.

표 3. 비OPEC지역 원유생산량

단위: 백만 배럴/일

	2011년	'12.3Q	'12.4Q	2012년	'13.1Q	2013년
미주	14.6	15.7	16.5	15.8	16.6	16.8
FSU	13.6	13.6	13.8	13.7	13.8	13.6
아시아	8.3	8.3	8.5	8.4	8.3	8.2
기타	16.3	15.4	15.4	15.5	15.4	15.8
합계	52.8	53	54.2	53.4	54.1	54.4

주: FSU는 구 소련연방

자료: Oil Market Report(2013.2.13), IEA

미국은 원유 재고 과잉 상태가 1월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 18일 기준, 미국 원유 재고량은 4주전 대비 7.9백만 배럴 감소한 363백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는 전년대비 2.8백만 배럴 증가한 수준이다. 과거 5년동안 평균 재고량인 327백만 배럴과 비교하면 3.6백만 배럴 증가한 상황이다. 미국 원유 생산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4주전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동기 대비해서도 증가했다. 2013년 1월 18일 기준, 미국 원유 생산량은 4주전 대비 5천 배럴 증가한 7.0백만 배럴/일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1.3백만 배럴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과거 5년 동기 평균 5.3백만 배럴/일보다 1.7백만 배럴/일 증가한 것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재고량이 상승한 가장 주된 원인은 셰일오일의 생산증가로 인한 쿠싱지역의 재고 증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수력파쇄 기술과 수평 시추 기술의 발달로 셰일오일 생산이 증가하여 미 중서부 지역과 걸프연안 지역에서 쿠싱지역으로 공급되는 원유의 양은 늘어났으나 쿠싱지역에서 걸프연안 정제시설로 보낼 수 있는 송유관 용량의 한계로 인해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월에는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회계 문제로 정유 회사들이 원유 조달을 잠시 늦추면서 원유 재고가 4주전 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제소들이 유지보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제시설의 가동률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이다.

북미와 달리 북해 지역의 원유 생산량은 유전 노후화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유지보수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단기회복 중이다. 2012년 12월 북해 지역의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비 2만 배럴/일 감소한 3.8백만 배럴/일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47만 배럴/일 줄어든 수준이다. 12월 노르웨이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비 1만 배럴/일 감소한 2.7 백만 배럴/일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30만 배럴/일 감소하였다. 북해 유전 노후화로 인해 피크오일을 넘어선 북해 원유 생산량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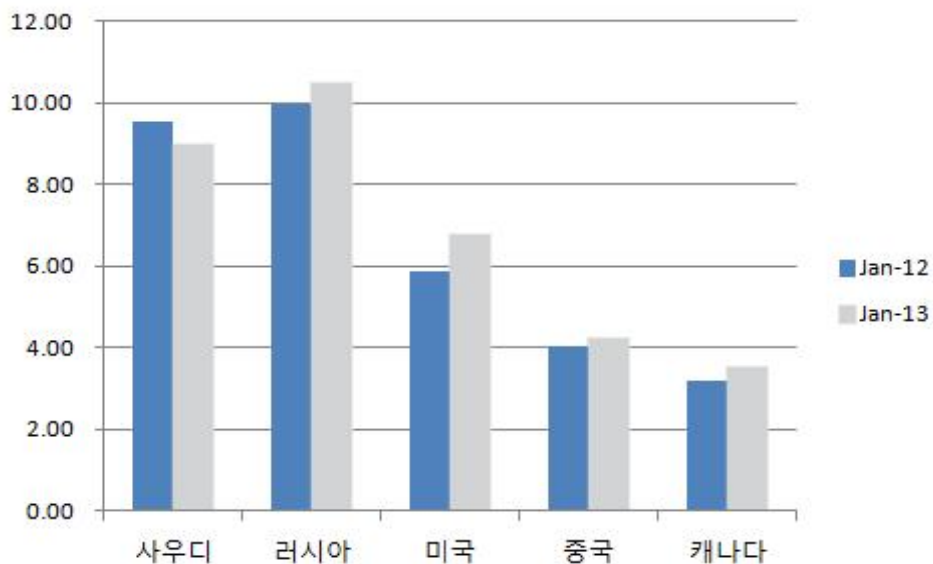
이고 있다. 하지만 유지보수를 마치고 유전들이 생산을 재개하며 단기적으로는 생산량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영국 유전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노르웨이의 생산량 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북해의 원유 생산량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 하반기부터 생산량이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2월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비 1만 배럴/일 증가한 10.0백만 배럴/일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4만 배럴/일 증가한 수준이다. 러시아의 원유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소 10년간은 10백만 배럴/일을 상회하는 수준의 원유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밝힌 바 있으며, 대륙붕 및 비전통적인 석유 매장자원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1990년대 후반 글로벌 석유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투자를 한 결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생산량은 2012년 12월 전월 대비 20만 배럴/일 감소한 10.0백만 배럴/일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30만 배럴/일 작은 수준이다. 12월의 이란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비 동일하지만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12월 생산량은 3.6백만 배럴/일을 기록하였지만 전년대비 무려 2.0백만 배럴/일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3. 국가별 원유 생산량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Oil Market Report(2013.2.13), I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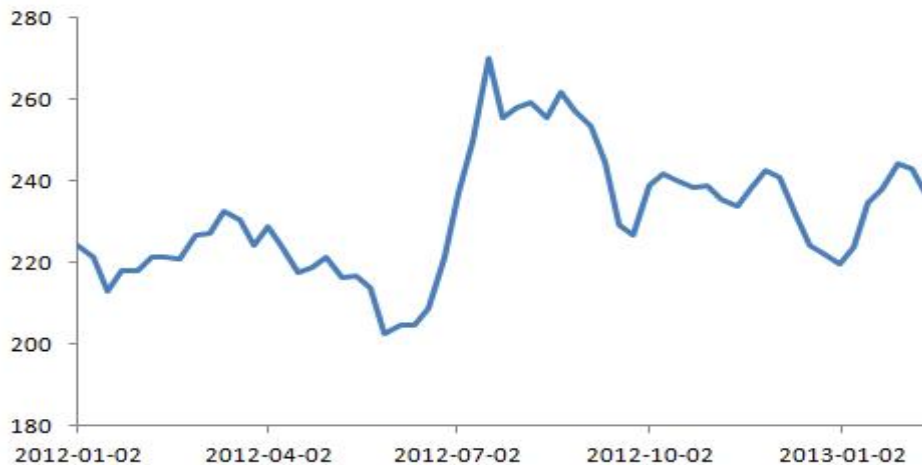
2. 에탄올시장 동향

■ 수급균형을 회복하며 안정세를 보임

2012년 여름 미국 옥수수 가격 급등으로 미국 에탄올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재고량도 동시에 감소하였다. 그 결과 CME에서 거래되는 에탄올 가격은 2012년 7월 2.73달러/갤런까지 상승했지만 하반기부터 미국 내 가솔린 소비 감소 우려로 인해 에탄올 가격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갤런당 2.2달러까지 하락한 에탄올은 2013년 들어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원유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가격 하락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 말 에탄올 가격은 2.47달러/갤런으로 연초에 비해 13.3% 상승했다. 하지만 2월 들어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고 원유 가격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기전망과 미국의 재정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에탄올 가격도 방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미국 CME 에탄올 가격 추이

단위: 센트/갤런



자료: KoreaPDS

미국 에탄올 생산량은 일 평균 90만 배럴 이상을 유지했었으나 2012년 6월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3년에는 80만 배럴을 하회하고 있다. 반면 소비량은 감소폭이 작아 생산량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비축한 재고량이 부족한 공급을 메꾸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2013년 들어 에탄올 소비가 감소하면서 에탄올 수급 불균형은 해소되

어 가는 중이다.

한편 세계 2위 에탄올 생산국인 브라질은 2013년 5월 1일부터 가솔린에 혼합되는 에탄올 함유량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가솔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브라질의 정책으로 향후 에탄올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의 가솔린 및 에탄올 소비 감소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는 에탄올 시장에 계속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2012년 미국 월별 에탄올 수급 및 재고량 추이

단위: 생산량 및 수요량: 천 배럴/일, 재고량: 백만 배럴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표 4. 미국 에탄올 생산 및 옥수수 소비량 추이

주간	에탄올 생산량 (천 배럴/일)	가솔린 소비량 (천 배럴/일)	가솔린소비 대비 에탄올 생산비율(%)	옥수수 소비량 (백만 부셀)
2013/1/7	784	8,320	9.4	11.9
2013/1/14	792	8,431	9.4	12.0
2013/1/21	770	8,501	9.1	11.7
2013/1/28	774	8,415	9.2	11.7
2013/2/4	789	8,404	9.4	12.0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외환시장과 세계경제 동향

국제외환시장의 초점은 일본 엔화에 쏠려있다. 2012년 9월 26일 아베 신조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후 엔화 가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에 따라 2012년 5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환율전쟁 논란을 야기한 일본의 엔저(低)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란 가운데 자국의 경기 부양에 비뚤 선진국들간 환율 경쟁이 올해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조심스런 회복을 향해 가고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로존에 놓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힘든 형勢이다. 올해 미국 경제회복은 민간수요 회복에 달려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부문의 충격이 치명적이지만 않다면 민간수요 회복세가 미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1. 외환시장 동향

■ 시장의 관심은 엔화로 쏠려

최근 국제외환시장의 초점은 일본 엔화에 쏠려있다. 2012년 9월 26일 아베 신조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후 엔화 가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 집권당인 자민당은 총선 과정에서 ① 명확한 물가목표(2%) 설정 ② 무제한 양적완화 ③ 물가안정과 고용확대(dual mandate) 등을 통해 강도 높은 금융완화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였다.¹⁾

* 작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진영 부연구위원(jymoon@kiep.go.kr)

1) 지난해 9월부터 자민당이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었으며, 이는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였음. 아베 정권은 총선(2012. 12. 16)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며, 12월 26일에 공식 출범함.

표 1.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구분	미국(Quantitative Easing 3)	유로지역(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일본(open-ended Asset Purchase Program) ¹⁾
규모 (발표시점)	• MBS 매월 400억 달러 규모 매입(2012. 9. 13) • 장기국채 매월 450억 달러 규모 매입(2012. 12. 12)	무제한(2012. 9. 6)	무제한(2013. 1. 22)
기간	무기한	무기한	무기한
기준금리	0~0.25%(2015년까지)	0.75%	0~0.1%

주: 1) 일본은 지난해 자산매입한도를 다섯 차례(2, 4, 9, 10, 12월)에 걸쳐 증액하여 101조 엔까지 확대하였으며, 자산매입계획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무기한 자산매입'을 도입하기로 결정함(2013. 1. 22).

자료: 허인, 강은정(2013), 「원고·엔저 현상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3-0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은 지난 금융정책결정회의(2013. 1. 22)에서 ① '2% 물가목표' 조기 달성 ② 무기한 자산매입 ③ 공동성명(정부와 일본은행 간의 협력강화) 발표 등 보다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선진국들이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2012년 10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양적완화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표 1),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림 1. 원화와 엔화 환율 추이



주: 음영부분은 최근의 엔화약세 시기(2012. 9. 26~).
자료: Bloomberg.

그림 2. 원/100엔 환율 추이



주: 음영부분은 최근의 엔화약세 시기(2012. 9. 26~).
자료: Bloomberg.

이러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에 따라 2012년 5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엔저 기조(그림 1,2 참고)가

우리나라의 무역, 특히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자국 상품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은 아베노믹스의 성토장이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20 사이에 일본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이강(易綱)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장은 “선진국들의 (경쟁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총재 마저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엔화의 약세는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수지 문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하면서 엔화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로 피해를 입은 생산시설이 복구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미 수출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의 경기부진으로 수출은 감소하였고 수입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원전가동이 중단되자 부족한 전력수요를 화력발전으로 대체하면서 LNG, 원유 등 대체 연료 수입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소득수지의 흑자규모가 커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무역수지적자 규모의 확대로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다. 2012년 11월 일본의 경상수지는 2,244억 엔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2년 1월(-4,556억 엔)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 발표에 따르면 1월 무역수지가 1조6294억엔 적자를 기록하였다. 최근의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는 더 악화된 것으로 이 같은 규모는 비교 가능한 1979년 1월 이후 최대이며, 민간 예측치(1조3722억엔 적자)도 2572억엔을 웃돌았다. 최악의 무역적자 원인은 엔 약세로 수입 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출 규모는 4조7992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 증가했지만 직전 달(2012년 12월)보다는 9.4% 감소하는 등 엔 약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입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차질로 발전용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경유, 나프타 가격 자체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1월 전체 수입 규모가 6조4286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전달보다 8.2% 씩 증가했다. 결국 엔 약세가 수출 금액 증가에는 큰 보탬을 주지 못한 반면 수입 금액 증가를 초래하면서 무역수지가 더 악화된 것이다.

지난 2월 16일 G20 재무장관회의의 공동 선언문에서 “경쟁적인 통화 평가 절하를

차단하기 위해 환율을 경쟁적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좀 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를 한층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G20 회원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환율전쟁 논란을 야기한 일본의 엔저(低)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데다 합의 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자국의 경기 부양에 바쁜 선진국들간 환율 경쟁이 올해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2. 세계 경제동향

■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들에 둘러싸인 환경

유로존의 재정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조심스런 회복을 향해 가고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로존에 놓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힘든 형상이다. 미국은 지난 2012년 4/4분기 GDP 성장이 예상에의 -0.1%를 기록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으나,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연말 경기요인으로 지난 12월 소매판매는 0.5% 상승을 기록하며 훈기가 감도는 모습이다. 유로지역은 소매판매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수출이 증가로 반전되는 등 경기상황이 추가로 악화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는 선진경제권보다 긍정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호조를 보이며 회복세에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표 2. 주요국 경제 지표

		2011		2012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미국	GDP(연율)	1.8	4.1	2.2	2.0	1.3	3.1	-0.1	-	-	-
	제조업 생산 ¹⁾	4.3	5.6	4.0	9.8	0.8	-1.0	0.2	-0.9	1.3	0.8
	소매 판매	8.0	1.9	5.0	1.7	-0.3	1.3	1.4	-0.2	0.4	0.5
	주택가격(기존)	-4.6	-4.1	6.7	-2.5	14.3	1.5	-2.5	-0.8	1.4	0.8
	취업자수(천명) ²⁾	2,103	570	2,170	787	324	456	603	160	247	196[157]
유로 지역	GDP	1.4	-0.3	..	0.0	-0.2	-0.1	..	-	-	-
	산업생산	3.4	-1.7	..	-0.5	-0.5	0.3	..	-1.0	-0.3	..
	소매 판매	-0.6	-0.3	-1.7	-0.3	-0.8	0.0	-1.6	-0.7	-0.1	-0.8
	수출	13.8	2.5	..	3.7	0.8	1.3	..	-1.2	0.8	..
	실업률	10.2	10.6	11.4	10.9	11.3	11.5	11.7	11.7	11.7	11.7
중국 ³⁾	GDP	9.3	8.9	7.8	8.1	7.6	7.4	7.9	-	-	-
	산업생산	13.9	12.8	10.3	11.6	9.5	9.1	10.0	9.6	10.1	10.3
	소매 판매	17.1	17.5	14.3	14.8	13.9	13.5	14.9	14.5	14.9	15.2
	고정투자 ⁴⁾	23.8	23.8	20.6	20.9	20.4	20.5	20.6	20.7	20.7	20.6
	수출	20.3	14.2	7.9	7.6	10.4	4.4	9.4	11.6	2.9	14.1
일본	GDP	-0.6	0.1	..	1.4	-0.0	-0.9	..	-	-	-
	광공업생산	-2.4	0.4	-0.3	1.2	-2.0	-4.2	-1.8	1.6	-1.4	2.5
	소매 판매액	-1.2	-1.0	2.2	4.0	-0.5	-2.2	-1.1	0.8	-0.1	0.1
	수출	-2.7	-4.2	-2.8	0.7	0.3	-3.8	-2.2	-3.0	0.6	2.4

주: 1) 분기는 연율, 2) 비농림어업부문, 증가분, 3) 전년동기대비, 4) 도시지역 누계기준, 5) []내는 2013.1월중
자료: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 동향, 2013.2.

1) 미국의 2012년 4/4 분기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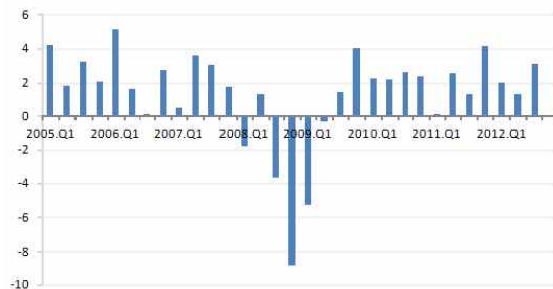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예비치)이 -0.1%(연율)로 집계됐다고 지난 1월 30일 발표하였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1.1%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기발 경기 침체가 끝난 2009년 2분기 이후 3년6개월(14분기) 만에 처음이다.

4분기의 0.1% 마이너스 성장 여파로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2.2%로 잠정 집계됐다. 한 해 전인 2011년 1.8%보다는 0.4%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인 3%에는 미치지 못했다.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요인은 정부 지출과 기업

재고의 감소였다. 정부 지출이 6.6% 감소했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22.2%나 줄었다. 정부 지출 감소는 1972년 이후 최대치로 이로 인해 성장률이 1.33%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들이 매출 부진을 염려를 재고를 크게 늘리지 않은 것도 부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림 3. 미국의 GDP 분기별 성장률

단위: %



자료: Bloomberg.

그러나 미 GDP 성장률이 수치상으로는 실망스럽지만 마이너스 성장 이면에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되고 있다. 일단 민간 수요의 회복 가능성이다. 전체 경제활동과 GDP의 70%를 구성하는 소비자 지출은 3분기 1.6%에서 지난 분기 2.2%로 상승했다. 기업 설비투자도 작년 3분기 -1.8%로 당시 1년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지난 4분기에는 8.4%로 반등에 성공했다. 재정절벽 우려가 있었음에도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이 3분기보다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올해 미국 경제회복은 민간수요 회복에 달려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부문의 충격이 치명적이지만 않다면 민간 수요 회복세가 미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미국의 재정절벽의 불확실성 문제 지속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2013년 세계경제 회복의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미국의 재정지출은 감소하고 세금부담은 증가하는 재정 측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될 수 있는 위험을 지칭하고 있다. 재정지출 감소는 정부부문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승수효과를 통해 민간소비도 위축시키게 되며, 세금부담의 증가 역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31일 백악관과 공화당 재정절벽 협상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다. 이날 백악관과 공화당은 ‘고소득층 증세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개인 소득 40만달러 이상’으로 합의했다. 이는 고소득층 가구들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인상한다는 것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의회가 증세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예산 삭감은 ‘미봉책’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 방식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 2개월 시한을 늦춰 다시 논의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결국 미국 정치권은 지난 두달을 허송세월하다 오는 3월1일로 연기해놓은 연 11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sequester)을 결국 피할 수 없을 상황으로 직면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행정부와 의회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985년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예산자동삭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2011년 정부 부채한도를 2조1000억달러 증액하면서 2012년 말까지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을 자동삭감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이 있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그 충격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말처럼 미국의 정치권은 또 다시 극적인 타협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재정문제에 관한 불안 요인이 정치권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불확실한 요인으로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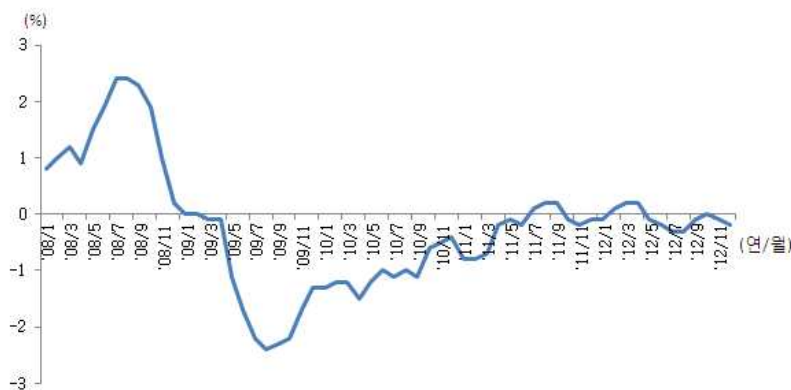
3) 일본 아베노믹스의 시동

지난해 12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출범한 자민당의 아베 정부는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아베노믹스란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시경제 및 산업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① ‘대담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정책’, ②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③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전략’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²⁾

2) 정성춘, 이형근, 서현경(2013),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3-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금융정책당국(일본은행)은 그동안 제로금리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아베노믹스는 이러한 종래의 정책이 소규모적이고 불연속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양적완화정책을 보다 대담하게, 연속적·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기존의 재정정책이 일본 사회자본의 노후화와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무시하고 지역경제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10년에 걸쳐 100조~200조 엔 규모의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4.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추이



일본정부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가 총수요부족에 의한 지속적인 물가하락(그림 4)에 있다고 진단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에 달하도록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가 명시적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아베노믹스의 또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는 엔고를 시정하여 일본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양적완화, 재정지출의 확대, 성장전략의 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채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양적완화의 핵심이다.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지고 이 자금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로 이어져 투자와 소비를 증가를 유도하고 엔화가치의 하락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국가채무 위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선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전략은 동일

본대지진 복구, 노후화된 사회자본 갱신투자 확대,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노선의 지속가능성, 일본 국내경제에 미치는 정책효과, 국제경제변수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국민의 지지는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가신용도 하락위험 증가, 과도한 엔화 가치하락에 대한 저항감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한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를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건져내고 명목 3%대의 성장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묘약인지, 아니면 일본의 재정위기 리스크를 더욱 증대시키는 독약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곡물 가격 동향과 전망

국제 곡물가격은 연초 유럽 경제 회복 전망과 미국, 중국 등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호조, 미국 재정절벽 협상 극적 타결 등 외부시장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상품시장 상승세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 펀드를 비롯한 투기세력의 조정물량이 출현하면서 하락 압력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인 펀더멘털 강세 상황은 대체로 곡물가격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옥수수과 소맥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두가격은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미국 대두 수출실적의 호조와 날씨 변수에 따른 남미산 대두 생산량 불확실성이 큰 요인으로 꼽혔으며, 3월말에서 4월초 남미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발표가 향후 가격 향방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 외환시장 동향

IMF는 지난 1월 2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전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p 하향 조정하여 2013년 성장률을 3.5%로 전망하였다. 또한 유로존 회복 지연과 미국 재정감축 리스크 지속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기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불균형이 급격히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불균형이란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 특정 경제권이나 국가가 상당 폭의 흑자 혹은 적자를 기록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저축부진과 과잉소비가 원인이라는 주장과 중국의 수출 증대를 위한 환율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밖에 선진국의 과잉유동성과 자산가격상승이 원인이라는 데에도 견해가 모아져 왔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계 GDP 대비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의 절대

* 작성: (주)외환선물 한성민 차장(sun@kebf.com)

치의 합으로 표시되어 글로벌 불균형의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글로벌 불균형 지수)는 1.5~3% 범위에서 오르내렸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불균형 지수는 2000년대 초반 3%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6%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불균형 지수는 2009년부터 4%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불균형이 줄어들었지만 특히 미국과 중국, 산유국 등이 전체 규모를 줄이는데 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한 2008년 GDP의 4% 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는 3%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2007년 GDP의 10%를 넘었던 중국의 흑자 역시 200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09, 2010년에는 5.2%, 이후에는 3%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다. 금융위기 이후 수요 둔화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산유국의 상품수지 흑자도 줄어들었다.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된 것은 크게 경기적·일시적 요인과 구조적·추세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경기 요인으로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및 교역 감소를 들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과 미국 가계의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줄어 선진국의 적자와 신흥국의 흑자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과거 미국의 경기침체로 세계경제가 매우 부진했던 1982년, 1991년, 2001년에도 전세계 교역이 축소되며 경상수지 불균형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거대한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던 중국이 리먼사태 발생 후 건설투자 확대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나선 것도 한 몫 했다. 이는 수입을 유발해 중국의 무역흑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2011년 일본이 대지진으로 인해 일시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도 부분적으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도 산유국의 흑자규모를 축소시켜 글로벌 불균형 완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인 요인으로는 신흥국의 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신흥국의 소비와 이에 따른 수입이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등 주요 흑자국들의 경제구조 개혁에 따라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고 수출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도 이러한 추세에 일조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흑자를 지속하는 신흥국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2000년대 중반부터 완만히 강세를 보여 오다가 금융위기 이후 절상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셋째, 민간의 경상수지가 저축-투자 갭과 재정흑자의 합이라는 점에서 미국

과 유럽 등 선진국의 재정적자 축소세도 선진국의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MF는 향후 감속은 되겠지만 글로벌 불균형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불균형 완화세가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2년 중에도 나라에 따라 불균형이 소폭 늘어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에서 경기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아직은 불균형 완화세가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하게 한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축소는 상품수지의 적자 축소보다는 소득수지 흑자 확대에 기인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경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 등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경기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겠지만 세계경제의 저성장 장기화를 고려하면 그 힘은 강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결국은 미국과 유럽의 재정적자 감축노력이나 중국의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시행효과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얼마나 강할 것인가에 따라 글로벌 불균형의 속도가 조절될 전망이며, 당분간은 현 수준을 중심으로 소폭 변화가 예상된다.

2. 주요국 동향

■ 미국

2013년 새해 첫 날, 미 의회는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합의에 성공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조 바이든 부통령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협상으로 탄생한 ‘미국 납세자 구제안(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2012)’은 1월 1일 새벽 상원을 통과했다. 회기를 연장해가며 논의에 들어간 하원도 결국 1월 1일 밤 11시경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시장이 개장하는 1월 2일이 되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애쓴 결과이다. 합의 소식과 함께 개장한 금융시장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가지수가 4% 가량 급등한 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경향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독일, 영국, 일본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당초의 기대에 비해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드리워져 있던 재정절벽의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다.

이번 합의안은 크게 주요 감세조치 연장 여부 등 세입 관련 항목과 올해 1월 1일로 예정되었던 정부지출 자동삭감(sequestration)의 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타협점은 ‘부자 증세’였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면서도 경기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웠던 카드가 바로 ‘부자 증세’이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증세를 하는 대신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감세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었다.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인 공화당 측은 크게 반발했다. 지금껏 감세를 주장해 온 공화당이었지만, 부자 증세를 하는 것보다는 평균세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그러나 대선에 패배한데다 강경 보수세력인 티파티 의원들마저 대거 낙선하면서 공화당은 협상력이 약해진 모습이었다. 결국 고소득 계층의 범위를 민주당이 주장한 연 소득 25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자본 및 배당소득세, 상속세의 인상폭을 다소 낮추는 선에서 부자증세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고소득층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감세조치가 연장되었다. 이 밖에도 세액 공제(tax credit)와 비상실업수당 지급이 연장되었고, 고령자 의료혜택(Medicare)에 대한 의료수가 삭감도 유예되었다.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의 적용을 받는 과표기준을 인플레이션과 연계하여 자동 조정되도록 한 것도 조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고용세(payroll tax)는 인상된다. 사회보장세의 일종인 고용세의 경우 피고용자의 부담분에 한해 세율을 2%p 인하해주고 있었는데 이 조치가 만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세율은 현행 4.2%에서 6.2%로 환원될 예정이다. 한편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던 정부지출 자동삭감 조치는 일단 2개월 간 시행을 유예시키는 선에서 임시 합의하였다.

아직 재정지출 추가 삭감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결과만 본다면 합의안에 따른 재정감축 규모는 예상보다 다소 적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부터 ‘재정비탈’로 일컬어지는 절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그 때의 감축규모는 재정절벽의 약 50%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해 3월 미 의회 예산국(CBO)는 재정절벽 발생 시 FY(회계연도) 2013년의 재정적자 규모를 6,120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800억 달러의 재정감축을 의미하며, 재정비탈이 재정절벽의 절반 수준이라면 그 때의 감축규모는 약 2,400억 달러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합의 이후 CBO는 합의안의 영향에 따라 FY 2013년의 재정적자가 약 9,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전년 대비 재정적자는 약 1,500억 달러 축소되는 데에 그친다. 당초 재정비탈 전망에 따른 감축규모가 2,40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약 900억 달러 낮은 수치이다. 이는 그만큼 합의안의 긴축 강도가

예상에 비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대한 감세가 이어지는 데다,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의 가구는 미국 전체의 7%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환산 시 합의안의 연간 재정감축 규모는 GDP의 약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정절벽 전망에 비해서는 약 2.7%p, 재정비탈에 비해 약 0.6%p 낮은 수치이다. 지난 해 1%대 후반에서 2%에 이르는 미국 성장률 전망치들이 대체로 50% 수준의 재정비탈을 가정한 것임을 감안하면, 최근의 합의안을 반영할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합의안에서의 긴축 강도 완화가 세입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세승수(0.5 가정)를 감안할 경우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3%p 가량 높은 2%대 초중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예상에 비해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재정건전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부양과 재정건전화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CBO는 만약 미국 정부가 경기에 미치는 충격을 우려하여 재정감축을 거의 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5%에 달하고 정부부채(연방정부 보유 제외) 비율도 90%에 육박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재정적자 비율은 향후 10년 평균 GDP 대비 3.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수준이 GDP 대비 3%인 것에 비해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정도이다. 정부부채 비율은 향후 10년간 GDP 대비 7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적자가 안정되더라도 부채비율을 줄일 정도로 충분히 하락하지는 못함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진 부채 비율이 조정되지 못하고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향후 경기 둔화 등 제반여건이 변화할 경우 재정건전화는 더욱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 지난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었음을 감안할 때, 최근의 합의안 역시 신용평가사들로부터의 비판 혹은 신용등급 추가 강등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채한도 협상이 결국 결렬되는 등의 추가적인 충격 없이,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만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 다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측면도 많이 있다. 3%대가 전망되는 재정적자 비율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긴축안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 20년의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증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세율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신용평가사들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1년 신용등급 강등 당시 신용평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장기 재정전망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가 오히려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평가사들이 불필요한 과단성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 유럽

최근 발표된 구매관리지수(PMI) 등 유럽경제의 몇몇 실물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이다. 유로존 17개 국가의 1월 복합 PMI 확정치는 50.4를 기록했다. 경기 확장의 경계를 의미하는 50선을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넘어섰다. 제조업부문 1월 PMI는 48.7로 지난 12월의 46.9보다 높아졌다. 서비스업에서도 1월 확정치가 50.5로 역시 지난 12월의 48.8보다 높았다. 비유로존 국가이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영국의 1월 제조업 PMI도 52.1을 기록, 전월의 49.7에서 상승했다. 이러한 수치는 당초 시장전문기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여타 지표들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된다. 난항을 겪던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의 지난 달 국채발행수익률과 신용디폴트스왑(CDS) 등이 최근 크게 하락하면서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유럽 자금시장 역시 유럽중앙은행(ECB)의 4,890억 유로 상당의 3년물 유동성 공급 이후 은행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과 각국의 정책공조 등으로 최근 유럽 재정위기가 일부 완화된 모습이다. 비록 근본적인 해결은 아닐지라도 시간은 번 모양새다. 지난 달 열린 유럽 정상회의에서는 긴축 속에서도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대해 각국의 컨센서스를 이룬 바 있다.

이 같은 유럽 경제를 둘러싼 변화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위기로 침체에 빠져 있던 유럽의 경기가 점차 되살아나려는 징조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대는 어디까지나 기대다. 현재 유럽의 실물경기 상황은 한두 개 지표의 단기적 개선만으로 회복을 논할만큼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벨기에 중앙은행은 지난 해 4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0.1%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함으로써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유로존 6번째 경제대국인 벨기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구제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나라였기에 성장을 하락의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다. 최근 발표되는 유럽 주요국들의 실물지표들 중에는 아직까진 청신호보다는 적신호가 더 많다. 독일의 12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프랑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1월 소매판매도 감소했다. 산업 및 기업활동 동향도 아직 호전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먼저 유로존 국가들의 산업신뢰지수와 기업활동체감지수가 1월 들어 하락세가 주춤하고는 있으나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실업률은 독일과 네덜란드만 소폭 하락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지난 12월 증가율이 전기 대비 모두 증가 내지는 정체했다.

기업들의 재정상황도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유럽 기업들의 경우 부채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회사채 디폴트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기관마다 예측치는 다르지만 3년 만기 회사채 디폴트 비율이 현재 2.6%에서 올 연말까지 적게는 4%에서 많게는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P는 은행대출을 포함시 투기등급 회사채의 디폴트 비율은 최악의 경우 8.5%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무역 측면에서도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 좋다. 제조업 수출강국 독일도 12월 수출이 전월 대비 4.3%나 감소했다. 독일 경제장관은 유럽 역내경기가 둔화되고 역외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독일 수출은 작년 수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여타 유로존 국가들의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경상수지 개선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침체나 회복이냐를 놓고 한두 달 사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는 단기지표들의 부침만 가지고 경기의 방향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경기의 진행방향을 결정지을 본질적인 변수들인 실물경제의 구조적 펀더멘털, 재정위기 전개 양상, 산업 및 기업활동 동향,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들의 선거 이후에 벌어질 정치적 상황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유럽은 재정위기 심화로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가운데 있다. 더욱이 강력한 재정긴축, 디레버리징, 대외수요 둔화 등 실물과 금융부문 모두에서 여러 악재가 얹혀있는 상황이다. 유럽 실물경기의 향방은 재정위기와 상호 맞물려 전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을 두고 유로존 주요 국가들간 정책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밀월관계 속에서 신재정협약 등 정책공조를 통해 범 유럽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가자는 합의에 이뤘다. 유동성 공급측면에서도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 효과에 힘입어 연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채입찰이 발행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원만히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면 국가간 정책공조와 재정위기국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으로 위기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하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 유동성 공급이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이고, 향후 전개될 정책공조 과정에서 국가간 이견이 표출되고 합의 사항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간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유로존 재정위기는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매우 많다. 문제는 그리스도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올 상반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재정위기가 상대적으로 심한 국가들에 대한 국제 만기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이 3년 만기 저리의 장기대출을 늘려 신용경색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재원을 5천억 내지 1조 유로 규모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신재정협약에 따라 오는 7월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출범하면 유럽의 재정위기가 점차 탈출구를 찾아갈 여지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트로이카의 구제금융과 각국 정부의 긴축만으로는 재정위기를 완전히 타개하고 더 나아가 실물경제의 성장둔화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올해 유럽경기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유럽 정치지형도의 변화 가능성이다. 올해 유럽은 선거의 해다. 이미 지난 해부터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가 많다. 유로존 내에서만 지난 해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독일과 프랑스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패하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새로운 불확실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짐을 의미한다. 올해 4월에 있을 프랑스 대선과 내년 독일 총선 등은 유럽 재정위기와 더불어 유로존, 유럽연합 자체의 명운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일부 금융 및 실물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책 리스크 및 기타 구조적인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유럽 경제는 경기회복에 상당한 시간을 요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채무상환 불능, 저성장 등 근본적인 위험요인들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럽안정화기구, 유럽중앙은행 등의 재원확충 등 방화벽 구축도 국가간 갈등으로 이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유럽국가들 간 역내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켜야 되나 현재로서는 단기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성장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저성장과 채무상환불능의 악순환이 나타나면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과 맞물려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됨은 물론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올해 유럽경제는 약한 수준의 경기침체(Mild Recession)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로존의 경우 올해 성장은 침체와 저성장을 반복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

■ 중국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強) 등 제5세대 지도부가 국정을 이끌 2013년의 중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그 어느 해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선택한 경제정책 기조는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성장’으로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면에서 큰 무리를 하지 않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꺼리는 입장이며, 작년 3분기 이후의 경기 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올해 7.5% 이상의 경제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제수지를 균형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질 높은 도시화 추진과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내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수준은 대외여건이 돌발적으로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내수 회복의 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부양책의 약발이 약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지와 제조업 설비투자과 부동산 투자 등 민간투자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어 작년에 경기의 지지대 역할을 했던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의 바통을 이어받아 투자 회복을 주도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중국 경제의 내생동력이 될 수 있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중장기 성장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이 도시화와 소득 재분배 두 가지 이슈다. 3월 양회(兩會)를 전후해 발표될 도시화와 소득재분배 추진 로드맵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올해 경제 운영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단기 경기주기 요인들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내생적 투자동력은 여전히 강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통화정책이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금시장 환경은 개선될 것이며, 재정적자는 다소 확대될 것이다. 셋째, 신형 도시화가 내수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작년 9월 이후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 구매관리자협회 지수(PMI) 등 선행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제조업 지표들도 작년 10월부터 이미 경기판단 임계점인 50을 넘어섰다. HSBC의 제조업지수는 작년 11월부터 50을 넘어섰다. 경기동행지수들도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작년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작년 11월에는 10% 이상으로 상승했다(11월 10.1%, 12월 10.3%). 사회 소매판매총액 증가율은 작년 11월에 14.9%까지 상승했다(12월 15.2%).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율 역시 작년 11월 회복

되기 시작해 누적치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12월 16.2% 증가).

특히 전력 사용량, 석유 소비량, 화물 운송량 등 일부 실물지표들에서도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각종 수치에서 보여지는 회복세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기업 재고 측면을 보면, 일부 업종들에서 재고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다른 일부 업종들의 재고는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판매량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재고를 보충하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재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일부 업종들도 거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체화융자(滯貨融資)에 나서고 있다. 요컨대, 단기적인 경기 주기(주로 재고 등)로 봤을 때, 경제는 이미 저점을 벗어나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 올해 지방정부가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기초시설 투자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단기적인 경기 요인들이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비교적 뚜렷한 회복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내생적 투자동력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중국은 그 동안 투자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후유증으로 심각한 생산능력 과잉 문제를 안고 있어 전반적인 설비 이용률이 높지 않다. 산업 업그레이드, 집중과 이전, 질서있는 생산능력 과잉 조정 등을 동시에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가 올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로 떠올랐다.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기업들이 생산력을 더 늘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 역시 무작정 생산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국 제조업 투자 성장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다. 수치를 보면, 중국의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이미 22.75%까지 떨어졌다(12월 22.0%). 그리고 최근 몇 개월 간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시공 면적은 감소했기 때문에 건설 주기 등의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올해 부동산 투자(토지 투자 부분 제외)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올해 재고 보충, 인프라 투자 확대, 생산경영 활동 다소 회복 등 단기적 회복 요인에도 불구하고, 실물 투자가 대규모로 확대될 조건은 아직 갖춰지지 않아 경제 회복세는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제는 부채로 지탱하는 자산 확장에서 원가 및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투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3. 세계 곡물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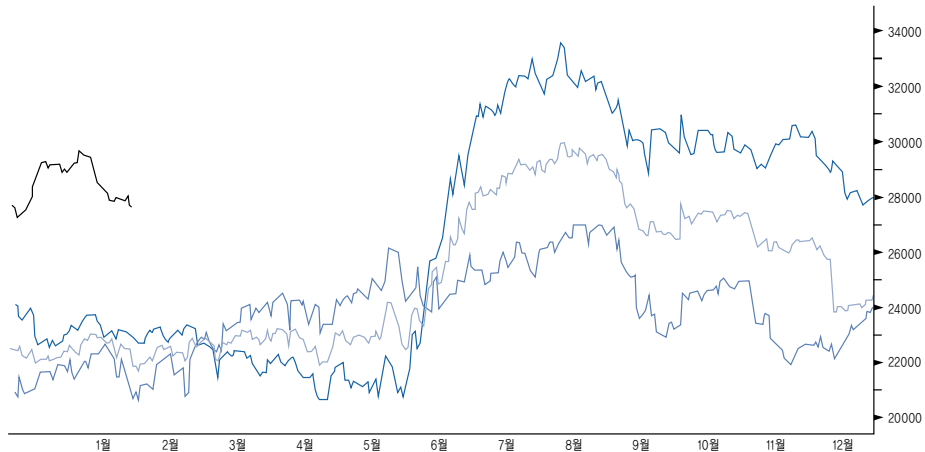
■ 옥수수 가격 동향

2013년 들어 옥수수 가격은 남미 옥수수 생산국가의 날씨변수와 기말재고율 하락 등 펀더멘털 강세에 따른 매수심리 확대로 1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월들어 추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으며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2013년 주요 작물 파종 시즌이 도래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미국 작물 파종면적에 대한 전망치와 날씨 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2월 USDA 수급보고서에서 미산 옥수수의 생산량은 전월과 동일한 107억 8,000만 부셸로 발표되었으며 옥수수 소비량은 103억 3,700만 부셸로 전월 전망치인 103억 1,700만 부셸보다 2,000만 부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옥수수 수출량은 미산 옥수수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 지난 달 9억 5,000만 부셸에서 5,000만 부셸 감소한 9억 부셸로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6억 3,200만 부셸로 지난 달 6억 200만 부셸 보다 3,000만 부셸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은 지난 달 7,100만 톤에서 7,250만 톤으로 150만 톤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아르헨티나에 비해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crop condition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경작지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잠재적인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시장의 예상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달 2,800만 톤에서 100만 톤 감소한 2700만 톤으로 발표되었다. 2월초, 아르헨티나의 토양 수분 함량은 최대치의 약 24% 수준이며 수확을 결정짓는 수분(Pollination)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생산량 및 품질 문제가 더욱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포커스가 집중되었던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에서 13/14년도 미국 곡물 수출액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2년 연속 중국이 미국 곡물 수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USDA는 오는 13/14년도 미국 옥수수 파종면적 전망치를 전년도 9,720만 에이커보다 약 0.7% 감소한 수준인 9,650만 에이커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옥수수 생산량의 경우 yield 163.5부셸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약 34.8% 증가한 수준인 145억 3,000만 부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 좌측 그래프 2013년 3월물 옥수수 가격, 우측 상단 그래프부터 2012년 옥수수 가격, [2008-2012] 평균 옥수수 가격, 2011년 대두가격

■ 대두 가격 동향

2013년 들어 대두 가격은 남미산 대두 생산량에 대한 기대감과 아르헨티나의 날씨 우려, 미산 대두 수요에 대한 전망이 상충하면서 다소 등락폭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1월초 미산 대두 수출실적 호조와 대두가공품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세제 혜택에 힘입은 대두유 가격의 상승세 역시 대두 가격을 지지해 주었다.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대책의 한가지로써, 미 의회는 대두유(soybean oil)에 대한 1갤런당 1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바이오디젤 가격과 일반 디젤 가격의 차이는 갤런당 약 80센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세제 혜택이 부활하면서 대두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졌다.

현재 브라질에 반해 아르헨티나의 날씨 전망은 매우 암울한 상황이다. 2월 USDA 수급보고서에서 미산 대두 생산량은 전월과 동일한 30억 1,500만 부셸로 나타났으며 미산 대두의 수출은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달과 변함없는 13억 4500만 부셸로 발표되었다. 대두 소비량은 30억 8,000만 부셸로 지난 달 보다 1,000만 부셸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미산 대두 기말재고량은 1억 2,500만 부셸로 지난 달 보다 1,000만 부셸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던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5,300만 톤으로 지난달보다 100만 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브라질의 대두 생

산량은 지난 달 8,250만 톤에서 8,350만 톤으로 100만 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의 기말재고량은 전월 1,722만 톤에서 1,816만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수입국가들은 재고가 부족한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입을 지속할 것인지, 새로 수확되는 남미산 대두를 낮은 가격에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여부가 향후 수급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되는 공식적인 USDA 주요작물 파종전망이 발표된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에서 13/14년도 미산 대두 파종면적은 전년대비 약 0.4% 증가한 7750만 에이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yield 전망치 43.1를 적용하여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12.9% 증가한 34억 500만 부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13년도 Farm 평균 가격 전망치를 전년대비 약 26.6% 하락한 \$10.50으로 발표하였다.

잠재적인 가격 변수인 파종 전망 및 날씨 변수를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대두 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는 브라질 항구 파업 및 선적 지연 관련 이슈로 판단된다.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대두 집결량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항만 노동자 파업 이슈는 단기적으로 대두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대 8,300만 톤에 달하는 수확량 전망과 항구로 집결되고 있는 물량을 현 물류시스템 하에서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의 민영화를 통한 항만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에 반대 일환으로 발생한 이번 파업사태는 국제 시장내 대두 수급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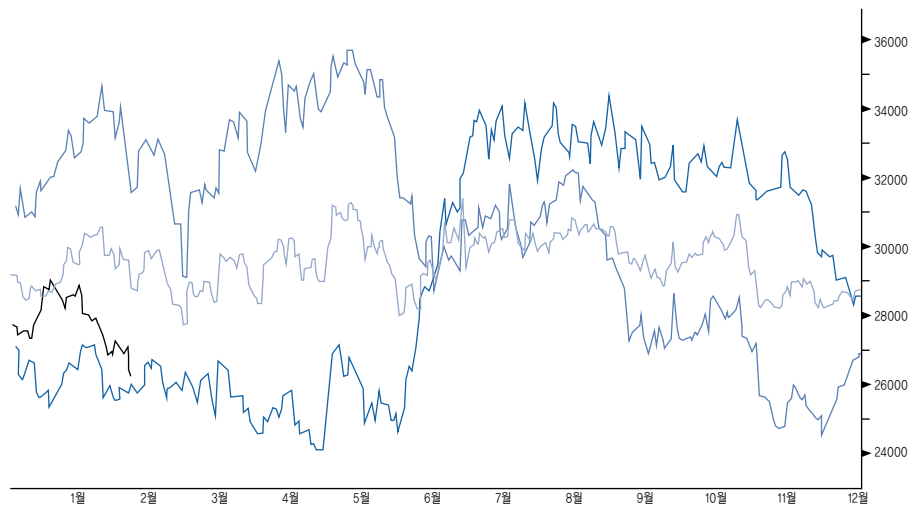
주: 좌측 그래프 2013년 3월물 대두 가격, 우측 상단 그래프부터 2012년 대두 가격, [2008-2012] 평균 대두 가격, 2011년 대두가격

■ 밀 가격 동향

국제 밀 가격은 옥수수 가격 하락 움직임과 동조한 가운데 미산 수출 부진, 인도 비축물량 수출 허가 가능성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2월 USDA 수급보고서에서 미산 소맥의 생산량은 지난달과 변함없는 22억 6,900만 부셀로 나타난 반면 소비량은 지난 달 13억 7,500만 부셀 보다 2,500만 부셀 증가한 14억 부셀로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소맥 기말재고량은 지난 달 7억 1,600만 부셀에서 2,500만 부셀 감소한 6억 9,100만 부셀로 발표되었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던 수출량은 10억 5,000만 부셀로 지난달과 같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세계 소맥 생산량은 지난 달 6억 5,431만 톤에서 다소 감소한 6억 5,361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소맥 기말재고량은 1억 7,673만 톤으로 지난 달 1억 7,664만 톤 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2월 USDA Agricultural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미산 소맥 생산량 전망치는 전년대비 파종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 7% 감소한 21억 부셀을 기록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파종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yield 전망과 수확면적 감소 전망으로 생산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harvested-to-planted ratio는 0.83으로 예측되면서 전년도 0.88, 최근 5년 평균인 0.87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확면적 감소는 지난 가을 지속된 가뭄 상황과 겨울 HRW wheat 생산지역의 극심한 가뭄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3 소맥 yield 전망치는 에이커당 45.2부셀로 지난 2010년과 2012년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에이커당 46.3부셀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13/14 crop 미산 소맥 수출량은 전년대비 약 1억 부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여타 주요 수출국과의 가격 경쟁과 타이트한 재고 상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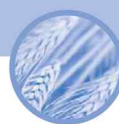
주: 좌측 상단 그래프부터 2011년 밀 가격, [2008-2012] 평균 밀 가격, 2013년 밀 3월물 가격, 2012년 밀 가격

part

0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2013 World Grain Market



2014-2022년 중장기 세계 곡물수급 전망 / 59

2013/14년 미국 곡물수급 전망 / 88

브라질 곡물시장 및 바이오연료 정책 / 109

밀, 옥수수 기말재고량에 대한 고찰 / 122

미국 경질밀과 연질밀 / 126

2014-2022년 중장기 세계 곡물수급 전망

2013-2022년 동안 세계 소득 및 인구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농산물 수요 및 교역량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농산물 가격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향후 10년간 식량 수요 및 농산물 교역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지역은 아프리카와 중동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인구증가율 및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세계 가금류 및 쇠고기 수입량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 환경적으로나 농지 면에서 국내 곡물 생산량 증대가 어려운 가운데 정책적으로 국내 축산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중장기 세계 농산물 수요 및 교역량 전망

■ 개발도상국의 수요로 교역량 증가

2013-2022년 동안 세계 소득 및 인구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농산물에 대한 세계수요 및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농산물 가격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세계 농산물 수요 및 교역량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 소비량과 사료용 소비량 증가의 원인은 개발도상국의 식생활이 소득증가로 인해 전통적 주식에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 소비량이,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 소비량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율은 선진국의 두 배 정도이며 이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향후 10년간 식량 수요 및 농산물 교역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지역은 아프리카와 중동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인구증가율 및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세계 가금류 및 쇠고기 수입량 증가분의

* 본 내용은 USDA에서 2013년 2월 발표한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2"를 바탕으로 작성됨.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 환경적으로나 농지 면에서 국내 곡물 생산량 증대가 어려운 가운데 정책적으로 국내 축산업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잡곡(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기장, 기타 잡곡) 및 단백질박(protein meal) 수입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세계 수입량 증가분 중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잡곡에 대해 20%, 밀에 대해 53%, 쌀에 대해 50%, 대두유에 대해 2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의 곡물, 유지작물 수입량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세계 옥수수 수입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국가는 중국이고 두 번째로 크게 증가하는 국가는 멕시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10년간 멕시코의 1인당 육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멕시코 국내 축산업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장기전망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작물에 대해 세계 재고량은 적은 수준이며 세계 시장가격은 높은 수준이고, 축산업자들은 높은 사료비용을 직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재고량이 적은 수준인 가운데 일부 예외도 존재한다. 태국과 인도는 정책적 이유로 인해 통상적이지 않게 많은 수준의 쌀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재고량 수준은 세계 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곡물가격이 최근 급등세에서 하락하며 안정화되고 있으나 향후 10년간 2007년 이전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곡물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① 중저소득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있어 세계 곡물, 유지작물,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② 달러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③ 에너지 가격이 높고 ④ 바이오연료 생산이 증가추세이기 때문이다.

식물성유지류 가격은 단백질박(protein meal)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작물 가격은 곡물가격보다 소폭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육류 가격은 사료비용(단백질박 및 곡물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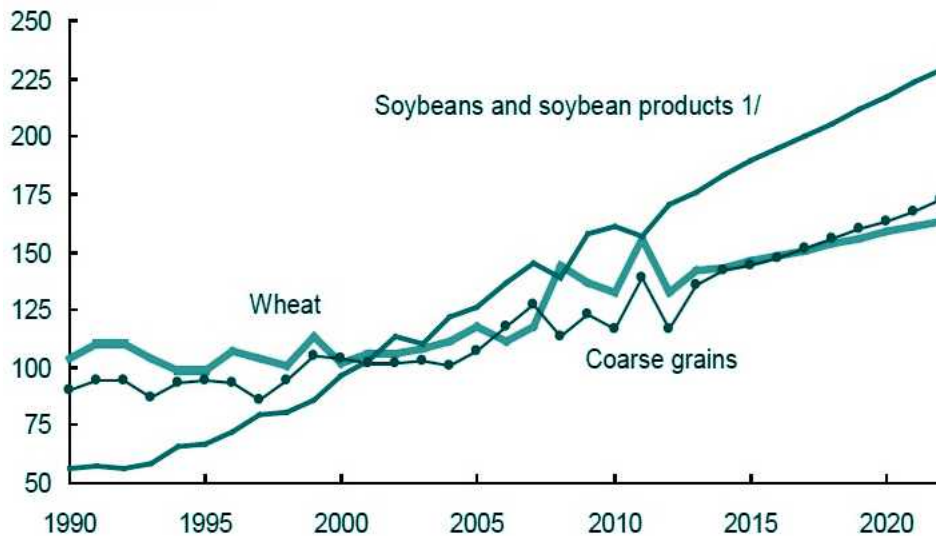
세계 농산물 생산량은 농산물의 높은 가격 및 기술발전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생산증가율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다수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재배면적을 확대할 여력이 제한적이며 재배면적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 곡물의 평균단수 증가율은 약 20년 동안 감소되었으며, 이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농업부문 연구개발 자금의 축소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용수부족으로 인해 관개농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

다. 관개용수를 지하에서 퍼 올리는 경우, 지하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더 깊은 지하에서 지하수를 끌어오게 되므로, 관개에 소요되는 에너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비료, 농약과 같은 기타 농업투입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미국과 같이 광범위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세계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업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곡물 수출시장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밀, 잡곡(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기장), 대두(대두가공품 포함) 세계 교역량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대두 및 대두가공품의 교역량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급증했으며 밀과 잡곡(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기장, 기타 잡곡)의 교역량을 뛰어넘었다. 식물성유지 및 단백질박(protein meal)에 대한 세계 (특히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 수요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10년간 대두 및 대두가공품의 교역량은 밀과 잡곡(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기장, 기타 잡곡) 교역량에 비해 대폭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곡물, 유지류, 면화의 세계 재배면적은 연간 약 0.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배면적 증가율은 연간 0.4%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일부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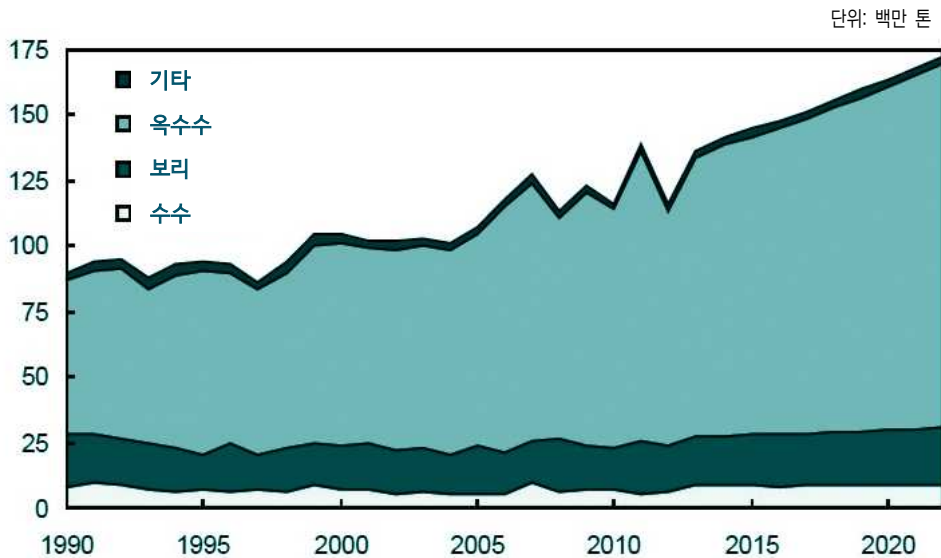
가에서는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이다. 재배면적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들은 국토가 넓고 국가정책상 생산농가가 농산물가격상승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일부 국가들, 동유럽 일부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일부 국가들이 될 것이다. 농산물 단수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세계 농산물 생산량 증가분의 약 2/3은 단수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수 증가율의 둔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인구성장율의 둔화가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상쇄될 것이다. 그러나 인구성장은 농산물에 대한 세계수요를 견인하는 주요소이며, 1인당 소득의 증가는 특히 식물성 유지류, 육류, 원예작물, 유제품, 곡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세계 식물성 유지류 1인당 소비량은 향후 10년 동안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육류 및 잡곡(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기장, 기타 잡곡)은 각각 7%와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밀과 쌀의 1인당 소비량은 향후 10년 동안 각각 약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곡물 및 원예작물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가격의 상승은 재배면적 확장 및 다모작(cropping)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 밭작물의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구소련(FSU: former Soviet Union)과 아프리카 사하라이남지역이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에서도 재배면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국가들에서는 식물성유지류에 대한 세계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미경작지가 대두 및 팥유 농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장기 세계 잡곡 시장 전망

■ 중장기 세계 잡곡시장 전망

세계 잡곡(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기장, 기타 잡곡) 교역량



자료: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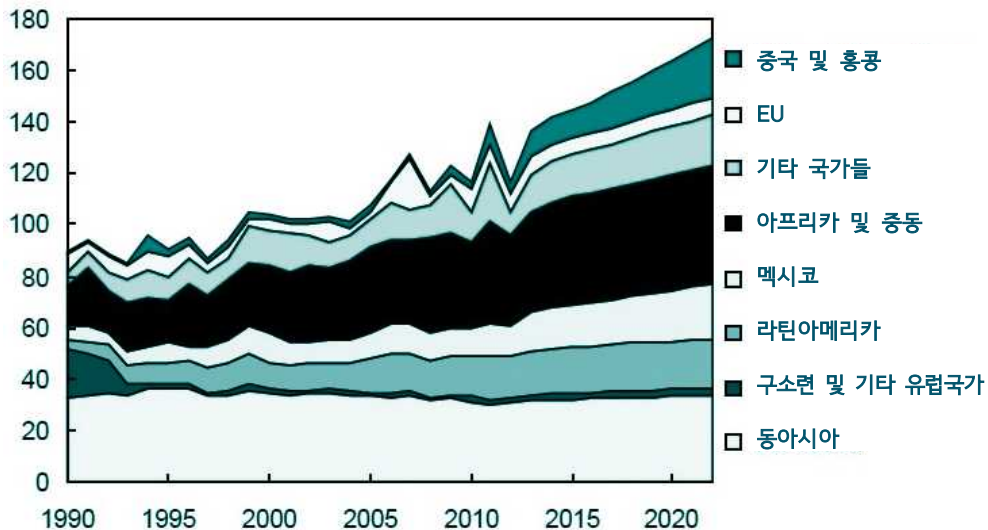
세계 잡곡(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기장, 기타 잡곡) 교역량은 2013/14연도 부터 2022/23연도 사이에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동안 옥수수가 세계 잡곡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잡곡 교역량을 결정하는 주요인은 잡곡 수입국, 특히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축산업 확장이 될 것이다.

- 지난 10년 동안 세계 잡곡 소비량 중 사료용으로 소비된 비율은 감소한 반면 식용, 종자용, 산업용 소비량의 비율은 증가했다. 그러나 향후 10년 전망에서는 사료용 소비량이 식용소비량보다 더 높은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분, 에탄올, 맥아와 같은 산업용 소비량은 사료용 소비량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이나 산업용 소비량의 증가율은 사료용 소비량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다.
- 세계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사료곡물은 옥수수이며 세계 잡곡 교역량 중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옥수수는 2022/23년 세계 잡곡 교역량의 8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다음은 보리(13%), 수수(5%)가 될 것이다.

- 옥수수는 신제품의 증가 및 새로운 투입재의 사용으로 인해 재배면적 및 단수의 증가율이 다른 곡물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다. 옥수수는 사료, 바이오연료용, 기타 산업용으로 다른 곡물들에 비해 더 선호되고 있으므로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세계 사료곡물시장에서 옥수수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은 가축사료생산의 상업화로 인한 것이다. 소와 양 등 반추(되새김)동물들은 광범위한 사료를 소화할 수 있으므로, 반추동물 사료의 수요는 여러 종류의 사료 가격에 민감히 반응한다. 그러나 돼지와 닭의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되는 속도가 높으며 고품질 사료가 사용되고 있어 옥수수와 대두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세계 잡곡(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기장, 기타 잡곡) 수입량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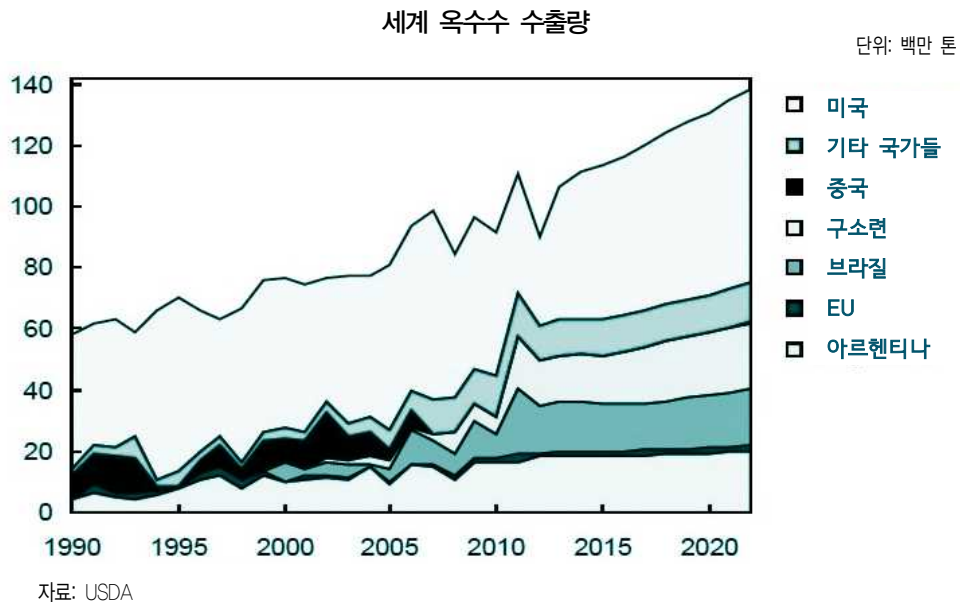
자료: USDA

세계 잡곡 교역량은 2013/14년부터 2022/23년까지 3,6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잡곡 수입량의 증가는 사료를 자급자족할 수 없는 지역에서 축산업이 확장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중국, 멕시코, 중동,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이다.

-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23년 1,96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축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국내 사료용 옥수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용 옥수수 수요량도 증가하고 있다. 2022/23년까지 중국은 세계 옥수수 교역량 증가분의 4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23년까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은 세계 옥수수 교역량 증가분의 2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 및 축산업의 높은 성장으로 인한 것이다.
- 멕시코 옥수수 수입량은 2012/13년 900만 톤에서 2022/23년 1,7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멕시코의 육류 소비량 증가를 반영한다.
- 동남아시아 옥수수 수입량은 축산업자들의 수요 증가가 반영되어 2022년까지 360만 톤(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는 세계 옥수수 수입량 증가분의 11%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지역은 환경적으로 축산업이 성장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육류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잡곡 수입량의 증가율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 지역에서 2022년까지 잡곡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세계 옥수수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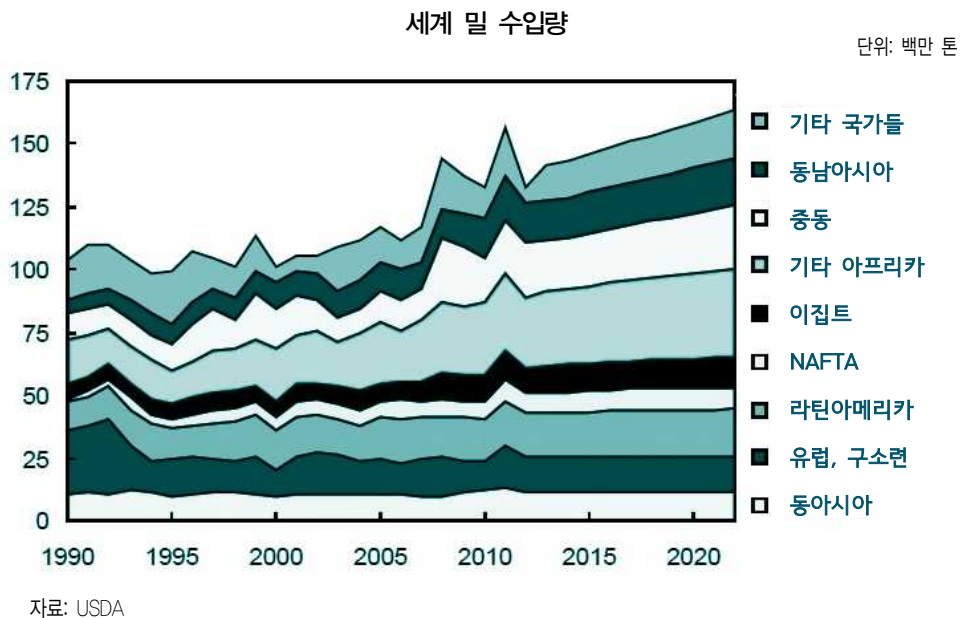


미국 옥수수 수출량은 2010/11-2012/13 기간 동안 불리한 기후로 인한 생산량 부족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브라질, 구소련,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옥수수 수출량은 2013/14년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22/23년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2/23년 미국 옥수수 수출량이 세계 옥수수 수출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그칠 것이며 이는 2010/11년 이전 20년 동안의 평균 비중이었던 65%에 비해 대폭 낮은 수준이다.

- 구소련, 주로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량은 2022년까지 약 660만 톤(43%) 증가하여 거의 2,200만 톤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자연자원이 작황에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개방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잡종자(hybrid seed)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농업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비록 구소련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 지역의 옥수수 수출량 증가율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수출 국가들에 비해 두 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소련 옥수수 수출량은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아르헨티나 옥수수 재배면적 및 수출량은 수출수량제한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정체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출국가로 순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브라질 옥수수 수출량은 지난 7년간 4배나 증가했다. 이는 옥수수 가격상승으로 인해 대두 후작으로 재배하는 2기작 옥수수 생산량(대부분 Mato Grosso에서 재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Mato Grosso에서 생산하는 옥수수는 브라질 국내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불리하므로 대부분 수출된다. 브라질에서 옥수수의 수출은 브라질 항구 시설이 대두 수출 때문에 번잡하지 않은 시기에 주로 이루어진다. 향후 5년간 옥수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브라질 옥수수 수출량은 높은 운송비용으로 인해 제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세계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고 브라질의 수출 인프라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EU에서는 향후 10년간 에탄올용 옥수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EU는 150만 톤 이상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EU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 대한 운송비용이 다른 수출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 EU 외 유럽지역의 옥수수 수출량 증가속도는 다른 수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세르비아가 EU로 수출하는 옥수수가 이 지역 옥수수 수출량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3. 중장기 세계 밀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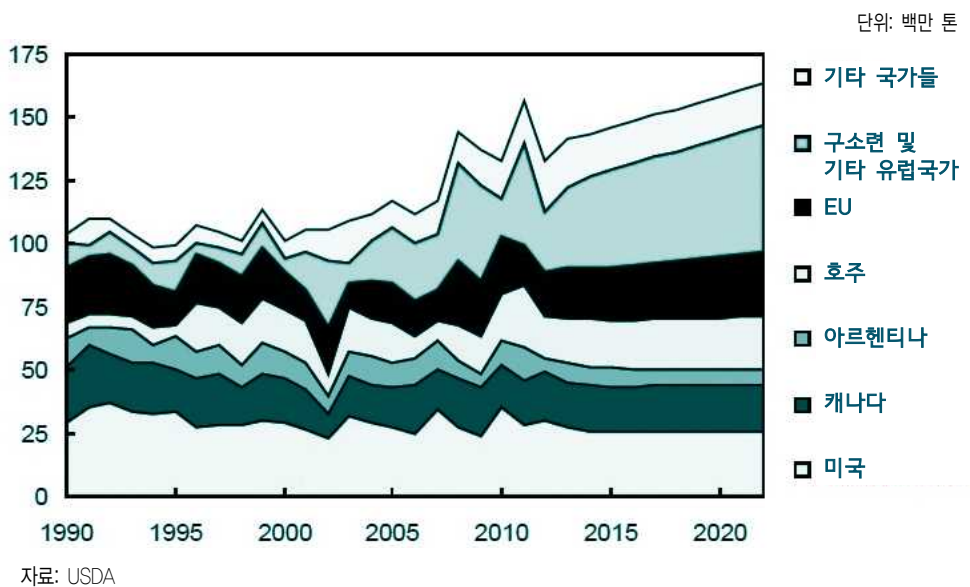


세계 밀(밀가루 포함) 교역량은 2013/14년에서 2022/23년 사이에 2,200만 톤(16%) 증가하여 약 1억 6,4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 수입량의 증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날 것이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소득 및 인구증가가 수요를 견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밀 교역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은 인도네시아 및 기타 아시아 지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서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의 15개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이 될 것이다.

- 전세계적으로 1인당 밀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1인당 밀 소비량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증가, 그리고 밀 생산량 증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량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생활이 쌀에서 밀로 소폭 전환될 것이다.

- 이집트는 세계 1위의 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2022년까지 밀 수입량은 1,200만 톤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밀 수입량은 2022년까지 급증하여 860만 톤이 될 것이며 브라질 대신 세계 2위의 밀 수입국이 될 것이다.
-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의 밀 수입량은 모두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까지 총합 210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과 대한민국의 밀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까지 아프리카와 중동의 밀 수입량은 약 1,200만 톤 증가할 것이며 이는 세계 밀 교역량 증가분의 53%에 해당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 부족 상황으로 인해 밀의 생산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23년까지 밀 수입량이 34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까지 인도의 밀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인도는 몇 년 동안은 밀을 대량 수입했다가 또 몇 년 동안은 밀을 대량 수출하기도 하는 등 변동이 있다. 지난 2년 동안 인도는 가격지지정책 및 정부재고량 과잉으로 인해 대량의 밀을 수출했으며, 이 정책들은 향후에도(형태를 일부 바꾼다 하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밀 수출량은 향후 10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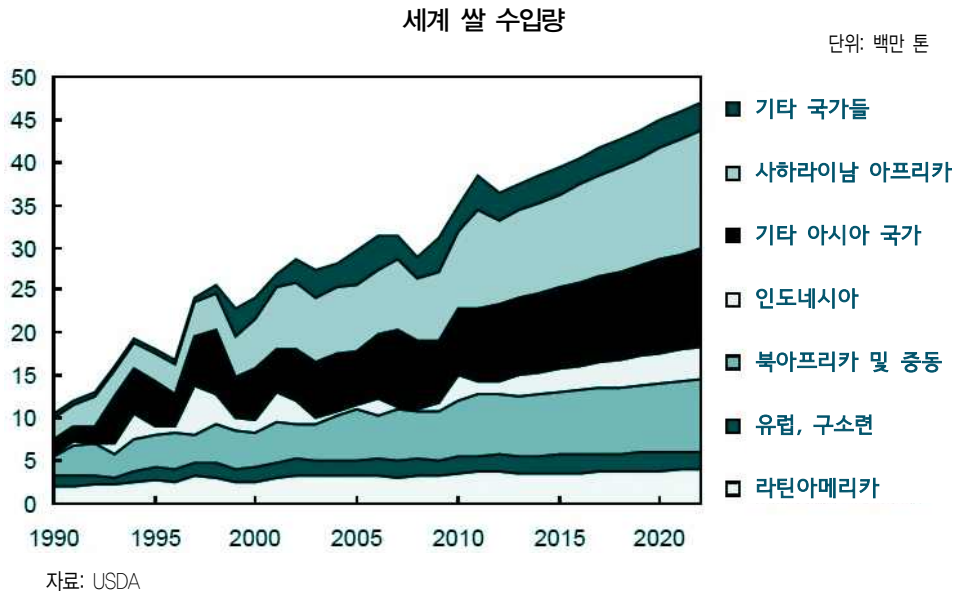
세계 밀 수출량



2022년에는 전통적으로 주요 밀 수출국가인 5개국(미국, 호주, EU, 아르헨티나, 캐나다)의 교역량이 세계 교역량의 60%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비중인 약 70%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흑해연안지역의 수출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 미국 밀 수출량은 2012/13년의 약 3,000만 톤에서 감소하여 2022/23년에는 약 2,5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23년 미국 밀 수출량이 세계 밀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5년간의 비중인 22%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다.
- 캐나다는 식물성 유지류(특히 유채유)에 대한 세계 수요가 증가하고 밀에 비해 수익성이 더 높으므로 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 밀 수출량은 변동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영기관인 캐나다밀위원회(Canadian Wheat Board)의 교역독점이 폐지되었으므로 캐나다가 유통상 이점을 이용해 미국에 대해 밀 수출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의 밀 수출쿼터제 운영방식에 대한 반응 및 2기작 작부체계에 서 보리를 더 많이 심는 추세로 인해 일부 재배지역에서 작목이 밀에서 보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간 밀 생산량이 감소한 이후 2013년과 2014년 밀 수출량이 반등하겠으나 그 이후에는 수출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EU는 전통적 밀 수출국 중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2011년과 2012년 동안 EU 밀 수출량은 급락했으나 그 후 수출속도가 반등하여 2022년 EU 밀 수출량은 과거 10년 동안의 통상적인 수출량보다 대폭 많은 2,5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밀 수출 강세는 2010년과 2012년 가뭄으로 인해 주춤했으나 이후에는 증가세를 회복할 것이다. 이 지역 밀 수출량은 2022년까지 55% 이상 증가할 것이며, 세계 밀 교역량 증가분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이 지역 밀 수출량은 약 5,000만 톤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지역 국내 사료용 소비량이 증가하여 증가폭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전망치에는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이 지역의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단수 또한 변동성이 크므로 중장기 전망기간 동안 생산량 및 교역량의 전년대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중장기 세계 쌀 시장 전망



세계 쌀 교역량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세계 쌀 교역량은 지난 5년간 평균 교역량에 비해 42% 증가한 4,7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교역량이 확대되는 주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및 소득 증가로 인해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쌀 수입국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세계 쌀 소비량 중 쌀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0년간의 평균이었던 4%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준인 8%로 증가했다. 또한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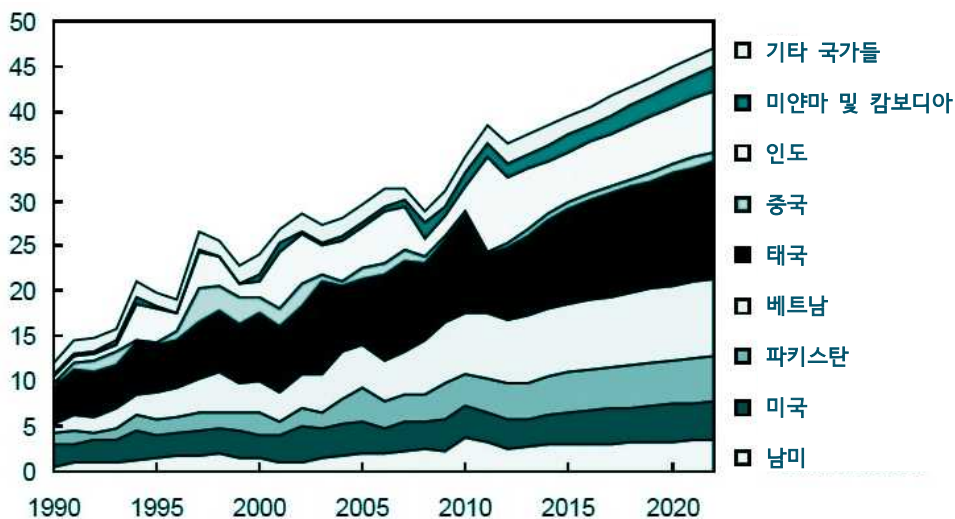
-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인구 및 소득으로 인해 쌀 수요의 증가세는 높으나 쌀 생산량의 증가속도는 한정되어 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은 기후로 인해 쌀의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은 인프라 및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쌀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다. 2022년까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전체의 쌀 수입량 증가분은 세계 쌀 교역량 증가분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2022년 각각 쌀 400만 톤과 25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별국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대 쌀 수입국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쌀 수입량은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약 200만 톤이나 증가했다. 향후 중국

쌀 수입량은 2012년의 기록적 수준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은 주로 베트남으로부터 저가 쌀을 수입하므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입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란, 이라크,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타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량은 각각 130만 톤 이상이다. 이 국가들은 쌀 생산량을 확대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체 쌀 수입량 증가분이 세계 쌀 교역량 증가분의 10%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EU, 캐나다, 미국에서는 이민자들로 인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소폭 증가하고 수입량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에서는 소득 증가 결과 1인당 쌀 소비량이 증가하고 수입량 또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소련은 1인당 쌀 소비량은 증가하겠으나 쌀 생산량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쌀 수입량이 완만한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수출량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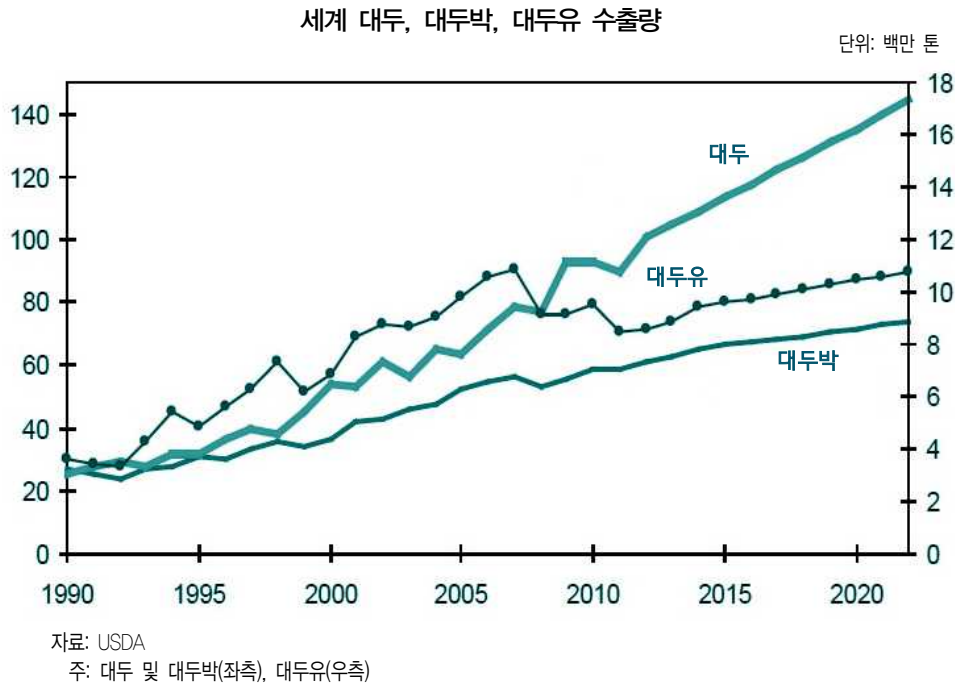
2022년까지 세계 쌀 수출량의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 통상적으로 세계 최대 쌀 수출국가인 태국과 베트남의 쌀 수출량이 세계 교역량의 46%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태국과 베트남은 세계 쌀 수출량 증가분의 58% 이상을 점유할 것이다. 태국은 쌀 재배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

면서 동시에 과도했던 수준이었던 재고량이 정상수준으로 조정되어 2022년까지 수출량이 420만 톤 증가한 1,3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베트남의 수출량 증가분은 비교적 적은 수준으로 740만 톤에서 87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태국과 베트남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완만한 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 인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통상적으로 세계 3위나 4위의 쌀 수출국가 지위를 누렸으나 정부정책 및 재고량 수준의 변동으로 인해 수출량 수준이 가변적이었다. 2011년 9월 인도 정부는 비(非)바스마티쌀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했고 이에 쌀 수출량은 약 300만 톤에서 1,000만 톤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 결과 2012년 인도는 세계 1위의 쌀 수출국가가 되었다. 향후 수 년 동안 인도의 수출량은 2012년만큼 많은 수준은 되지 않겠으나 과도했던 국가재고량이 삭감될 것이므로 많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파키스탄과 미국은 최근 수년 동안 쌀 300만~400만 톤을 수출해 왔다. 파키스탄은 쌀 재배면적을 확장해 왔으며 이에 생산량 및 수출량이 5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파키스탄은 세계 4위의 쌀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쌀 재배면적은 2013년 이후 소폭 증가하겠으며 단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내 소비량은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쌀 수출량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미국은 세계 쌀 수출량 증가분의 약 9%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세계 6위의 쌀 수출국가이며, 중국 쌀 수출량은 최근 수년 동안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2년 11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중국의 평균 쌀 수출량의 두 배 수준이다. 중국 쌀 생산량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쌀 재배면적은 감소하겠으나 중국이 유전자변형 쌀의 재배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단수의 증가가 면적 감소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증가의 결과 식생활이 다양화되어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구증가의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쌀 재고량은 2022년까지 많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호주는 지난 10년간 가뭄으로 인해 쌀 수출량이 극도로 적은 수준이었으나 향후 수출 속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쌀 수출량은 약 50만 톤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중장기 세계 대두 및 대두가공품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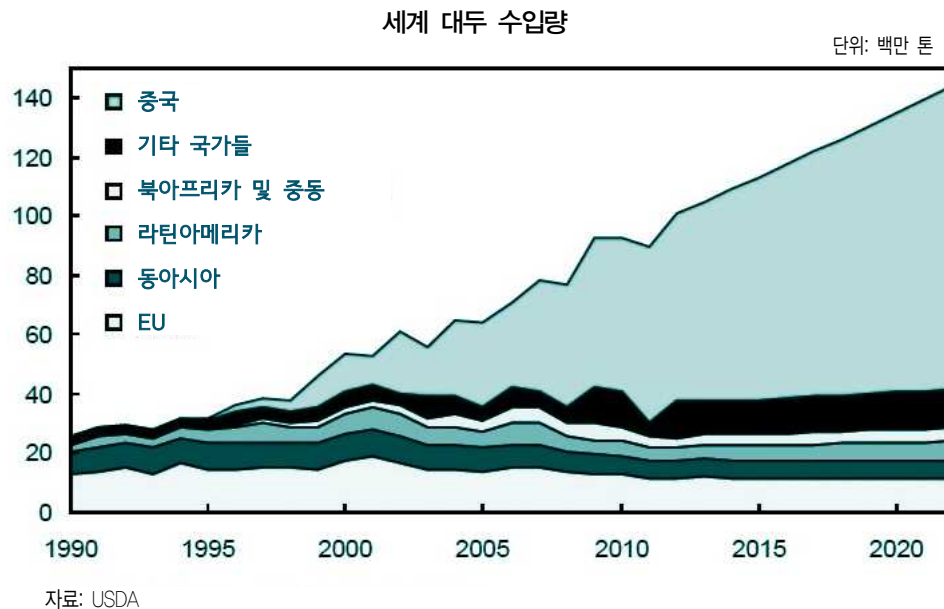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인구성장으로 인해 식물성유지류에 대한 식용 소비량 및 가축 사료로 소비되는 단백질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디젤용 식물성유지 소비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성유지에 대한 수요는 단백질박 수요보다 더 높은 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식물성유지의 가격 또한 단백질박보다 더 급속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는 특히 유채유와 유채박의 관계에서 그렇다.

- 중국, 북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와 같이 유지작물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국가들은 유지가공품 생산시설에 크게 투자했으며 그 결과 원료인 유지작물 수입량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 수입속도는 향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 동안 세계 대두 교역량은 37%, 대두유 교역량은 21%, 대두박 교역량은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에서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급속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육류 및 식물성유지류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축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사료에서 단백질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은 가공품 생산을 위해 주로 원료인 유지작물을 수입할 것으로 보이며 유지박이나 유지류를 대량 수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성향은 세계 교역형태에 영향을 미쳐 유지작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수요보다는 유지작물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 향후 10년간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의 대두, 대두박, 대두유 수출량은 세계 대두 및 대두가공품 총계 수출량의 87%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가속도가 다른 수출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2년 대두 및 대두가공품 수출량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6%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는 곡물정책이 불확실하여 생산농가들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두를 많이 재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목초지 일부가 대두 경작지로 변환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2022년 대두 및 대두가공품 수출량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7%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대두 및 대두가공품 수출량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29%에서 감소하여 2022년 24.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EU의 대두박과 대두유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세계 대두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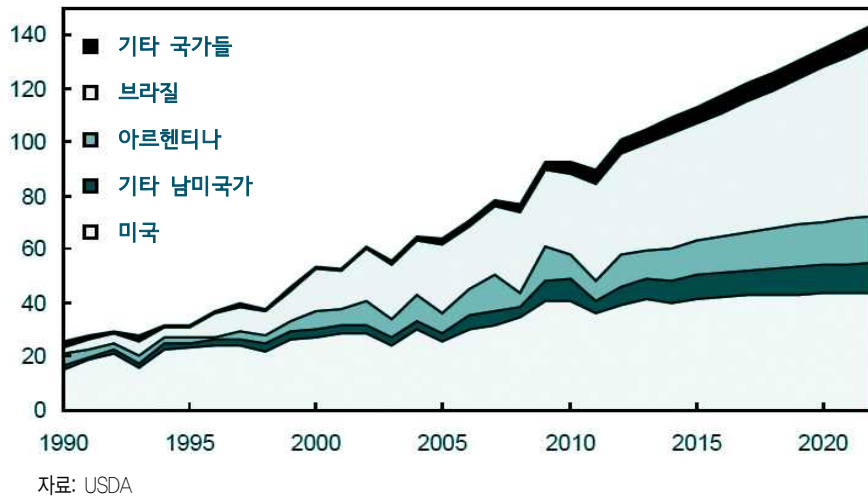


세계 대두 교역량은 향후 10년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수년간의 증가속도에 비하면 완만한 속도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 대두 교역량은 2022년 약 3,900만 톤(37% 증가) 증가하여 1억 4,4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대두 수입량은 현재까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세계 대두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 중국은 옥수수 및 대두를 생산하는 것과 수입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이득이 될 것인지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 전망치는 중국 정책이 옥수수는 자급율을 높이고 대두는 국내 생산량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수입량 증가를 허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도출되었다. 중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유지작물 가공시설은 현재 생산용량만큼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두 수입량 증가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대두 수입량은 2022/23년까지 52% 증가하여 1억 3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까지 중국은 세계 대두 수입량 증가분의 90%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두유 생산량은 모두 국내 소비될 것이나 대두박 생산량 중 일부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EU는 역내 곡물가격이 하락하고 유채박의 사료용 소비가 증가했으며 대두박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대두 수입량은 감소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에는 더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두 수입량은 향후 1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동아시아(일본, 대한민국, 대만)지역은 사료를 수입하는 것에서 육류를 수입하는 것으로 수입형태가 지속적으로 전환되고 있어 대두 및 대두박 수입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대두 수입량 증가는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대두박 수입량은 소폭 증가하여 이 지역에서 낮은 속도로 성장하는 축산업의 육류 생산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 멕시코의 2022년 대두 수입량은 21% 증가한 45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는 수입한 대두로 대두박을 생산하여 양계용 및 양돈용 사료로 소비할 것이며 대두유를 생산하여 식용으로 소비할 것이다.
- 이집트는 사료배합을 개선하고 1인당 식물성유지 수요의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대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다른 국가들 또한 대두의 증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료용 및 식용 소비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두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대두 수출량

단위: 백만 톤



세계 3대 대두 수출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2009/10년 이전 세계 대두 교역량의 90% 이상을 점유했었다. 그 이후에는 우르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크라이나의 수출량이 증가했으며 이 추세는 향후 10년 동안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수출국들의 점유율은 8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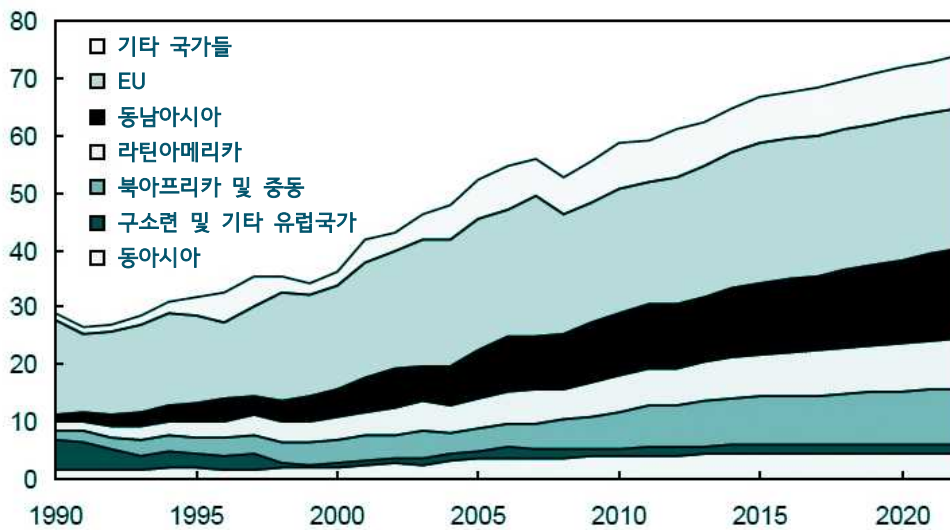
- 브라질 대두 수출량은 2013/14년부터 2022/23년까지 2,450만 톤(62%) 증가하여 6,38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세계 최고의 대두 및 대두박 수출국가가 될 것이다. 세계 유지작물이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브라질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두는 다른 작물보다 수익성이 높다. 세하도(Cerrado: 브라질 내륙 대초원지대) 내 대두 재배면적이 증가하며 “Amazon Legal (토칸티스, 마토 그로소, 아마조나스, 아마파, 마라냥, 호라이마, 아크레, 파라, 혼도니아 등 9개 주 400만km² 넓이의 아마존 산림지역)”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10년간 대두 재배면적의 증가율은 연평균 2%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르헨티나는 대두의 국내가공 및 대두가공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대두 수출세율을 대두가공품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두에 대한 세계수요가 높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산 대두는 대부분 중국으로 수입되어 중국 국내 대두가공시설의 원료로 소비된다. 따라서 2022/23년까지 아르헨티나 대두 수출량은 60%이상 증가하여 1,70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른 남미지역 국가들, 특히 우르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는 유지작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대두 재배면적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들 세 국가의 대두 수출량은 향후 10년간 46% 증가하여 1,10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크라이나 대두 수출량은 적은 수준이지만 높은 국제가격에 대응하여 향후 대두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대두 수출량은 2022/23년까지 65% 증가하여 3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세계 대두박 시장 전망

세계 대두박 수입량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2022/23년까지 세계 대두박 교역량은 1,100만 톤(19%) 이상 증가하여 7,4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산층의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군에서 육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두박 소비량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국내 유지작물 생산을 증대시킬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단백질박은 사료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두박 수입가격이 낮은 수준이므로 사료배합에서 대두박을 더 많이 소비할 유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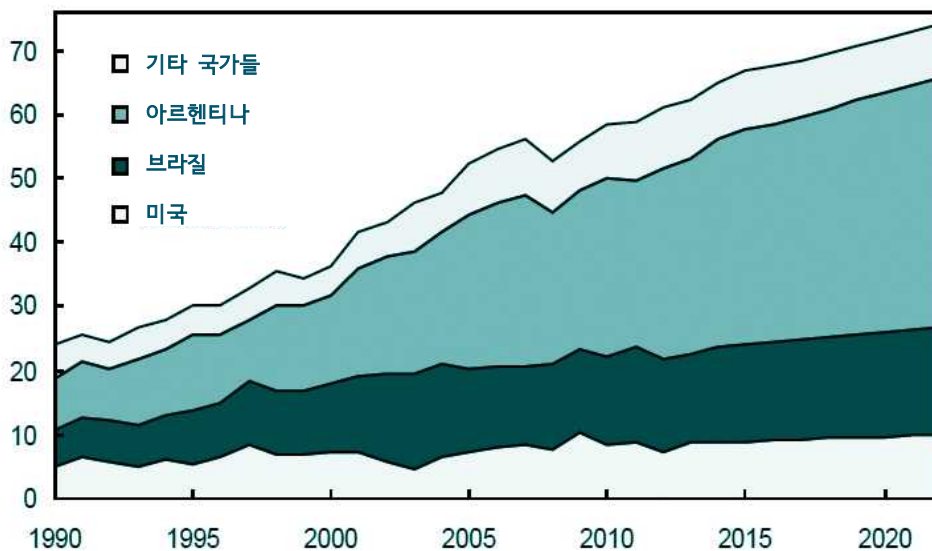
- EU는 사료곡물 및 유채박의 국내생산량이 증가하겠으나 향후 10년간 세계 1위의 대

두박 수입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바이오디젤 생산 증대 결과 저가의 유채박 공급량이 충분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가축사료배합 중 유채박의 비중을 늘리는 데에는 영양성분의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EU의 대두박 수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은 축산업의 사료수요가 증가하고 유채박 가격이 낮은 수준이므로 대두박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대두박 수입량은 향후 10년간 급증하여 세계 대두박 교역량 증가분 중 3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대두박 수입량은 향후 10년간 160만 톤 증가하여 세계 대두박 교역량 증가분 중 14%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제외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대두박 수입량은 향후 10년간 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 지역 내 교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멕시코는 단백질 사료의 수요가 증가하여 대두박 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축산업의 대형화 및 시설 현대화로 인해 대두박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대두박 소비량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나 대두박의 수입량은 적은 수준이다. 중국의 대두박은 대부분 국내 가공시설이 원료 대두를 수입해서 생산한 대두가공품 공급으로 충당될 것이다.

세계 대두박 수출량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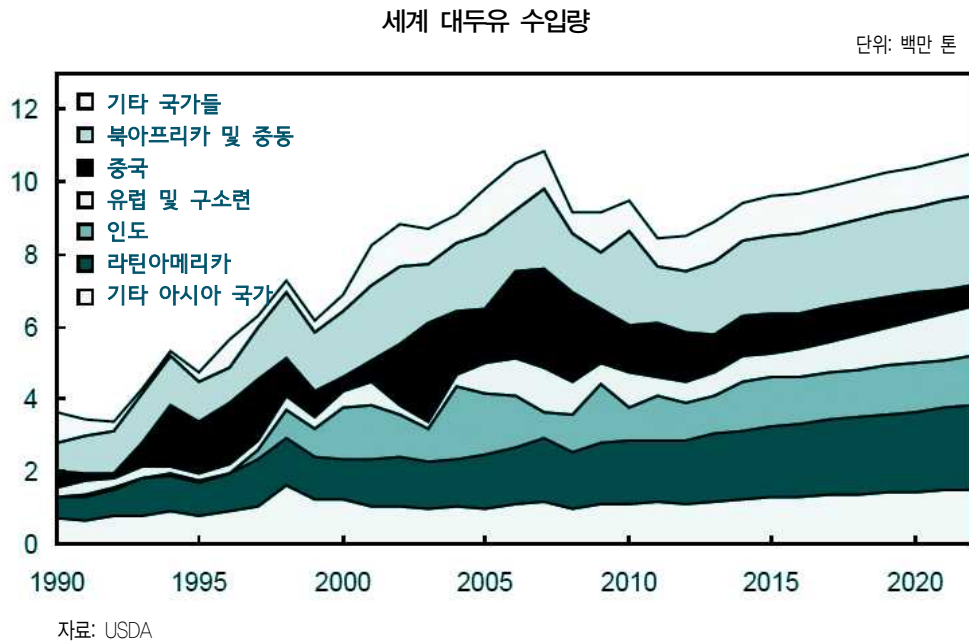


자료: USDA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은 세계 3대 대두박 수출국이며 이들의 세계 수출량 점유율은 향후 10년간 소폭 증가하여 약 9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1위의 대두박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최근 46% 정도였으나 2022/23년에는 약 5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르헨티나는 국내 대두가공능력 증대를 위해 대두 수출세율을 대두가공품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대두 생산비용이 낮은 수준이며 대두가공품을 수출할 유인이 있으므로 대두박 수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브라질은 양계업 및 양돈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국내 대두박 소비량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두박의 수출이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대두가공능력은 아르헨티나와의 수출경쟁이 심화되어 예전만큼 급속하게 증가할 것 같지 않다. 브라질 대두박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23% 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대두박 수출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0년간 약 100만 톤 증가하여 2022/23년 1,00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대두박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인도 대두박 수출량은 국내소비량 증가 및 남미와의 수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대두박 수출량은 양계업, 낙농업이 성장하면서 국내 대두박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의 약 400만 톤에서 2022년 23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EU 대두박 수출량은 향후 10년간 적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축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대두박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세계 대두유 시장 전망



세계 대두유 수입량은 식용 및 산업용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2013/14년에서 2022/23년까지 190만 톤(21%) 증가하여 1,08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두유의 주수입국은 중국과 인도이다. 그러나 팜유가 세계 식물성유지의 교역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세계 대두유 교역량의 증가폭은 팜유와의 경쟁으로 인해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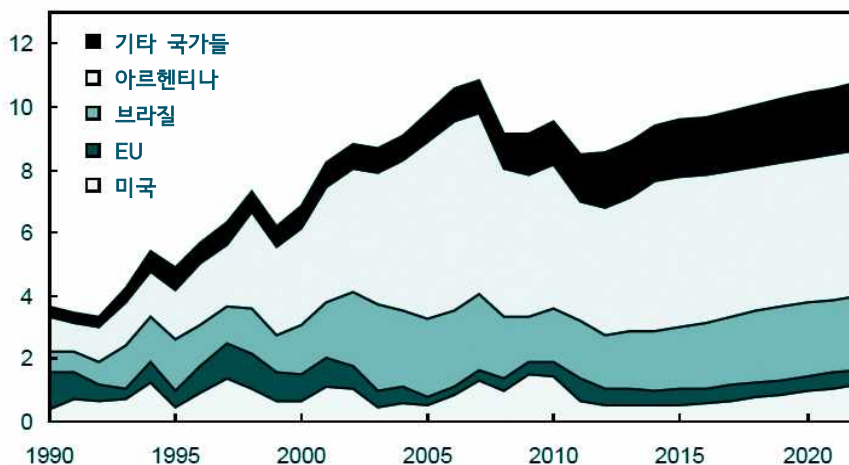
- 향후 10년 동안 인도는 중국대신 세계 1위의 대두유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10년 동안 대두유 수입량이 28% 증가하여 2022/23년 14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대두유 수입량 증가가 지속되는 원인은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국내 유지작물 재배면적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단수가 낮은 수준이며 장마철 강수량이 과도하고 농업투입재 소비량이 적은 수준인 것 또한 유지작물 생산량 증대를 제한하고 있다.
- 2008년 국내 식량가격 및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인도는 비정제 식용유에 대한 관세를 낮추었고 이에 대두유에 부과되던 40% 관세와 다른 식용유에 부과되던 75-85% 관세가 0%가 되었다. 전망치에서는 비정제 대두유 및 기타 식용유에 대한

인도의 관세는 향후 10년간 완만한 속도로 상승할 것이나 2008년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되었다.

- 중국은 향후 10년간 국내 대두가공원료로 대두 수입을 급속히 증가시킬 것이므로 중국 대두유 수입량은 약 50% 감소한 6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도의 대두유 수입량이 중국을 추월할 것이다.
-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중동은 소득 및 인구의 성장으로 인해 대두유에 대한 수요 및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유의 세계 가격이 상승할 것이므로 소비량 증가폭에 제한이 있을 것이나 10년 뒤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은 라틴아메리카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대두유를 수입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대두유 수출량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현재 세계 최대의 대두유 수출국들이며 향후 10년 동안에도 세계 대두유 수출량의 64%이상(아르헨티나, 브라질 수출량 총합)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1위의 대두유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대두유 수출량은 2022/23년까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여 46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는 대규모 대두가공시설을 보유한 반면 국내 대두유시장의 규모는 적고, 대두보다 대두가공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수출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광

범위하게 2기작이 이루어지고 곡물/목초지 윤작체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북서부 변두리지역까지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대두유 수출량은 기후가 생산량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바이오디젤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했었다. 향후에 대두유 수출량이 재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또한 더 많은 대두유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브라질 또한 바이오디젤 원료용 대두유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 개간지에 대두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대두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대두유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대두유 수출량은 지난 2년 동안 급락했었으나 향후 재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까지 미국 대두유 수출량은 두 배인 12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미국은 세계 3위 대두유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 바이오디젤 원료용 대두유 소비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EU 또한 아르헨티나 및 미국과 마찬가지로 식물성유지의 수출가능물량이 바이오디젤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제한을 받을 것이다.

중장기 옥수수 교역량 전망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수입국												
EU	6.3	6.5	6.5	6.2	5.8	5.8	5.9	5.9	5.9	5.9	6.1	6.2
구소련	0.3	0.3	0.4	0.6	0.6	0.7	0.8	0.8	0.9	0.9	1.0	1.0
이집트	7.1	5.5	6.6	7.1	7.4	7.4	7.4	7.5	7.6	7.7	7.8	7.9
모로코	1.7	1.9	2.1	2.1	2.1	2.0	2.1	2.1	2.2	2.2	2.2	2.2
기타 북아프리카 국가들	4.2	4.3	4.4	4.6	4.6	4.6	4.7	4.8	4.8	4.8	4.8	4.9
이란	3.6	3.5	4.2	4.5	4.5	4.6	4.6	4.7	4.8	4.8	4.8	4.8
사우디아라비아	2.0	2.1	2.2	2.3	2.4	2.4	2.5	2.6	2.7	2.7	2.8	2.9
터키	0.7	0.5	0.5	0.7	0.7	0.7	0.8	0.8	0.8	0.8	0.9	0.9
기타 중동 국가들	3.9	4.1	4.2	4.4	4.5	4.5	4.6	4.7	4.7	4.7	4.7	4.8
일본	14.9	15.0	15.4	15.6	15.7	15.7	15.8	15.8	15.9	15.9	15.9	15.9
대한민국	7.6	8.0	8.5	8.8	8.9	9.0	9.1	9.3	9.5	9.6	9.7	9.8
대만	4.2	4.3	4.3	4.4	4.4	4.4	4.5	4.5	4.6	4.6	4.6	4.6
중국	5.2	2.0	6.8	7.4	8.0	9.0	10.8	12.3	13.9	15.6	17.6	19.6
인도네시아	1.5	1.5	2.0	2.2	2.2	2.2	2.3	2.3	2.3	2.4	2.4	2.5
말레이시아	3.0	3.0	3.1	3.1	3.2	3.2	3.3	3.3	3.4	3.4	3.5	3.5
기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	1.9	1.8	2.5	3.3	3.5	3.7	3.9	4.2	4.6	4.8	5.0	5.3
캐나다	0.9	0.5	0.6	1.1	1.3	1.3	1.3	1.4	1.5	1.5	1.6	1.7
멕시코	11.2	9.0	10.3	11.2	12.2	12.8	13.4	14.0	14.7	15.4	16.1	16.9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	5.2	5.4	5.5	5.5	5.6	5.6	5.7	5.8	5.8	5.9	5.9	6.0
브라질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기타 남미 국가들	8.7	8.7	9.4	9.5	9.5	9.7	9.7	9.8	9.8	9.8	9.8	9.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0	1.9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기타 국가들	13.1	-2.6	3.2	3.2	3.2	3.2	3.2	3.3	3.3	3.3	3.3	3.3
미국	0.7	2.5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총 교역량	110.8	90.3	106.3	111.4	113.9	116.5	120.1	123.9	127.5	130.9	134.7	138.7
수출국												
EU	3.2	0.5	1.3	1.5	1.5	1.6	1.6	1.6	1.6	1.7	1.7	1.7
중국	0.1	0.2	0.2	0.2	0.2	0.2	0.1	0.1	0.1	0.1	0.1	0.1
아르헨티나	16.0	18.5	18.7	18.6	18.5	18.6	18.8	19.2	19.2	19.5	19.8	19.9
브라질	21.0	16.0	16.0	15.8	15.2	15.1	15.4	15.6	16.7	17.0	17.5	18.6
남아프리카공화국	1.8	2.5	2.2	2.0	2.2	2.2	2.4	2.4	2.5	2.5	2.6	2.8
기타 유럽국가들	2.4	0.3	1.5	1.6	1.6	1.8	1.9	1.9	2.0	2.1	2.3	2.4
구소련	17.3	14.7	15.2	15.6	16.0	17.1	18.1	19.3	19.9	20.6	21.2	21.8
기타 국가들	9.8	8.3	7.9	7.9	7.9	7.9	7.9	7.8	7.8	7.8	7.8	7.9
미국	39.2	29.2	43.2	48.3	50.8	52.1	54.0	55.9	57.8	59.7	61.6	63.5
미국 시장 점유율	35.4	32.3	40.6	43.3	44.6	44.7	44.9	45.1	45.3	45.6	45.7	45.8

중장기 밀 교역량 전망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수입국												
모로코	3.6	4.5	3.6	3.6	3.7	3.8	3.9	3.9	4.0	4.1	4.1	4.2
이집트	11.7	9.5	10.8	11.0	11.2	11.3	11.3	11.5	11.6	11.8	11.9	12.0
기타 북아프리카 국가들	9.4	8.1	9.4	9.4	9.3	9.3	9.3	9.3	9.4	9.3	9.3	9.4
사우디아라비아	2.9	2.3	2.3	2.5	2.6	2.8	2.9	3.0	3.1	3.2	3.3	3.4
이란	0.8	3.0	1.0	1.0	1.1	1.1	1.2	1.3	1.4	1.6	1.7	1.9
이라크	3.8	3.7	3.9	3.8	3.8	3.9	4.0	4.1	4.2	4.3	4.4	4.5
기타 중동 국가들	9.5	8.6	9.3	9.5	9.7	10.0	10.2	10.3	10.5	10.7	10.8	10.9
서아프리카공동체	6.3	5.9	6.2	6.5	6.7	6.7	7.0	7.2	7.4	7.7	7.9	8.1
기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1.6	9.7	10.4	10.7	11.1	11.5	11.9	12.2	12.5	12.9	13.2	13.6
멕시코	5.0	4.2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	3.7	3.6	3.7	3.7	3.7	3.7	3.7	3.8	3.8	3.8	3.8	3.8
브라질	7.3	7.0	7.2	7.2	7.3	7.4	7.5	7.5	7.5	7.6	7.6	7.7
기타 남미 국가들	6.8	6.5	6.6	6.6	6.7	6.8	6.8	6.9	6.9	7.0	7.1	7.1
EU	7.4	6.0	6.0	5.9	6.1	6.2	6.1	6.1	6.0	6.0	5.9	5.8
기타 유럽 국가들	1.9	1.8	1.9	1.8	1.8	1.8	1.8	1.9	1.9	1.9	1.9	1.9
구소련	7.6	6.6	6.4	6.6	6.7	6.7	6.7	6.8	6.9	6.9	7.0	7.0
일본	6.4	5.9	5.9	5.8	5.8	5.8	5.8	5.8	5.8	5.8	5.8	5.8
대한민국	5.2	4.4	4.3	4.3	4.1	4.0	4.0	4.0	4.0	3.9	3.9	3.9
필리핀	4.0	3.2	3.2	3.3	3.3	3.3	3.3	3.4	3.5	3.5	3.6	3.6
인도네시아	6.5	6.6	6.8	7.0	7.2	7.4	7.6	7.7	7.9	8.2	8.4	8.6
중국	2.9	2.5	2.5	2.5	2.6	2.6	2.7	2.8	3.0	3.1	3.2	3.2
방글라데시	2.0	3.0	3.1	3.2	3.4	3.4	3.5	3.7	3.9	4.0	4.2	4.4
말레이시아	1.5	1.4	1.5	1.5	1.5	1.6	1.6	1.6	1.6	1.6	1.6	1.7
태국	2.6	1.8	1.8	1.8	1.8	1.8	1.9	1.9	1.9	1.9	2.0	2.0
베트남	2.7	2.6	2.2	2.3	2.3	2.4	2.5	2.6	2.7	2.8	2.9	3.0
파키스탄	0.2	0.2	0.0	0.1	0.1	0.1	0.1	0.1	0.1	0.1	0.1	0.0
기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	7.4	6.9	7.6	7.9	8.2	8.5	8.9	9.2	9.5	9.8	10.2	10.6
기타 국가들	12.6	-0.3	6.7	6.7	6.8	6.9	6.9	7.0	7.1	7.2	7.3	7.4
미국	3.1	3.5	3.3	3.4	3.5	3.7	3.8	3.8	3.8	3.8	3.8	3.8
총 교역량	156.3	132.7	141.5	143.6	146.1	148.6	151.0	153.4	155.9	158.6	161.2	163.7
수출국												
EU	16.4	17.5	19.8	20.3	21.1	21.7	22.7	23.3	23.6	24.0	24.6	25.2
캐나다	17.4	19.0	18.0	18.9	18.2	17.9	18.0	18.0	18.1	18.1	18.2	18.3
호주	24.7	16.5	18.1	18.7	19.0	19.3	19.6	19.8	20.0	20.2	20.6	21.0
아르헨티나	12.7	5.5	7.1	7.3	7.1	6.9	6.8	6.8	6.7	6.7	6.6	6.6
러시아	21.6	10.0	15.1	17.9	19.7	20.9	21.1	21.9	23.0	24.2	24.7	25.3
우크라이나	5.4	6.0	8.8	9.1	9.3	9.6	10.1	10.6	11.1	11.5	12.0	12.6
구소련	12.2	7.6	7.9	8.2	8.9	9.4	9.8	10.1	10.5	10.9	11.3	11.8
기타 유럽국가들	0.6	0.6	0.7	0.7	0.7	0.7	0.7	0.7	0.7	0.7	0.8	0.8
인도	0.9	6.0	5.0	3.2	2.1	1.7	1.4	1.1	0.9	0.7	0.4	0.2
중국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1.1	1.1
터키	3.7	3.5	3.4	3.7	3.8	4.1	4.3	4.5	4.6	4.7	4.9	5.0
기타 국가들	11.0	9.6	9.5	9.5	9.6	9.8	9.9	10.0	10.1	10.2	10.3	10.4
미국	28.6	29.9	27.2	25.2	25.3	25.4	25.6	25.6	25.6	25.6	25.6	25.6
미국 시장 점유율	18.3	22.6	19.2	17.5	17.3	17.1	16.9	16.7	16.4	16.1	15.9	15.6

중장기 쌀 교역량 전망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수입국												
캐나다	0.35	0.35	0.35	0.36	0.36	0.37	0.37	0.37	0.38	0.38	0.39	0.39
멕시코	0.64	0.73	0.71	0.74	0.76	0.77	0.79	0.81	0.83	0.85	0.87	0.89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	1.49	1.48	1.51	1.54	1.56	1.58	1.61	1.63	1.66	1.70	1.73	1.76
브라질	0.75	0.75	0.64	0.64	0.64	0.64	0.64	0.64	0.65	0.65	0.65	0.65
기타 남미 국가들	0.85	0.85	0.53	0.50	0.57	0.59	0.60	0.63	0.66	0.68	0.71	0.74
EU	1.21	1.40	1.55	1.57	1.58	1.60	1.61	1.62	1.63	1.64	1.64	1.65
구소련	0.37	0.41	0.42	0.40	0.40	0.40	0.38	0.36	0.34	0.33	0.31	0.29
기타 유럽 국가들	0.14	0.14	0.14	0.15	0.15	0.15	0.15	0.15	0.15	0.16	0.16	0.16
방글라데시	0.56	0.25	0.55	0.63	0.71	0.79	0.87	0.95	1.03	1.11	1.18	1.25
중국	1.62	2.40	1.82	1.80	1.82	1.83	1.84	1.85	1.86	1.87	1.86	1.86
일본	0.70	0.70	0.68	0.68	0.68	0.68	0.68	0.68	0.68	0.68	0.68	0.68
대한민국	0.36	0.60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인도네시아	1.70	1.45	2.50	2.65	2.73	2.87	3.03	3.19	3.39	3.61	3.81	3.96
말레이시아	1.09	1.05	1.10	1.16	1.20	1.24	1.28	1.32	1.35	1.38	1.41	1.43
필리핀	1.5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기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	2.68	2.74	2.72	2.80	2.88	2.93	2.98	3.04	3.09	3.14	3.19	3.24
이라크	1.35	1.35	1.32	1.35	1.39	1.43	1.45	1.49	1.52	1.55	1.57	1.60
이란	1.90	1.95	1.95	1.97	2.00	2.03	2.06	2.09	2.11	2.13	2.15	2.17
사우디아라비아	1.15	1.23	1.22	1.22	1.22	1.24	1.26	1.28	1.30	1.32	1.34	1.37
기타 북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	2.56	2.14	2.26	2.31	2.39	2.46	2.52	2.58	2.63	2.69	2.74	2.79
서아프리카 공동체	8.17	6.32	6.70	6.94	7.20	7.50	7.80	8.10	8.40	8.70	8.97	9.2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41	2.53	2.56	2.63	2.72	2.83	2.90	3.00	3.10	3.20	3.30	3.40
남아프리카공화국	0.95	1.00	1.04	1.05	1.07	1.09	1.10	1.12	1.14	1.15	1.17	1.19
기타 국가들	3.27	2.58	2.54	2.54	2.55	2.56	2.57	2.57	2.58	2.58	2.59	2.59
미국	0.61	0.65	0.65	0.66	0.67	0.68	0.68	0.69	0.70	0.71	0.72	0.74
총 수입량	38.37	36.52	37.49	38.40	39.48	40.56	41.59	42.68	43.78	44.91	45.95	46.92
수출국												
호주	0.45	0.50	0.48	0.47	0.47	0.47	0.48	0.49	0.49	0.50	0.50	0.51
아르헨티나	0.68	0.53	0.63	0.66	0.69	0.70	0.70	0.71	0.72	0.72	0.72	0.73
기타 남미 국가들	2.65	2.08	2.19	2.24	2.30	2.36	2.41	2.49	2.56	2.62	2.67	2.74
EU	0.20	0.24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6	0.26	0.26
중국	0.44	0.50	0.64	0.69	0.69	0.76	0.83	0.87	0.93	0.99	1.05	1.11
인도	10.40	7.25	6.83	5.75	5.50	5.75	5.91	6.05	6.25	6.41	6.57	6.75
파키스탄	3.75	4.00	4.13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태국	6.50	8.00	8.80	9.80	10.56	10.98	11.35	11.71	12.00	12.36	12.71	12.98
베트남	7.20	7.00	7.44	7.65	7.75	7.85	7.95	8.10	8.30	8.50	8.63	8.75
미얀마	0.70	0.60	0.68	0.74	0.77	0.77	0.80	0.88	0.94	0.99	1.05	1.10
캄보디아	0.80	0.95	1.02	1.12	1.15	1.16	1.22	1.29	1.35	1.41	1.48	1.55
이집트	0.60	0.85	0.74	0.70	0.66	0.62	0.59	0.57	0.55	0.52	0.50	0.48
기타 국가들	0.78	0.75	0.72	0.72	0.72	0.73	0.74	0.74	0.74	0.74	0.75	0.75
미국	3.22	3.28	2.93	3.39	3.67	3.77	3.87	3.94	4.01	4.08	4.15	4.22
총 수출량	38.37	36.52	37.49	38.40	39.48	40.56	41.59	42.68	43.78	44.91	45.95	46.92
미국 시장 점유율	8.4	9.0	7.8	8.8	9.3	9.3	9.3	9.2	9.1	9.1	9.0	9.0

중장기 대두 교역량 전망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수입국												
EU	11.3	11.0	11.7	11.2	11.2	11.2	11.2	11.2	11.3	11.3	11.3	11.3
일본	2.8	2.6	2.6	2.6	2.6	2.6	2.7	2.7	2.7	2.7	2.7	2.7
대한민국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대만	2.3	2.3	2.3	2.2	2.3	2.3	2.3	2.3	2.3	2.3	2.3	2.3
멕시코	3.4	3.4	3.7	3.8	3.8	3.9	4.0	4.1	4.2	4.3	4.4	4.5
구소련	0.7	0.8	1.1	1.2	1.3	1.4	1.4	1.3	1.3	1.2	1.2	1.1
북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	3.5	3.5	3.8	3.8	3.9	4.0	4.1	4.2	4.3	4.4	4.6	4.7
중국	59.2	63.0	67.6	71.6	75.2	79.0	82.8	86.7	90.6	94.7	98.8	102.9
말레이시아	0.6	0.6	0.6	0.6	0.6	0.6	0.6	0.6	0.6	0.7	0.7	0.7
인도네시아	2.0	2.0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기타 국가들	2.5	10.6	8.4	8.7	8.9	9.1	9.4	9.6	9.8	10.0	10.3	10.5
총 수입량	89.3	100.9	105.0	109.0	113.2	117.6	121.9	126.2	130.6	135.1	139.7	144.3
수출국												
아르헨티나	7.4	12.0	10.9	12.2	13.1	13.7	14.2	15.0	15.7	16.2	16.8	17.5
브라질	36.3	37.4	39.4	42.3	43.8	46.2	48.9	51.3	54.4	57.6	60.8	63.8
기타 남미 국가들	4.7	7.3	7.8	8.1	8.5	8.9	9.3	9.7	10.1	10.5	10.9	11.3
우크라이나	1.3	1.8	1.9	2.1	2.2	2.4	2.5	2.7	2.8	2.9	3.1	3.2
기타 국가들	3.5	3.4	3.9	3.9	4.0	4.1	4.1	4.2	4.3	4.4	4.5	4.6
미국	36.1	38.9	41.2	40.3	41.6	42.5	42.9	43.3	43.3	43.5	43.7	43.8
총 수출량	89.3	100.9	105.0	109.0	113.2	117.6	121.9	126.2	130.6	135.1	139.7	144.3
미국 시장 점유율	40.4	38.6	39.3	37.0	36.8	36.1	35.2	34.3	33.1	32.2	31.3	30.4

중장기 대두박 교역량 전망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수입국												
EU	21.2	21.9	23.0	23.7	24.6	24.5	24.4	24.4	24.5	24.6	24.6	24.5
구소련	0.8	0.7	0.7	0.8	0.8	0.8	0.8	0.9	0.9	1.0	1.0	1.0
기타 유럽 국가들	0.6	0.7	0.6	0.7	0.7	0.7	0.7	0.7	0.7	0.7	0.7	0.8
캐나다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일본	2.3	2.4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동남아시아	11.2	11.2	11.3	12.0	12.4	12.7	13.1	13.7	14.1	14.6	15.0	15.5
멕시코	1.5	1.6	1.6	1.6	1.7	1.7	1.8	1.9	1.9	2.0	2.1	2.2
기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6.5	6.6	6.9	7.1	7.3	7.6	7.8	8.0	8.2	8.5	8.7	8.9
북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	7.4	7.3	8.0	8.3	8.5	8.6	8.8	8.9	9.1	9.3	9.4	9.6
기타 국가들	6.3	7.7	6.7	6.9	7.1	7.1	7.2	7.3	7.4	7.5	7.7	7.8
총 수입량	59.0	61.1	62.4	64.9	66.7	67.5	68.3	69.4	70.7	71.8	72.9	73.9
수출국												
아르헨티나	26.0	29.8	30.4	32.4	33.6	33.9	34.4	35.3	36.4	37.3	38.2	38.9
브라질	14.7	14.5	13.8	14.9	15.2	15.5	15.7	15.9	16.2	16.4	16.7	16.9
기타 남미 국가들	2.4	3.4	3.4	3.5	3.5	3.6	3.6	3.7	3.8	3.8	3.8	3.9
중국	1.0	0.9	0.9	0.8	0.8	0.8	0.8	0.8	0.8	0.8	0.8	0.8
인도	4.6	4.3	3.9	3.5	3.5	3.5	3.3	3.1	2.9	2.7	2.5	2.3
EU	0.9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기타 국가들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미국	8.8	7.2	8.8	8.6	8.9	9.1	9.3	9.4	9.6	9.7	9.8	10.0
총 수출량	59.0	61.1	62.4	64.9	66.7	67.5	68.3	69.4	70.7	71.8	72.9	73.9
미국 시장 점유율	15.0	11.7	14.2	13.3	13.3	13.4	13.6	13.6	13.5	13.5	13.5	13.5

중장기 대두유 교역량 전망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수입국												
중국	1.5	1.4	1.1	1.1	1.1	1.0	1.0	0.9	0.8	0.8	0.7	0.6
인도	1.2	1.1	1.1	1.4	1.3	1.3	1.3	1.3	1.3	1.4	1.4	1.4
기타 아시아 국가들	1.2	1.1	1.2	1.2	1.3	1.3	1.3	1.4	1.4	1.4	1.5	1.5
기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1.7	1.7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북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	1.6	1.7	2.0	2.1	2.2	2.2	2.3	2.3	2.3	2.4	2.4	2.5
EU	0.5	0.5	0.6	0.6	0.7	0.7	0.8	0.9	1.0	1.1	1.2	1.3
기타 국가들	0.9	1.0	1.1	1.1	1.1	1.1	1.1	1.1	1.1	1.2	1.2	1.2
총 수입량	8.5	8.5	8.9	9.4	9.6	9.7	9.9	10.1	10.3	10.4	10.6	10.8
수출국												
아르헨티나	3.8	4.1	4.3	4.8	4.7	4.6	4.6	4.6	4.6	4.6	4.6	4.6
브라질	1.9	1.7	1.8	1.9	2.0	2.1	2.2	2.3	2.3	2.3	2.3	2.4
EU	0.7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기타 국가들	1.5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1
미국	0.7	0.5	0.5	0.5	0.5	0.6	0.7	0.8	0.9	1.0	1.1	1.2
총 수출량	8.5	8.5	8.9	9.4	9.6	9.7	9.9	10.1	10.3	10.4	10.6	10.8
미국 시장 점유율	7.8	6.4	6.1	5.3	5.7	6.1	6.9	7.7	8.4	9.1	10.1	11.0

2013/14년 미국 곡물수급 전망

2013/14년 미국 밀은 수확하지 않고 버려지는 면적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옥수수 생산량은 기록적으로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급락할 것이다. 대두는 수익성이 증가하여 작목전환이 이루어지고 2기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밀, 옥수수, 대두의 선물가격, 현물가격, 농판가격은 모두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옥수수 및 대두 생산량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전망되므로 세계 공급량이 사상최고 수준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곡물수요가 높은 수준이어서 10년 전에 비하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 서론

2013/14년 밀, 옥수수, 쌀, 대두 및 대두가공품 수급 전망은 파종기인 봄과 생육발달기인 여름 동안 정상기후일 것을 가정으로 하여 도출되었다. 수익성이 높음에다가 농작물보험이 손실을 보상해주므로 2013/14년 재배면적은 30년 만의 최대수준이었던 2012/13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의 재배면적은 파종기 봄 기후가 순조로워 대폭 증가했었다. 2013년은 농지보전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휴경하는 농가에게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파종기 기후가 정상기후로 회복될 것을 가정하면 전체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옥수수 및 대두 생산량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전망되며 세계 공급량은 사상최고수준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3/14년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 현물가격, 농판가격은 모두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곡물수요가 높은 수준이어서

* 본 내용은 2013년 2월 22일 USDA "2013 Agricultural Outlook Forum"에서 발표된 Grains & Oilseeds Outlook을 바탕으로 작성됨.

단위: 본문은 미국에서 각 품목에 대해 표준으로 사용하는 단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단위를 톤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밀 1부셀은 0.027216톤, 옥수수 1부셀은 0.025401톤, 대두 1부셀은 0.027216톤, 1cwt는 0.04536톤, 1파운드 0.000454톤.

10년 전에 비하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곡물가격 기록적인 수준에서 하락할 전망

단위: 센트/부셀

곡물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전망)	변동율(%)
밀	4.87	5.70	7.24	7.90	7.00	-11.4%
옥수수	3.55	5.18	6.22	7.20	4.80	-33.3%
대두	9.59	11.30	12.50	14.30	10.50	-26.6%
쌀	14.40	12.70	14.50	14.90	15.20	+2.0%
면화	62.9	81.5	88.3	71.0	73.0	+2.8%

2. 2013년 재배면적 전망

밀, 옥수수, 콩 재배면적, 2006-2013

단위: 백만 에이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망)
밀	57.3	60.5	63.2	59.2	53.6	54.4	55.7	56.0
옥수수	78.3	93.5	86.0	86.4	88.2	91.9	97.2	96.5
대두	75.5	64.7	75.7	77.5	77.4	75.0	77.2	77.5
총계	211.1	218.7	224.9	223.1	219.2	221.3	230.1	230.0

주: 1백만 에이커는 40,4868ha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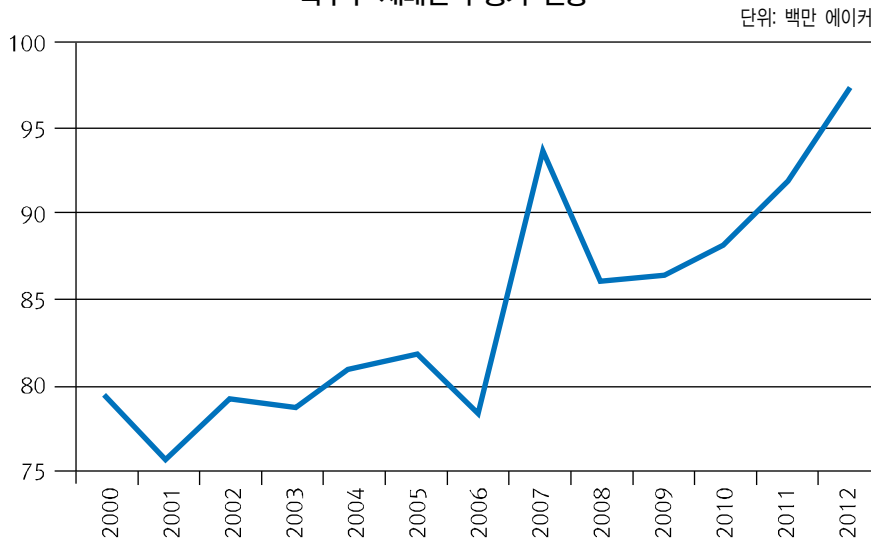
자료: 2006-2012,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파종기를 앞두고 곡물재배의 수익성이 매우 높으므로 2013년 미국 곡물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13 미국 국내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므로 옥수수와 대두의 신곡 선물가격 및 현물 선도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두의 신곡 선물가격 및 현물 선도가격은 옥수수에 비해, 그리고 전년 동기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대두 및 대두와 함께 2기작을 하는 적색연질밀(SRW)의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가을 파종기 동안 신곡 밀 가격이 높은 수준이어서 2012/13 겨울밀 재배면적은 증가했으나 대평원에 극도의 가뭄피해가 일어나 적색경질밀(HRW)의 재배면적 증가폭은 제한을 받았다. 종합적으로 2013년 옥수수, 대두, 밀 세 곡물의 재배면적은 2억 3,000만 에이커로 전망되며 이는 2012년의 2억 3,010만 에이커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이다. 2012년의 세 곡물 재배면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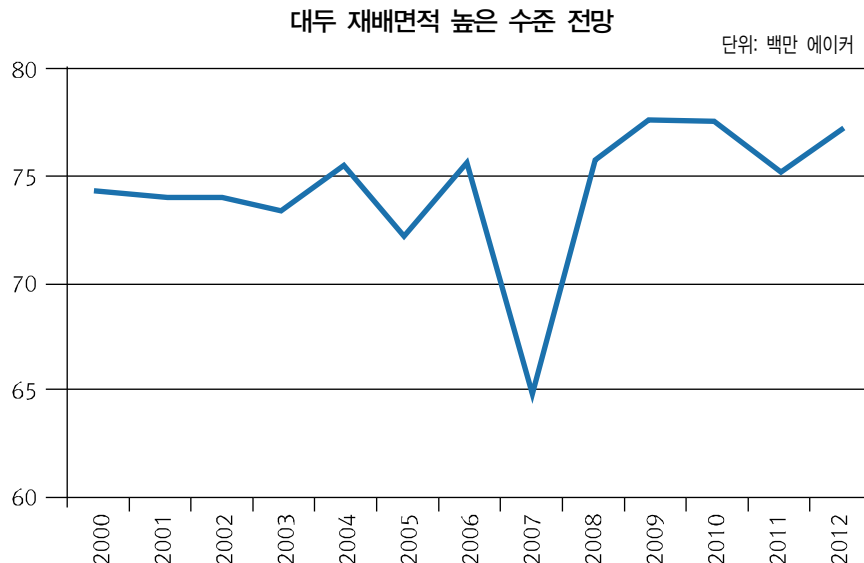
1982년 이후 최대수준이었다. 2013/14년 농지보전프로그램에 등록된 농지면적은 총 970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경작가능한 재배면적이 증가했다. 2013년 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0만 에이커 증가한 5,600만 에이커로 전망된다. 2012/13 겨울밀 재배면적은 4,180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50만 에이커 증가했었다. 2013년 1월 11일 발표되었던 겨울밀 파종현황 보고서(Winter Wheat Seedings)에 의하면 적색경질밀(HRW)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70만 에이커 감소한 2,910만 에이커였고 적색연질밀(SRW)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30만 에이커 증가한 940만 에이커였다. 백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330만 에이커였다. 보밀(듀럼밀 포함) 재배면적은 옥수수과 대두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므로, 특히 주산지인 노스다코타(North Dakota)에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70만 에이커 감소한 9,650만 에이커로 전망된다. 2012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75년 만의 최대수준이었다. 옥수수 신곡 선물가격 및 현물 선도가격이 강세여서 전년 동기와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월 상순동안 신곡 선물가격은 평균 부셸당 \$5.70였고 이 기간 동안 일리노이 중부지역 곡물엘리베이터의 가을 인도가격은 평균 부셸당 \$5.45였다. 이 가격은 전년 동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옥수수 재배면적 증가 전망



2013년 대두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0만 에이커 증가한 7,750만 에이커로 전망된다. 신곡 대두 선물가격 및 현물 선도가격은 전년 동기 및 옥수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대두 가격이 이처럼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밀과 대두를 윤작하는 지역에서 겨울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했으므로 대두의 재배면적도 잠재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적색연질밀(SRW) 주산지인 콘벨트 동부 및 미시시피 강 삼각주 지역에서 겨울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처럼 파종기에 고온 건조한 기후가 찾아올 경우 윤작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2013년 6월 기후가 정상기후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하면 위의 SRW 재배지역에서 2기작 대두의 재배면적도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두 재배면적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미시시피 강 삼각주 지역에서 면화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미국 중서부 위쪽지역(특히 노스다코타 주)에서 농지보전프로그램에 등록된 농지면적이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2013년 전체 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 감소한 264만 에이커로 전망되며 감소는 대부분 미시시피 강 삼각주 지역에서 장립종 재배면적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이 지역은 대두 등 쌀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다른 곡물로 작목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중립종 쌀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2013/14 밀 수급 및 가격 전망

밀 수급 및 가격, 2010/11~2013/14

	2010/11	2011/12	2012/13(추정치)	2013/14(전망치)
재배면적(백만 에이커)	53.6	54.4	55.7	56.0
수확면적	47.6	45.7	49.0	46.5
단수(부셀/에이커)	46.3	43.7	46.3	45.2
생산량(백만 부셀)	2,207	1,999	2,269	2,100
기초재고량	976	862	743	691
수입량	97	112	130	130
공급량	3,279	2,974	3,142	2,921
사료 및 기타 소비량	132	164	375	300
식용, 종자용, 산업용 소비량	997	1,018	1,025	1,032
전체 국내 소비량	1,128	1,182	1,400	1,332
수출량	1,289	1,050	1,050	950
전체 소비량(국내+수출량)	2,417	2,231	2,450	2,282
기말재고량	862	743	691	639
기말재고율(%)	35.7	33.3	28.2	28.0
연평균 농판가격(달러/부셀)	5.70	7.24	7.90	7.00

■ 밀 공급량 전망

2013년 밀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 이상 감소한 21억 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수의 감소 및 수확하지 않고 버려지는 면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3년 수확면적은 전년대비 250만 에이커 감소한 4,650만 에이커로 전망된다. 파종면적 대 수확면적 비율은 전년의 0.88보다 감소한 0.83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5년 평균은 0.87이다. 이와 같이 수확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원인은 2012년 가을과 겨울 동안 적색경질밀 주산지에서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봄비가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전체 밀 단수는 45.2부셀/에이커로 전망된다. 이는 2010년과 2012년의 기록적인 수준이었던 46.3부셀/에이커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 대평원에서 겨울밀 작황이 전년 동기에 비해 매우 나쁜 수준임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서부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다. 적색경질밀 주산지인 캔자스,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의 나뭇/아주나뭇 등급은 약 50% 수준으로 전년 동기의 약 10%에 비해 대폭 악화된 수준이다(재배면적 가중치로 추정함). 또한 이 지역의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14%로 전년 동기의 52%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적색연질밀 작황은 이에 비해 훨씬 양호한 상황이다. 일리노이 주 겨울밀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67%이다. 그러나 전년 동기의 75%에 비하면 감소한 수준이다.

2013년 적색경질밀, 봄밀, 백밀, 듀럼밀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적색연질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색경질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뭄으로 인해 수확되지 않고 버려지는 면적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색경질밀은 단수 또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이다. 봄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단수가 평년 수준으로 감소하여 생산량 증가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듀럼밀 단수 및 재배면적도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백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색연질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6% 증가하며 특히 주산지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밀 생산량 및 재고량이 감소할 것이므로 2013/14년 전체 밀 공급량은 전년대비 7% 감소한 29억 2,100만 부셸로 전망되는데, 이 전망치가 실현된다면 이는 2007/08년 이후 최저수준이 될 것이다.

■ 밀 국내소비량 전망

2013/14년 밀 국내소비량은 전년대비 6,800만 부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용 소비량은 전년대비 800만 부셸 증가한 9억 5,800만 부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인구증가율이 1% 미만일 것,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 최근 수년간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밀가루 추출율이 소폭 감소할 것임을 가정하여 도출한 것이다. 2013/14년 종자용 소비량은 2014년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이므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7,400만 부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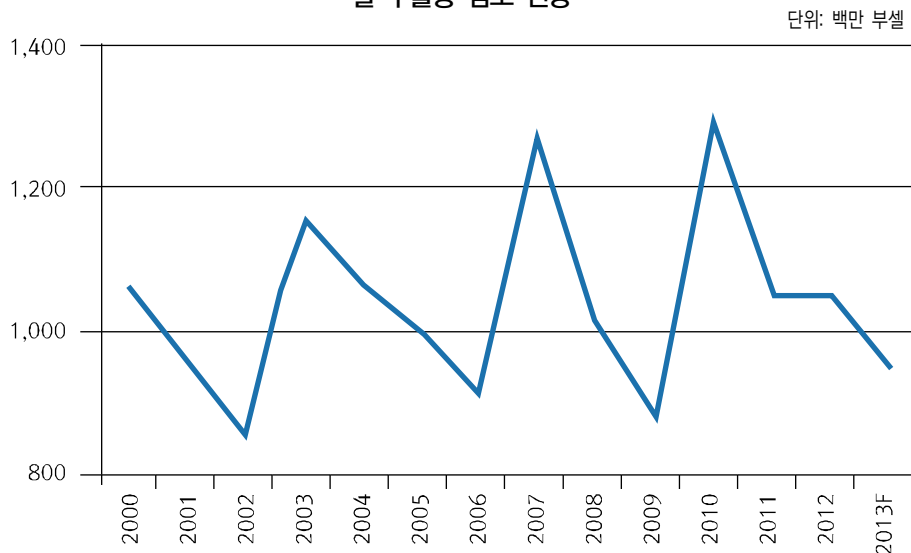
2013/14년 사료 및 기타 소비량은 전년대비 7,500만 부셸 감소한 3억 부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상기후 및 단수수준을 가정하여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할 것과 적색경질밀 생산량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구곡 옥수수 공급량이 수확 직전 극심하게 부족해질 것이므로 여름(6월~8월) 동안 2013/14년 사료용 밀 소비량의 대부분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밀 수출량

2013/14년 미국 밀 수출량은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다른 밀 수출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1억 부셀 감소한 9억 5,000만 부셀로 전망된다. 세계 밀 생산량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주요 수출국들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년의 낮은 수준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이 주로 증가하는 수출국은 카자흐스탄, EU-27,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전망된다. 밀 가격이 높은 수준이어서 북반구의 겨울밀 재배면적 및 캐나다의 봄밀 재배면적,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국들의 기초재고량은 2008/09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2013/14유통연도 상반기 몇 개월간은 세계 기초재고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므로 신곡이 수확되는 시기에 수출량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북반구 다른 국가들의 신곡도 공급되면서 수출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밀 생산량 전망치가 거의 기록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밀 수요가 높으므로 주요 수출국들의 기말재고량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밀 수출량 감소 전망



■ 밀 기말재고량 및 농판가격

2013/14년 미국 기초재고량 및 생산량이 감소하나 소비량 또한 감소하면서 상쇄된 결과 미국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미국 기말재고량은 6억 3,900만 부셀로 2007/08년 이후 최저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3/14년 기말재고율은 28%로 전년의 28.2%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므로 이에 비추어볼 때 2013/14년 미국 기말재고량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2013/14 연평균 농판가격은 부셀당 \$7.00로 2012/13년의 기록적으로 높았던 가격범위의 중간점과 비교해볼 때 \$0.90 낮은 수준이다. 밀의 농판가격은 선도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옥수수의 여름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므로 6월~5월 유통연도 초반기 동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농민들은 통상적으로 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6월~9월 사이에 판매한다.

4. 2013/14 옥수수 수급 및 가격 전망

옥수수 수급 및 가격, 2010/11~2013/14

	2010/11	2011/12	2012/13 (추정치)	2013/14 (전망치)
재배면적(백만 에이커)	88.2	91.9	97.2	96.5
수확면적	81.4	84.0	87.4	88.8
단수(부셀/에이커)	152.8	147.2	123.4	163.6
생산량(백만 부셀)	12,447	12,360	10,780	14,530
기초재고량	1,708	1,128	989	632
수입량	28	29	100	25
공급량	14,182	13,516	11,869	15,187
사료 및 기타 소비량	4,795	4,548	4,450	5,400
에탄올용 소비량	5,019	5,011	4,500	4,675
식용, 종자용, 에탄올 이외 산업용 소비량	1,407	1,426	1,387	1,435
식용, 종자용, 에탄올 포함 산업용 소비량	6,426	6,437	5,887	6,110
전체 국내 소비량	11,221	10,985	10,337	11,510
수출량	1,834	1,543	900	1,500
전체 소비량(국내+수출량)	13,055	12,527	11,237	13,010
기말재고량	1,128	989	632	2,177
기말재고율(%)	8.6	7.9	5.6	16.7
연평균 농판가격(달러/부셀)	5.18	6.22	7.20	4.80

■ 옥수수 공급량 전망

2013년 옥수수 생산량은 기록적인 145억 3,000만 부셀로 전망된다. 이는 가뭄피해로 생산량이 낮은 수준이었던 2012년 생산량에 비해 35%(37억 5,000만 부셀) 증가한 수준이다. 2013/14년 기초재고량은 17년 만의 최저수준으로 전망되지만 기초재고량의 전년대비 감소분에 비해 생산량의 전년대비 증가분이 대폭 많기 때문에 2013/14년 옥수수 공급량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기록적인 151억 8,700만 부셀로 전망된다. 옥수수 생산량의 증가는 단수의 회복 및 수확면적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확면적은 전년대비 140만 에이커 증가한 8,880만 에이커로 전망되는데 이는 1933년 이후 최대수준이다. 수확면적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곡식을 수확하지 않고 줄기와 잎을 사료용(사일리지)으로 소비한 면적의 비율이 2012년처럼 높지 않고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콘벨트지역이 심각한 가뭄피해를 입었고 또한 사료비용도 높았기 때문에 옥수수 줄기와 잎을 사료용(사일리지)으로 소비한 면적이 전년대비 140만 에이커 증가한 740만 에이커였다. 2013년 여름 기후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하면, 미국 평균 옥수수 단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전년대비 40.2부셀 증가한 163.6부셀/에이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옥수수 단수는 2013년 6월 동안 극한의 건조기후가 없고, 7월 동안 콘벨트 기온 및 강수량이 1988-2012 평균수준일 것으로 가정하여 도출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름과 가을 동안의 건조기후는 다음 해의 기후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2012년의 가뭄은 2013년 단수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 옥수수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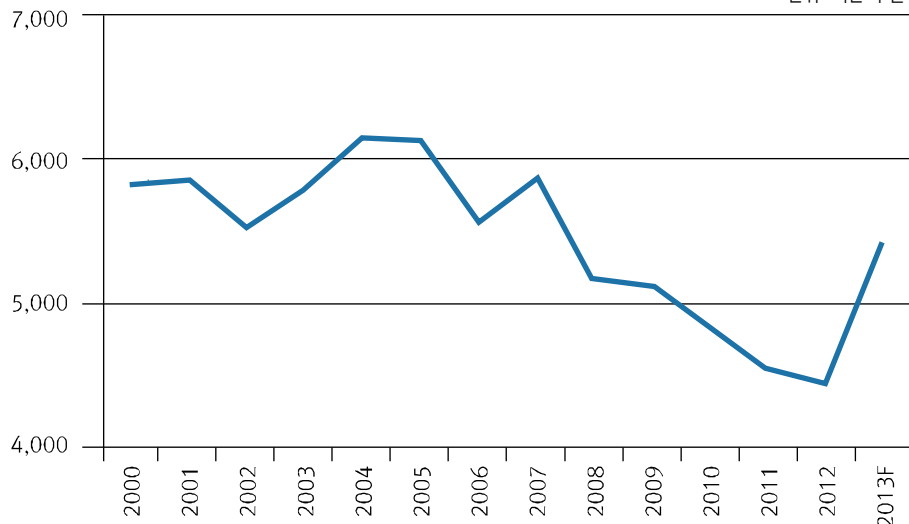
2013/14년 전체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대비 무려 17억 7,300만 부셀 증가한 130억 1,000만 부셀로 전망된다. 2012/13년에는 옥수수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했었다. 그러나 2013/14년에는 사료 및 기타 소비량이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식용, 종자용, 산업용 소비량이 증가하여 국내 소비량이 11억 7,300만 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량 또한 전년의 낮은 수준에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13년 미국 옥수수 수출량은 41년 만의 최저수준이었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과의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2013/14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 중 미국의 점유율은 1993/94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사료 및 기타 소비량은 전년대비 9억 5,000만 부셀 증가한 54억 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비용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료용 소비량이 증가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2014년까지 미국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닭고기 및 돼지고기 생산량의 증가분으로 상쇄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연간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 및 기타 소비량 증가 전망

단위: 백만 부셀



2013/14년 식용, 종자용, 산업용 소비량은 전년대비 4%(2억 2,300만 부셀)나 증가한 61억 1,000만 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13 식용, 종자용, 산업용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했었다. 그러나 2013/14년 식용, 종자용, 산업용 소비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11/12년에 비해 여전히 3억 2,700만 부셀 적은 수준이다. 2013/14년 식용, 종자용, 산업용 소비량의 증가분은 대부분 에탄올용 소비량으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는 전분용, 액상과당용, 포도당 및 결정포도당 용으로 인한 것이다. 미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전반적인 식용, 종자용, 산업용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멕시코로 수출되는 옥수수 원료 감미료는 멕시코 국내 설탕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에탄올용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대비 1억 7,500만 부셀 증가한 46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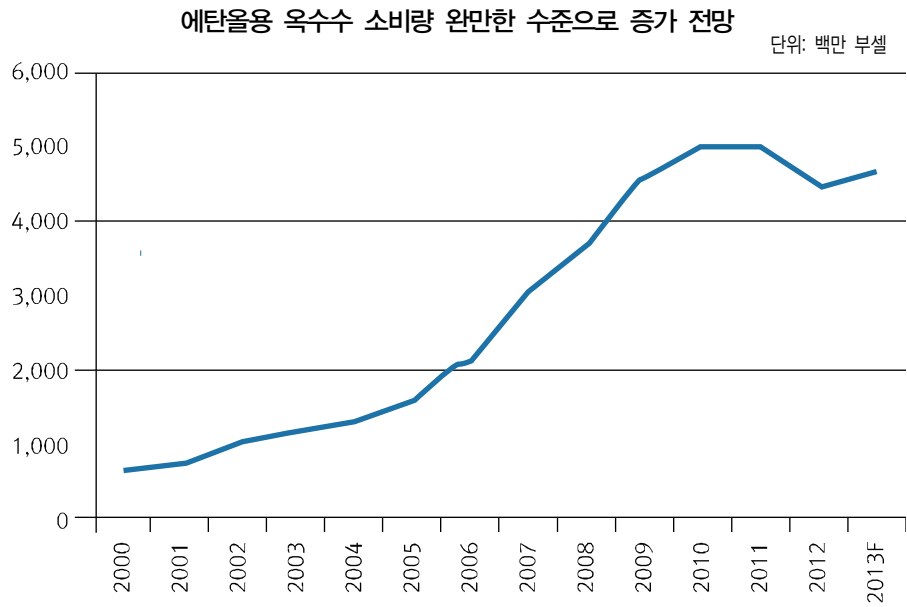
7,500만 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록적인 수준이었던 2010/11년에 비해 3억 4,400만 부셀 적은 수준이다. 2013/14년 전망치에 의하면 전체 옥수수 소비량 중 36%가 에탄올용으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1/12년과 2012/13년의 40%에 비하면 감소한 것이다. 에탄올용 옥수수 소비량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 휘발유 소비량은 2012/13 옥수수 유통연도 기준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전망치인 1,339억 갤런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차량의 연료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브라질산 에탄올과의 경쟁으로 인해 미국 에탄올 수출량의 증가폭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브라질은 2013/14년 사탕수수 생산량이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에탄올 생산량 의무사용량에 못 미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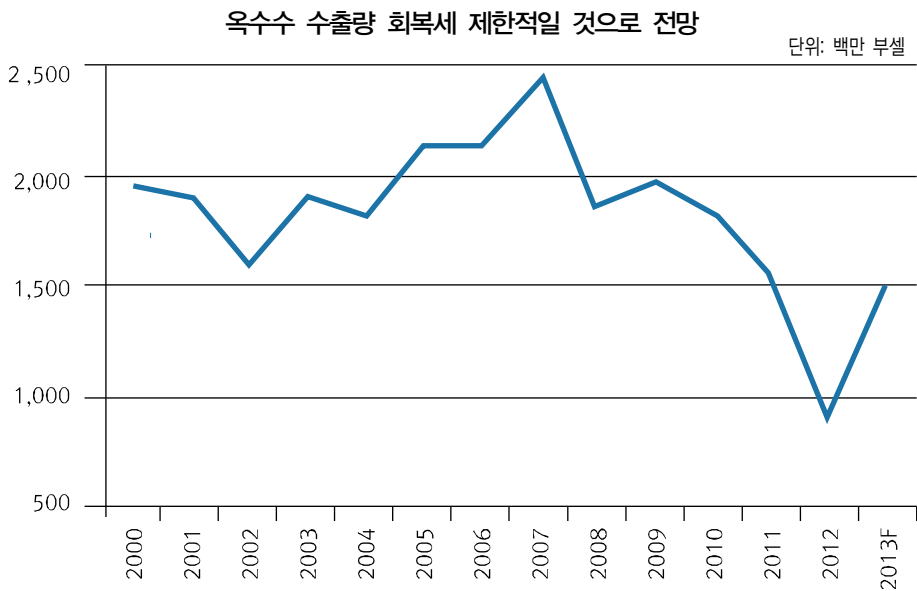
단위: 십억 갤런



Source: DOE-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eekly Petroleum Status Report*.



■ 옥수수 수출량, 기말재고량, 가격 전망



2013/14년 미국 옥수수 수출량은 전년대비 6억 부셀 증가한 15억 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옥수수 수입량은 가격하락, 경기회복, 사료수요의 증가로 인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기록적인 생산량이 전망되므로 수출가능한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출경쟁력이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012/13년 옥수수 시장에서 브라질이 주요한 경쟁자로 등장했으나 브라질의 수출경쟁력은 주로 국내 수급상황, 인프라의 효율성, 환율에 의존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 또한 2013/14년 많은 물량을 생산 및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과 경쟁할 것이다. 중국은 2013/14년 세계 옥수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 사료용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수입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 옥수수 수입량은 세계가격과 중국 국내가격의 상대적 수준 및 정부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013/14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1억 7,700만 부셀로 전망된다. 옥수수 소비량이 2009/10년 및 2010/11년의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나 주요 수출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수출량의 증가에 제한이 있을 것이므로 재고량이 급속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기말재고율은 2012/13년 전망치인 5.6%의 3배 이상 높은 16.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및 기타 수출국들의 재고량이 충분하므로 2013/14년 옥수수 가격은 하락압력을 받을 것이다. 2013/14유통연도 초반 가격은 선도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현물가격은 부셀당 \$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14 연평균 농판가격은 부셀당 \$4.80로 2012/13년의 기록적으로 높았던 가격범위의 중간점과 비교해볼 때 \$2.40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2013/14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쌀 수급 및 가격, 2010/11~2013/14

전체쌀	2010/11	2011/12	2012/13(추정치)	2013/14(전망치)
재배면적(백만 에이커)	3.64	2.69	2.70	2.64
수확면적	3.62	2.62	2.68	2.62
단수(파운드/에이커)	6,725	7,067	7,449	7,328
생산량(백만 cwt)	243.1	184.9	199.5	192.0
기초재고량	36.5	48.5	41.1	30.6
수입량	18.3	19.4	21.0	21.5
공급량	297.9	252.8	261.6	244.1
전체 국내 및 기타 소비량	136.5	110.1	125.0	122.0
수출량	113.0	101.6	106.0	93.0
전체 소비량(국내+수출량)	249.5	211.7	231.0	215.0
기말재고량	48.5	41.1	30.6	29.1
기말재고율(%)	19.4	19.4	13.2	13.5
연평균 농판가격(달러/cwt)	12.70	14.50	14.90	15.20

주: 1cwt는 0.04536톤임

■ 쌀 공급량

2013년 전체 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 감소한 264만 에이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감소분은 대부분 미시시피 강 삼각주 지역의 장립종 재배면적의 감소로 인한 것인데 이 지역에서는 수익성이 더 높은 대두와 같은 작목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중립종은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므로 미국 남부 및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립종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립종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5% 감소한 190만 에이커로 전망된다. 중립/단립종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 증가한 74만 에이커로 전망되며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이다. 전체 쌀 수확면적은 262만 에이커로 전망되며 장립종 수확면적이 189만 에이커, 중립/단립종 수확면적이 73만 에이커로 전망된다. 2013년 전체 쌀 평균 단수는 정상기후 및 파종지연이 없음을 가정할 때 전년의 기록적인 수준에서 121파운드 감소한 7,328파운드/에이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2012 평균 단수추세를 가정할 때 2013년 장립종 단수는 전년대비 233파운드 감소한 7,052파운드/에이커로, 중립/단립종 단수는 전

년대비 124파운드 감소한 8,038파운드/에이커로 전망된다. 2013년 전체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4% 감소한 1억 9,200만cwt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소분은 대부분 장립종 생산량으로 장립종은 전년대비 8% 감소한 1억 3,300만cwt로 전망된다. 반면에 중립/단립종 생산량은 전년대비 7% 증가한 5,900만cwt로 전망된다. 2013/14년 전체 쌀 총 공급량은 기초재고량 및 생산량의 감소분이 수입량 증가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년대비 7% 감소한 2억 4,410만cwt로 전망된다. 공급량 감소분의 대부분이 장립종으로 인한 것으로 장립종 공급량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립/단립종 공급량은 기초재고량의 감소분이 생산량 증가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년대비 1% 감소한 7,200만cwt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쌀 수입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한 2,150만cwt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 태국과 인도의 향미쌀 등 장립종 쌀 수입량 증가로 인한 것이다.

■ 국내소비량 및 수출량 전망

2013/14년 전체 쌀 국내 및 기타 소비량은 전년대비 2% 감소한 1억 2,200만cwt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립종의 국내 및 기타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3% 감소(9,100만cwt)할 것이며 중립/단립종 국내 및 기타 소비량은 전년에 상응하는 수준인 3,100만cwt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전체쌀 수출량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9,300만cwt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소분은 대부분 장립종의 수출가능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장립종 수출량은 전년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립/단립종 수출량은 전년대비 3% 증가한 3,200만cwt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립/단립종 기말재고량 및 가격 전망

중립/단립종 수급 및 가격, 2010/11~2013/14

	2010/11	2011/12	2012/13(추정치)	2013/14(전망치)
재배면적(백만 에이커)	0.80	0.90	0.71	0.74
수확면적	0.79	0.88	0.70	0.73
단수(파운드/에이커)	7,580	7,812	7,914	8,038
생산량(백만 cwt)	59.8	68.6	55.3	59.0
기초재고량	12.0	10.1	14.7	10.5
수입량	2.5	2.4	2.5	2.5
공급량	73.1	81.7	72.5	72.0
전체 국내 및 기타 소비량	28.3	32.2	31.0	31.0
수출량	34.6	34.8	31.0	32.0
전체 소비량(국내+수출량)	63.0	67.0	62.0	63.0
기말재고량	10.1	14.7	10.5	9.0
기말재고율(%)	16.1	21.9	16.9	14.3
연평균 농판가격(달러/cwt)	18.80	17.10	16.20	17.00

전체 쌀 기말재고량은 공급량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5% 감소한 2,910만cwt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 감소분은 모두 중립/단립종 기말재고량 감소로 인한 것이며 중립/단립종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900만cwt로 전망된다. 중립/단립종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16.9%보다 낮은 14.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립/단립종 연평균 농판가격은 전년도 가격범위의 중간점인 \$16.20에 비해 상승한 \$17.00/cwt로 전망된다.

6. 2013/14 대두 수급 및 가격 전망

대두 수급 및 가격, 2010/11~20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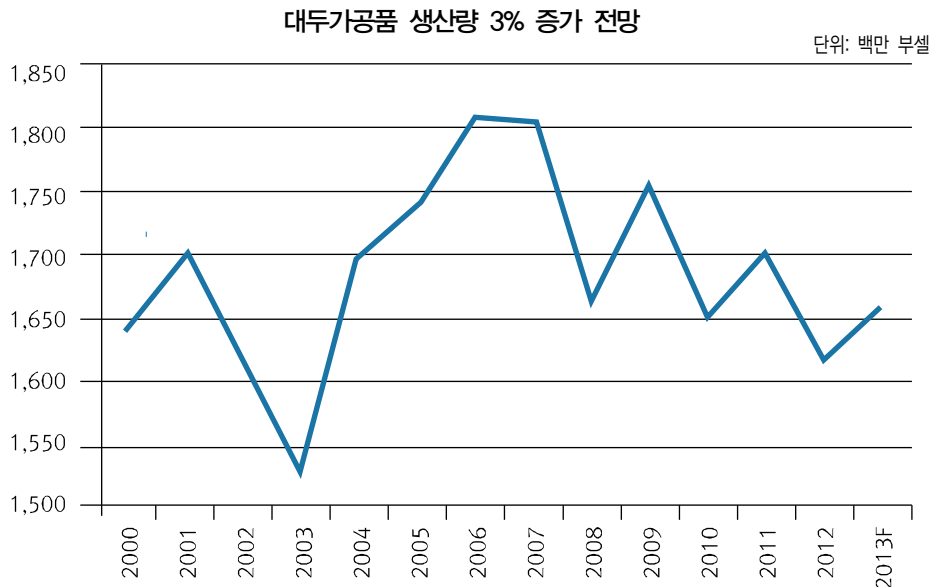
	2010/11	2011/12	2012/13(추정치)	2013/14(전망치)
재배면적(백만 에이커)	77.4	75.0	77.2	77.5
수확면적	76.6	73.8	76.1	76.6
단수(부셀/에이커)	43.5	41.9	39.6	44.5
생산량(백만 부셀)	3,329	3,094	3,015	3,405
기초재고량	151	215	169	125
수입량	14	16	20	15
공급량	3,495	3,325	3,204	3,545
가공품용 소비량	1,648	1,703	1,615	1,660
종자용 소비량	87	90	89	87
기타 소비량	43	1	30	48
전체 국내 소비량	1,779	1,793	1,735	1,795
수출량	1,501	1,362	1,345	1,500
전체 소비량(국내+수출량)	3,280	3,155	3,080	3,295
기말재고량	215	169	125	250
기말재고율(%)	6.6	5.4	4.1	7.6
연평균 농판가격(달러/부셀)	11.30	12.50	14.30	10.50

■ 대두 공급량 전망

2013/14년 대두 공급량은 기초재고량 및 수입량이 감소하나 생산량 증가분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전년대비 11% 증가한 35억 4,500만 부셀로 전망된다. 대두 생산량은 단수의 회복으로 인해 전년대비 13% 증가한 34억 500만 부셀로 전망된다. 대두 재배면적은 면화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적색연질밀 재배지역에서 2기작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확하지 않고 버려지는 면적이 평년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대두 수확면적은 전년대비 50만 에이커 증가한 7,660만 에이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평균 대두 단수는 가뭄피해로 낮은 수준이었던 2012년에 비해 4.9부셀 증가한 44.5부셀/에이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두 소비량 전망

대두 국내소비량은 전년대비 3% 증가한 17억 9,500만 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수출경쟁력이 증가하고 대두박의 국내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함에 따라 대두가공품(대두박+대두유) 생산량이 전년대비 4,500만 부셀 증가한 16억 6,000만 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래프 참조). 양돈업 및 양계업의 성장으로 인해 국내 대두박 사료용 소비량은 전년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가격이 하락하고 세계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대두박 가격 또한 하락할 것이다. 2013/14년 대두박 연평균 가격은 2012/13년 가격범위의 중간점이었던 \$445에 비해 대폭 하락한 \$300/숏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수급 및 가격, 2010/11~2013/14

	2010/11	2011/12	2012/13(추정치)	2013/14(전망치)
생산량(천 슛톤)	39,251	41,025	38,450	39,385
기초재고량	302	350	300	300
수입량	180	216	250	165
공급량	39,732	41,591	39,000	39,850
전체 국내 소비량	30,301	31,550	29,900	30,400
수출량	9,081	9,741	8,800	9,150
전체 소비량(국내+수출량)	39,382	41,291	38,700	39,550
기말재고량	350	300	300	300
기말재고율(%)	345.52	393.53	445.00	300.00
연평균 농판가격(달러/스톤)				

주: 1스톤은 0.907톤임

대두유 수급 및 가격, 2010/11~20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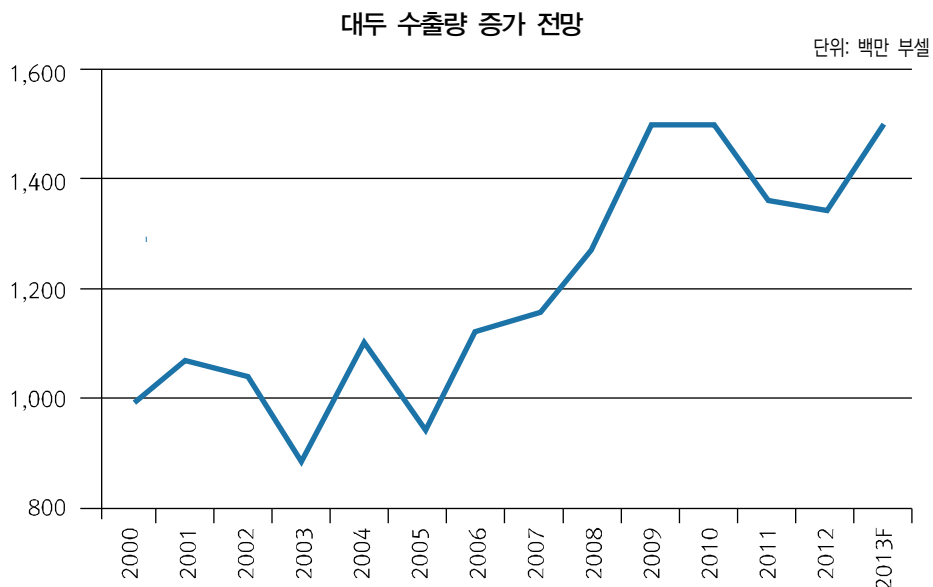
	2010/11	2011/12	2012/13(추정치)	2013/14(전망치)
생산량(백만 파운드)	18,888	19,740	18,975	19,090
기초재고량	3,406	2,425	2,540	1,665
수입량	159	149	350	250
공급량	22,453	22,314	21,865	21,005
전체 국내 소비량	16,795	18,310	17,900	18,000
- 바이오디젤용 소비량	2,737	4,870	4,900	5,200
- 식용, 종자용, 기타 산업용 소비량	14,058	13,440	13,000	12,800
수출량	3,233	1,464	2,300	1,300
전체 소비량(국내+수출량)	20,028	19,774	20,200	19,300
기말재고량	2,425	2,540	1,665	1,705
기말재고율(%)	53.2	51.9	51.0	51.0
연평균 농판가격(센트/파운드)				

주: 1파운드는 0.000454톤임

한편 2013/14년 대두유 공급량은 기초재고량의 감소로 인해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산 대두유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두유 국내소비량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8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바이오디젤 의무소비량이 12억 8,000만 갤런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대두유 국내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용 대두유 소비량은 전년대비 3억 파운드 증가한 52

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의 절반이 대두유를 원료로 한다. 한편 2013/14년 식용 대두유 소비량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128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두유 기말재고량은 약간 부족한 수준인 17억 1,000만 파운드로 전망되나 이는 전년대비 4,000만 파운드 증가한 수준이다. 2013/14년 대두유 가격은 평균 51센트/파운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두 수출량 전망



2013/14년 미국 대두 수출량은 공급량 증가 및 세계수요의 증가로 인해 15억 부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세계 교역량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남미의 수출가능물량이 전년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 될 것이므로 수출시장에서 미국과 남미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세계 대두 수요는 중국이 견인하고 있으며 중국은 통상적으로 세계 대두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한다. 2013/14년 중국 대두 수입량은 중국 대두가공산업의 발전, 식용 대두유 수요의 증가, 상업화된 사료(대두박의 함유율이 더 높음) 소비량 증가, 정부의 곡물 재고량정책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EU-27, 일본, 대한민국 등 다른 수입국들의 대두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두박 교역량은 EU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강세로 인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미국 대두박 수출량은 전년대비 4% 증가한 91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대두박 수출량은 가뭄피해를 입었던 2012/13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브라질과 인도의 대두박 수출량은 국내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두유 수출량은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전년대비 43% 감소한 13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두유 시장은 대두유 공급량이 증가한 남미 국가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공급량이 증가한 반면 바이오디젤용 대두유 소비량이 감소하여 수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 세계 팜유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대두유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인도 및 중국으로 선적되는 양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대두 기말재고량 및 농판가격 전망

2013/14년 미국 대두 기말재고량은 2억 5,000만 부셀로 전망된다. 이는 2006/07년 이후 최고수준이며 2012/13년 기말재고량의 두 배 수준이다. 대두 전체 소비량(국내소비량+수출량)이 전년대비 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말재고율은 5년 평균인 5%보다 높은 7.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7년 만의 최고수준이다. 대두 생산량 및 기말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옥수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연평균 대두 농판가격은 2012/13년 가격전망범위의 중간점인 \$14.30/부셀에 비해 하락한 \$10.50/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곡물시장 및 바이오연료 정책

전통적으로 곡물 생산 강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의 곡물 수급에 대한 현황을 조망하고자 한다. 브라질은 곡물의 시장가격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미국을 제치고 옥수수 제1의 최대 수출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곡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남미시장 뿐 아니라 세계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곡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브라질이 국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이오연료는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량의 곡물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간략한 현황 및 브라질 국가 정책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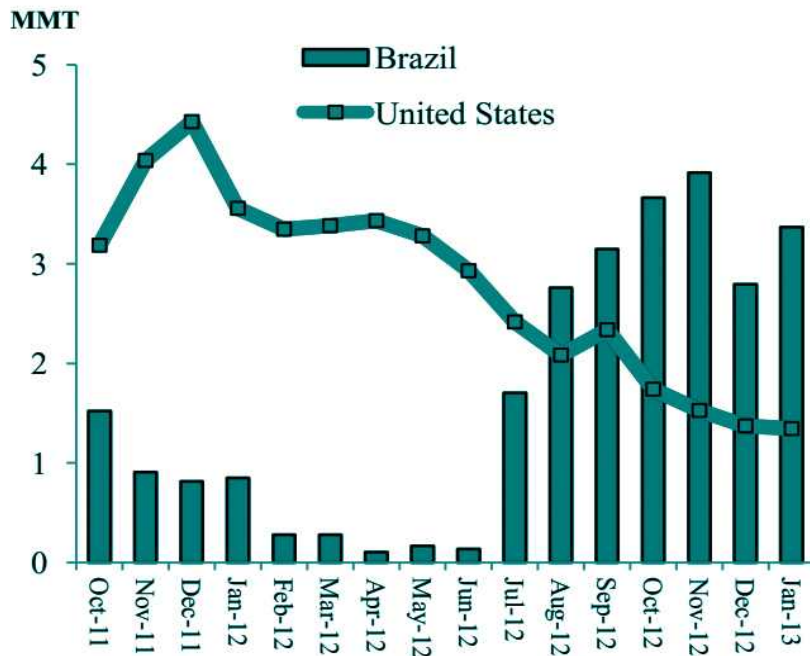
1. 곡물시장에서 브라질의 위상

■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량

미국 농무부의 해외농업처(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에서 매월 발간하는 “곡물: 세계시장과 무역(Grain: World Markets and Trade)”의 가장 최근호인 2013년 2월 보고서의 제목은 “브라질, 미국을 제치고 옥수수 최대 수출 국가가 되다(Brazil Usurps United States as Largest Corn Exporter)”이다.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세계 옥수수 무역에서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브라질에게 내주었다는 것이다(그림 1 참조). 최근 4개월 동안 브라질은 1,400만 톤에 달하는 옥수수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몇 가지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 브라질의 계속된 옥수수 대량 수확, 브라질 내의 옥수수 수요 감소, 수출 가능한 옥수수 양의 증가, 끝으로 2012년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한 미국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작성: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김승규 교수(sgkimwin@knu.ac.kr)

그림 1. 브라질과 미국의 월별 옥수수 수출 선적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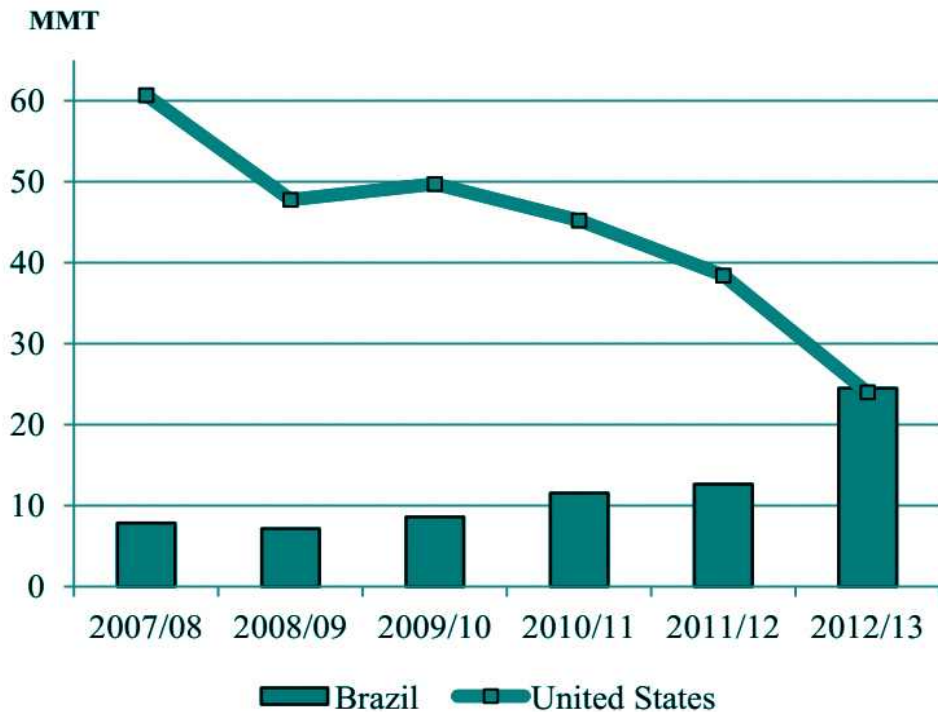


출처: Grain: World Markets and Trade, 2013년 2월, USDA FAS

* 2013년 1월의 미국 수출 선적량은 곡물 검역(Grain Inspections) 자료를 사용

이렇게 브라질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제 곡물 시장에서 가격이 주는 신호(signal)에 브라질 농민들이 반응하였기 때문이다.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에 따라 브라질 농민은 2011-2012년 옥수수 경작지를 대폭 증가시켰다. 게다가 브라질 내 가금류 산업에서 옥수수 사료에 대한 수요 감소는 수출 가능한 옥수수 공급량의 증가를 야기했다. 더불어 지난해 말에 대두 수출이 조기 마무리됨에 따라 옥수수 수출에 필요한 운송 기반시설(transportation infrastructure)이 확보된 점도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2. 브라질과 미국의 연간 옥수수 수출량 동향



그러나 주목할 만 한 점은 브라질의 옥수수 최대 수출국으로의 도약이 비단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브라질과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과거 5년 동안 꾸준히 상반된 양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국제 옥수수 시장에서의 수출 점유율(Market share)이 1979-1980년 84%로 정점에 달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2-2013년에는 25%의 시장점유율이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부진한 수출량과 더불어 미국의 옥수수는 국제 곡물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가오는 2013-2014년에는 미국의 옥수수 재배 면적 증가가 예상되고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다면 미국의 옥수수 가격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연간 추이를 살펴보면 브라질의 국제 곡물 시장에서의 지위가 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대표되는 남미의 세계 곡물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 브라질의 곡물 품목별 현황

■ 밀

2012-2013년의 브라질 밀 생산량은 430만 톤(metric tons)으로 추정되어 과거 5년간 최저의 수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큰 규모의 생산량 감소는 경작 기간의 서리와 강수에 의한 손실에 기인하였다.

리오그란데두술(Rio Grande do Sul)주(州)의 2012-2013년 밀 생산량은 예측되었던 250만 톤에 비해 23% 감소한 195만 톤으로 추정된다. 리도그란데두술주가 브라질에서 유일하게 밀의 경작지를 과거보다 5% 가량 증가한 지역임을 고려하면 2012년 12월 초의 수확량은 매우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밀의 개화와 알곡이 여무는 시기에 집중된 열악한 기후 상황으로 인해 양적으로는 196만 톤/ha로 단수가 대폭 감소했고 질적으로는 브라질 내에서 제분용 공급에 필요한 수준을 맞출 수 없게 되었다.

파라나(Paraná)주는 최근 2년에 비해 30% 가량 밀 경작지가 감소했다. 그러나 밀 경작지의 최근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파라나주의 협동조합(cooperative organization)은 브라질 전체의 밀 경작지가 500만ha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2012-2013년 밀 경작지의 2.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조합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밀 경작지의 잠재적 증가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적 지원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윤, 유동성 및 저위험 감수를 고려할 때 적절한 기후와 실제로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경우 밀 보다는 옥수수나 대두로 작목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경작지 축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파라나주 밀의 질적인 수준은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리오그란데두술주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의회에서는 2012년 12월에 밀, 밀가루, 프리믹스(pre-mixes)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PIS/Cofins 세(稅)에 대한 면제를 2013년 12월 까지 연장 승인하였다.

2012-2013년 브라질 밀 가격은 수확 전후 가격이 하락했던 과거의 양태와는 달리 1톤당 미화 370불 정도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고가로 형성된 밀 가격은 공급 부족이나 밀의 향상된 질 때문이 아닌데다 수확 시기의 전형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향후 밀 가공품의 가격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브라질은 2012-2013년에도 740만 톤의 밀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브라질 내 밀 생산량 부족과 소비 동향을 볼 때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된다.

전통적으로는 아르헨티나의 밀을 수입해왔으나 브라질의 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북미에서 250-300만 톤의 수입이 필요할 것이며, 적게 잡아도 150만 톤의 미국산 밀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 옥수수

2012-2013년 브라질 옥수수 경작지는 1,490만 헥타르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향 조정된 주요 원인은 2기작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이는 중서부지역에서 대두의 파종이 지연되어 수확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2기작 옥수수의 적시 파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브라질 전체 옥수수 생산량은 남부지역의 1기작 옥수수가 안정적인 생산성을 보임에 따라 7,250만 톤의 생산을 예측하고 있으나 4월의 강우량과 작목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마투그로수두술(Mato Grosso do Sul)주는 많은 농민들이 2기작 옥수수 파종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두의 파종 지연으로 인해 옥수수 파종도 지연된 결과 생산량이 6% 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파종 지연은 2기작 옥수수 파종 면적의 감소뿐 아니라 옥수수의 단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수는 강수량이 결정적 요소인데 2기작 옥수수 파종시기가 늦어지면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위험 부담이 커지므로 농민들은 늦은 시기의 파종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다. 옥수수 생육발달을 위해 2개월 동안 충분히 비가 내려야 하데 브라질에서는 계절적으로 4월 초부터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기작 옥수수 파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여전히 넓을 수준이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조기 성숙하는 대두종자를 재배하는 농민이 많기 때문에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되도록 빨리 옥수수를 파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종 적기를 넘어서서 3월 초까지도 파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2기작 옥수수의 최종 재배면적 수준은 경작 지역, 지역별로 기후와 관련된 위험성, 농민들의 위험에 대한 감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브라질의 국토와 각 주의 경계



출처: 코넬대학 공식 블로그 (blog.law.cornell.edu)

고이아스(Goias)주도 마찬가지로 낮은 강수로 인해 대두 파종이 지연되어 2기작 옥수수 파종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투그로수두술주의 농업 생산 허브인 루카스두리우베르드(Lucas do Rio Verde)군은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 공장의 건설을 위해 미화 1억 불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2012-2013년 브라질 옥수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초기 공장 가동으로 1억 9천만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하면서 48만 톤의 옥수수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부산물은 근방의 축산농가에 사료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브라질에서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두 번째 에탄올 생산 공장이며 이 두 시설은 모두 마투그로수두술주에 위치하고 있다.

2012-2013년 브라질 옥수수 수출량은 1,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전망치가 7,250만 톤이므로 수출량이 대량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1-2012년과 비슷한 수출

량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2013년 옥수수 생산량 수준에 따라 미국과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브라질은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옥수수 수출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옥수수 풍작임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수출량 수준이 많은 규모이므로 브라질 국내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옥수수와 관련하여 VEP(Value for Marketing Products Program), AGR(Federal Government Acquisitions Program), Troca(exchange program) 등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10월 말부터는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축산업자에게 브라질 농산물공급청 Conab(Companhia Nacional de Abastecimento)에서 옥수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신타가타리나 주의 축산업자들은 Conab으로부터 옥수수 1,200톤/일을 보조 받아왔다. Troca 프로그램은 옥수수를 구매하여 가뭄이 극심한 세아라주 북동부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VEP는 PEP(Product Outflow Program)의 자매 프로그램으로써 시장 가격이 최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Conab에서 PEP의 경매를 활용하여 개별 농가의 재고를 시장가격에 정부보조를 더한 지지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다. Conab의 경매는 정부 재고가 대상인 반면 PEP는 민간 재고를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브라질 정부는 5월 말경에 옥수수 50만 톤을 수매한 후 복수의 VEP 프로그램을 통해 북동부 가뭄피해 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또한 국내 공급량이 부족한 옥수수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마투그로수두술주, 고이아스주에서 대부분 수매되며 바히아주에서도 다소 적은 양이 수매되고 있다.

표 1. 2012년 VEP 옥수수 경매 현황

	경매물량(1,000톤)	판매물량(1,000톤)	프리미엄(달러)
6월	120.00	37.72	5,375,270
7월	54.34	5.97	803,808
8월	131.54	47.44	8,892,628
9월	90.02	44.07	7,198,234
10월	120.01	77.44	12,112,109
총계	515.91	212.64	34,382,048

출처: USDA FAS

2012년 브라질 옥수수의 최대 수입국은 이란이며 280만 톤을 수입하였고, 주로 미국에서 옥수수를 수입하는 일본 또한 240만 톤을 수입하였으며, 우리나라, 타이완, 이집트, 모로코,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중국 등이 8만 톤을 수입하였다.

■ 쌀

2012-2013년 브라질 쌀 재배면적은 240만ha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기술 개발로 인한 단수 증가로 1,200만 톤의 생산량이 전망된다.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쌀 관개농업에 필요한 강수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충분한 농업수가 확보되었고, 2012년 12월 중순에 파종된 이후 현재까지의 생육 상황을 볼 때 2012-2013년 풍작이 예측된다. 평균 단수는 750만 톤/ha이고 신타가타리나주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약 1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투그로수두술주는 앞으로도 비슷한 규모의 쌀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서 예전에는 쌀을 심기위해 척박한 개간지에 우선 대두를 파종한 후 1-2년 후 쌀을 재배했으나, 최근 대두 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종자가 개량되어 많은 농민들이 쌀을 배제하고 바로 대두를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마투그로수두술주의 농민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위치상 물류문제로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주요 쌀 곡창지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쌀의 시장 가격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0번 수확 중 5번이 이윤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쌀 생산농가의 부채율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농업기술 활용을 보조하는 농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브라질 국가금융협의회(National Monetary Council)는 농무부 장관이 제출한 2011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쌀 생산 관련 부채에 대한 상환유예안을 승인하여 5.5%의 이자율로 향후 10년간 상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쌀 생산량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2011-2012년과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부족한 수준이며 쌀의 수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에서 쌀 수입은 브라질 국내 생산량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10년 동안 연간 약 65만 톤을 수입하였다. 브라질은 쌀을 대부분 남미공동시장(Mercosul)의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부터 수입하는데 2012년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쌀 생산량은 16%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생산량 및 재고량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국에서 쌀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고량 관리와 농업 보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Conab은 Conab의 정부 곡물 재고를 국내외에 판매할 뿐 아니라 민간에게도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코넵PAR를 설치하였다. 브라질 관련 산업계에서는 이를 쌀의 수출을 원활히 하기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브라질은 현재 쌀에 대한 농장재고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최근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이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이미 예상수준을 넘어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농가들이 정부의 쌀 수매에 대부분 참여한 것 또한 재고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3. 브라질 곡물 수급의 변동성

주지하다시피 브라질을 중심으로한 남미는 세계에서 유통되는 곡물의 주요 생산국이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생산, 수출량 및 가격 경쟁력에서 여타의 수출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어 당분간 브라질 내의 옥수수 수급량이 세계 곡물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곡물이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물로서 토양의 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온도와 강수를 포함한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엘니뇨/라니냐 등 자연 현상의 과학적 분석과 예측을 통해 남미 곡물의 가격 수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인간의 개입이나 노력으로 수정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작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생산량을 예측하거나 수급량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브라질의 곡물 수급과 관련된 장단기의 브라질 내 정책적 요소들은 주어진 농업 환경 하에서 수출 물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 곡물시장 분석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고유가와 맞물려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바이오연료(biofuel)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곡물의 대량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바이오연료로서 소비되는 곡물의 규모는 시장의 역할보다는 국가의 보조 정책 등의 개입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곡물 시장의 정책 분석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 브라질의 바이오연료 생산 및 소비 현황

식물로부터 만들어지는 바이오연료는 크게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이 있다. 사용하는 원료를 기준으로 1) 곡물(옥수수, 밀, 수수, 사탕수수 등)을 이용하는 1세대 바이오연료, 2) 비식용 섬유소계 바이오매스(벼짚, 폐목재, 잡풀 등 농임산 부산물)를 이용한 2세대 바이오연료, 3) 수소 생산이 가능한 3세대 바이오연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브라질은 풍부한 곡물 생산량을 바탕으로 1세대 방식이 대부분의 공급을 차지하고 있고, 식량작물의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2세대 방식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2013년 생산 추정량은 각각 약 225억 리터와 28억 리터에 달하며 이에 소비되는 곡물의 양은 각각 2억 8,500만 톤과 900만 톤으로 예상된다(표 2, 3 참조).

표 2. 바이오에탄올 생산량

에탄올(기존 및 선진연료, 백만 리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초재고량	4,468	5,422	3,683	5,549	6,488	5,939
-생산량	23,582	22,201	24,516	20,212	19,971	22,500
-선진연료	0	0	0	0	0	0
-수입량	0	0	74	1,100	480	690
-수출량	3,044	1,118	562	1,083	1,000	1,000
-소비량	19,584	22,823	22,162	19,290	20,000	21,700
-기말재고량	5,422	3,683	5,549	6,488	5,939	6,429
생산용량(기존연료)						
-바이오연료 정제시설의 수	407	426	436	440	440	442
-생산용량	33,279	30,276	36,260	37,788	37,620	37,765
-가동율(%)	70.9	73.3	67.6	53.5	53.1	59.0
생산용량(선진연료)						
-바이오연료 정제시설의 수	0	0	0	0	0	0
-생산용량	0	0	0	0	0	0
-가동율(%)	0	0	0	0	0	0
부산물 생산량(기존연료, 1,000톤)						
부산물	0	0	0	0	0	0
주요연료(기존연료, 1,000톤)						
사탕수수	291,242	294,316	300,048	259,399	251,165	284,653
주요연료(선진연료, 1,000톤)						
주요연료 A	0	0	0	0	0	0

출처: GAIN report # BR12013, USDA FAS

표 3. 바이오디젤 생산량

바이오디젤-기존 및 선진연료(백만 리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생산량	69	404	1,167	1,608	2,386	2,673	2,700	2,760
-선진연료 생산량	0	0	0	0	0	0	0	0
-수입량	4	4	5	4	9	18	0	0
-수출량	4	3	1	3	8	6	0	0
-소비량	69	361	1,125	1,565	2,462	2,613	2,691	2,772
-기말재고량	0	45	90	135	60	132	141	129
생산용량(기존연료)								
-바이오연료 정제시설의 수	7	36	62	63	66	65	68	70
-생산용량(백만 리터)	300	1,800	3,600	4,350	5,837	6,742	7,100	7,100
-가동율(%)	23	22	32	37	41	40	38	39
생산용량(선진연료)								
-바이오연료 정제시설의 수	-	-	-	-	-	-	-	-
-생산용량(백만 리터)	-	-	-	-	-	-	-	-
-가동율(%)	-	-	-	-	-	-	-	-
주요연료(기존연료,1,000톤)								
가공용 대두	252	1,475	4,255	5,866	8,704	8,893	9,398	9,427
가공용 면화씨	15	86	248	341	506	851	568	585
동물성지방	9,730	57,012	164,570	226,742	336,492	401,994	402,331	414,364
주요연료(선진연료,1,000톤)								
주요연료 A	0	0	0	0	0	0	0	0

출처: GAIN report # BR12013, USDA FAS

■ 브라질의 바이오연료 지원 정책

브라질은 미국과 함께 바이오연료 산업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2011년에는 전 세계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의 약 25%를 공급하였는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생산, 공급, 유통, 수요 부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 부문에 있어 1976년부터 화석연료와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 배합 비율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동력엔진을 가진 차(flexible-fuel vehicles)가 2003년에 개발되어 2009년을 기준으로 신차의 90% 이상이 이러한 차량으로 출고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위한 정책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1,000cc가 넘는 배기량의 자동차에 있어 일반 석유연료만 사용가능한 차량들에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일반 차량과 바이오연료 차량의 배기량에 따른 세제 비교

일반 차량과 바이오연료 차량의 배기량에 따른 세제 비교						
연도	세제	1,000cc	1,001~2,000cc		2,000cc 이상	
		일반 차량, 바이오연료 차량	일반 차량	바이오연료 차량	일반 차량	바이오연료 차량
2004년~ 2007년	상품세	7	13	11	25	18
	유통세	12	12	12	12	12
	사회보장세	11.6	11.6	11.6	11.6	11.6
	소비자권장가격에 대한 비율(%)	27.1	30.4	36.4	36.4	33.1
2008년	상품세	0	6.5	5.5	25	18
	유통세	12	12	12	12	12
	사회보장세	11.6	11.6	11.6	11.6	11.6
	소비자권장가격에 대한 비율(%)	22.2	26.4	25.8	36.4	33.1
2009년	상품세	5/3*	11	7.5	25	18
	유통세	12	12	12	12	12
	사회보장세	11.6	11.6	11.6	11.6	11.6
	소비자권장가격에 대한 비율(%)	25.7/24.4*	29.2	27.1	36.4	33.1
2010년 1월~3월	상품세	7/3*	13	7.8	25	18
	유통세	12	12	12	12	12
	사회보장세	11.6	11.6	11.6	11.6	11.6
	소비자권장가격에 대한 비율(%)	27.1/24.4*	30	27.1	36.4	33.1
2010년 4월~2011년	상품세	7	13	11	25	18
	유통세	12	12	12	12	12
	사회보장세	11.6	11.6	11.6	11.6	11.6
	소비자권장가격에 대한 비율(%)	27.1	30.4	29.2	36.4	33.1

출처: GAIN report # BR12013, USDA FAS에서 재인용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브라질 북동지역의 약 20,000여의 사탕수수 소농에게 1톤 당 R1\$ (R1\$는 약 미화 50센트 정도)를 10,000톤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지역적인 생산비 불균형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운송용 연료의 18-25% 정도를 의무적으로 바이오에탄올로 사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만 사탕수수의 작황 문제로 2011년에는 이 수치가 25%에서 20%로 내려갔다. 또한 바이오에탄올 저장 시설에 약 2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여 100만ha에 달하는 사탕수수 농장을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2010년부터 모든 디젤에 5%이상 바이오디젤을 첨가하도록 의무

화되어 있고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디젤의 생산자에 대하여 원료용 대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바이오디젤 판매 시점까지 유예해주고 있으며 세율도 일반 세율도 일반 디젤에 비해 낮다(표 5 참조).

표 5. 일반 디젤과 바이오디젤의 세율

일반 디젤과 바이오디젤의 세율(레알/m ³)					
연료	바이오디젤 B100				일반 디젤
생산자 유형	가족농(PRONAF)		기타	기타	
지역	북부, 북동부, 반건조지대	기타	북부, 북동부, 반건조지대		
주원료	-	팜유, 파마자유	팜유, 파마자유		
PIS/PASEP	0.00	12.29	27.03		82.20
COFINS	0.00	54.46	124.47	146.20	379.30

출처: GAIN report # BR12013, USDA FAS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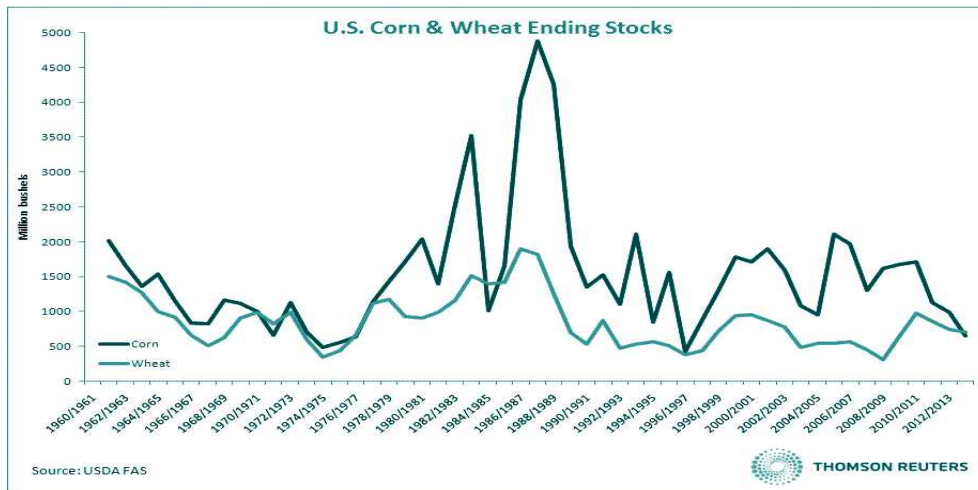
밀, 옥수수 기말재고량에 대한 고찰

■ 2012/13 밀, 옥수수 기말재고량 전망

2013년 2월 22일 미국 농무부(USDA)의 “2013 Agricultural Outlook Forum”에서 발표된 전망치에 의하면 2012/13연도 밀과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각각 6억 9,100만 부셀과 6억 3,200만 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망이 현실화 될 경우 이번 양곡 연도 말 미국 옥수수 재고량은 밀 재고량보다 적은 수준이 될 것인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처음 발생하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미국에서 옥수수는 밀에 비해 재배면적이 80% 더 많고, 평균단수는 두 배이므로 통상적으로 생산량이 약 네 배 정도 더 많다. 2012년 미국 옥수수 생산량은 밀 생산량에 비해 84억 부셀 더 많았다. 한편 옥수수에 대한 수요 역시 통상적으로 밀에 비해 네 배 이상 더 많다. 그러나 밀 재고량이 옥수수에 비해 많았던 적은 금년을 포함해 1960년 이후 단지 네 차례에 불과하며, 금년에 이러한 현상이 전망되는 이유는 가뭄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급감한 가운데 밀의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 이후 미국 옥수수와 밀 재고량

단위: 백만 부셀



주: 옥수수(위), 밀(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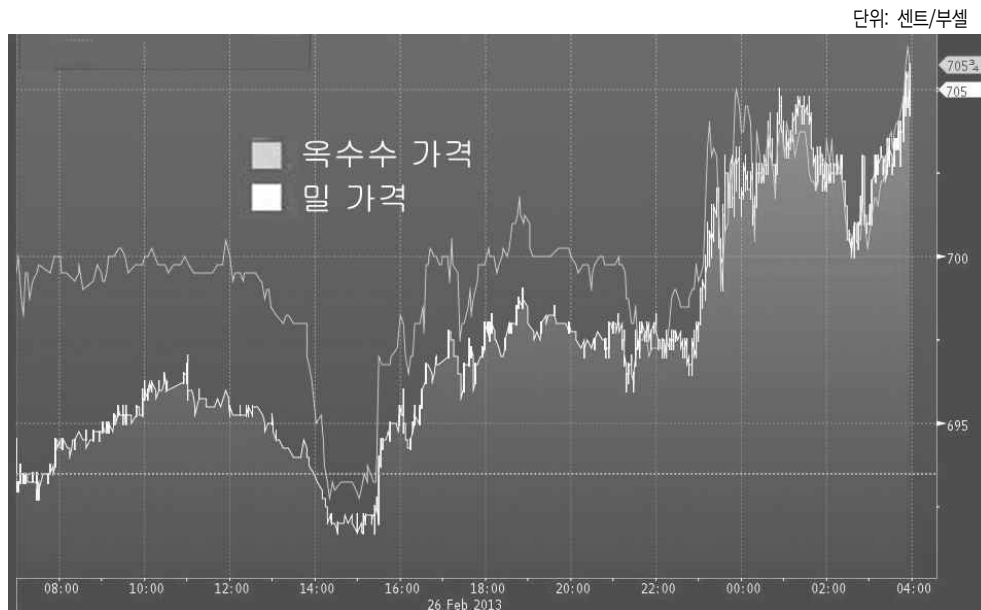
* 본 내용은 로이터통신의 2012년 11월 13일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됨.

■ 밀, 옥수수 가격 차이

이 같은 상황은 밀과 옥수수의 가격 차이에도 반영되어 있다. 밀은 통상적으로 옥수수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는 옥수수가 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 재고량이 옥수수 재고량보다 많게 될 경우 공급 측 요인으로 인해 밀과 옥수수 사이의 가격 차이는 줄어들거나, 옥수수 가격이 밀에 비해 높아진다.

2013년 2월 26일 장중 시카고거래소 옥수수 3월물 선물가격은 밀 3월물 선물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었다. 이는 옥수수 공급량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색연질밀(SRW) 구곡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26일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밀, 옥수수 3월물 일종가격



자료: 블룸버그

옥수수 가격이 밀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경우 대표적인 사료작물로 소비되는 옥수수가 사료용 밀로 대체되기 시작할 것이다. USDA는 2013 Agricultural Outlook Forum에서 구곡 옥수수 공급량이 수확 직전 극심하게 부족해질 것이므로 여름(6월~8월) 동안 2013/14년 사료용 밀 소비량의 대부분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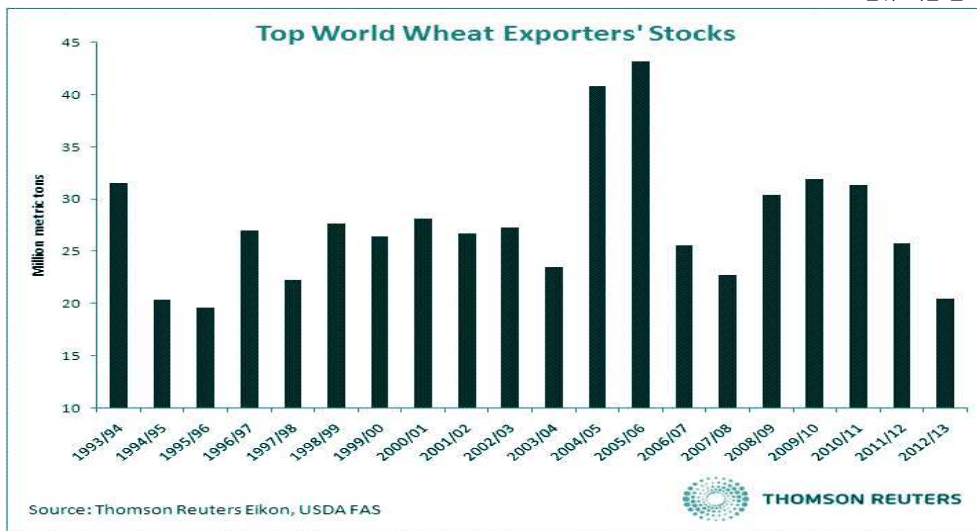
이는 특히 2013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사료용 밀 가격이 옥수수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 재고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러나 양곡연도 말까지 옥수수 시장과 밀 시장에 다음과 같은 여러 변수들이 있으므로, 약 25년 만에 밀 재고량이 옥수수 재고량에 비해 많아지는 예외적 상황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첫째, 미국 옥수수 가격이 너무 높아 미국산 옥수수 대신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의 옥수수가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옥수수 재고량의 감소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밀 시장의 변수가 있다. 현재 미국산 적색연질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USDA는 또한 2012/13 세계 주요 밀 수출국가들(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EU)의 밀 재고량이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1995/96 이후 최저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국의 밀 재고량은 2011년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으나 6억 부셀 이상이며, 과거 10년 데이터에 근거해 볼 때 기말재고율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세계 밀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특히 적색연질밀을 중심으로 미국 수출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밀 기말재고량이 예상보다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밀 수출국가들의 재고량

단위: 백만 톤



자료: 로이터

미국 밀 재고량 및 기말재고율



자료: 로이터

미국 경질밀과 연질밀

■ 미국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의 종류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SRW(적색연질밀)

겨울밀 중 적색연질밀(Soft Red Winter)은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수확하며,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체 밀의 20~25%이다. 주산지는 미국 중서부의 동쪽과 남동부에 위치한 일리노이, 미주리,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이다. SRW는 단백질 함유량이 적으며(10~11.5%) 사료용 또는 제과류의 원료로 쓰인다. 대부분 멕시코만을 통해 선적된다. SRW의 주수입국은 멕시코, 이집트이다.

캔자스시티거래소(KANSAS CITY BOARD OF TRADE): HRW(적색경질밀)

겨울밀 중 적색경질밀(Hard Red Winter)은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수확하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종류의 밀로 총 생산량의 40~45%에 해당한다. 주산지는 미국 대평원으로, 텍사스에서부터 노스다코타에 이르는 지역이며 캔자스 주는 미국에서 HRW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이다. 캐나다에서도 많이 재배한다. HRW는 제빵류의 원료로 쓰이거나 낮은 등급의 밀과 혼합하는데 이용된다. 단백질 함유율은 11~14%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멕시코만을 통해 선적된다. HRW의 주수입국은 동아시아 지역이다.

미니애폴리스곡물거래소(MINNEAPOLIS GRAIN EXCHANGE): HRS(적색경질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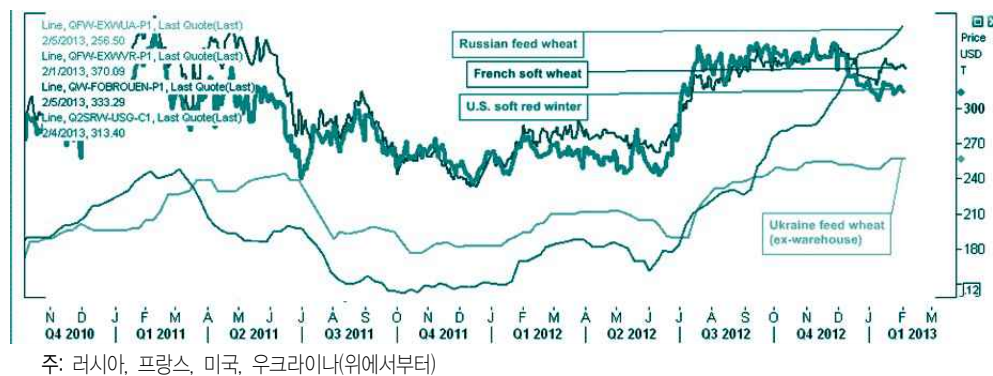
미니애폴리스곡물거래소는 밀만 거래하는 거래소이다. 봄밀 중 적색경질밀(Hard Red Spring)은 봄에 파종하여 늦여름에 수확하며 미국 전체 밀 생산량의 20~25%에 해당한다. 주산지는 미국 대평원 북부와 캐나다이다. 노스다코타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 단백질 함유율이 13~15%로 높으며 제빵류의 원료로 쓰이거나 낮은 등급의 밀과 혼합하는데 이용된다. HRS는 대부분 태평양 북서부연안의 터미널을 통해 수출된다. HRS의 주수입국은 동아시아 지역이다.

■ 미국 밀 수출 동향

* 본 내용은 로이터통신의 2012년 10월 18일 기사, 2013년 2월 4일 기사, 2013년 2월 6일 기사, 2013년 2월 8일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됨.

2013년 2월 3일까지 미국 전체 밀 주간 수출량은 약 62만 4,000톤으로 대두의 주간 수출량인 110만 톤에 비하면 큰 수량은 아니다. 그러나 전월의 평균수출속도가 현재 수출속도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므로 최근의 밀 수출속도는 확실히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출이 회복된 주 이유는 12월 이후 미국산 밀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주요수출국가인 러시아와 프랑스의 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과 다른 주요수출국의 연질밀 가격 비교(달러/톤)



미국과 다른 주요수출국의 경질밀 가격 비교(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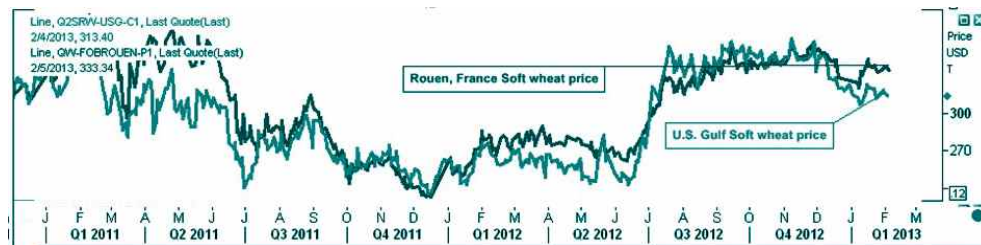


2월 5일 현재 주요 밀 수입국인 이집트 시장을 기준으로 한 미국산 연질밀(SRW) 인도가격은 프랑스산 밀에 비해 운임비가 톤당 10달러 이상 더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저렴한 수준이다.

미국, 프랑스의 SRW '이집트 인도가격' 비교(달러/톤)



프랑스, 미국 SRW 가격 비교



주: 프랑스 Rouen 가격, 미국 멕시코만 가격

미국, 프랑스 이집트 운임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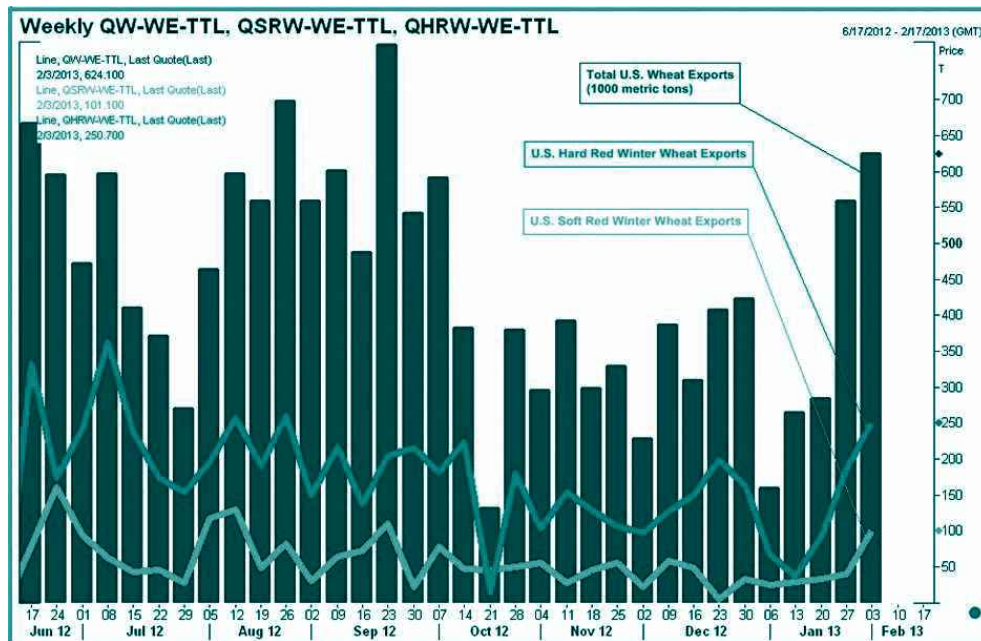


주: 미국(상단), 프랑스(하단)

현재까지 수출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적색연질밀(SRW)과 사료등급 밀이며 적색경질밀(HRW)이나 제분밀의 수출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이번 양곡연도 현재까지의 수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적색연질밀의 수출량은 2008/09 연도 이후 최고속도에 가까운 반면 적색경질밀 수출량은 수년 만의 최저수준에

가깝다. 또한 2013년 초부터 2월 6일까지 적색연질밀(SRW) 수출량이 적색경질밀(HRW) 수출량을 능가하고 있으며 적색경질밀은 판매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많이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이후의 밀 수출량(1,000톤)



주: 전체 밀 수출량(막대그래프), HRW(빨간선 상단), SRW(빨간선 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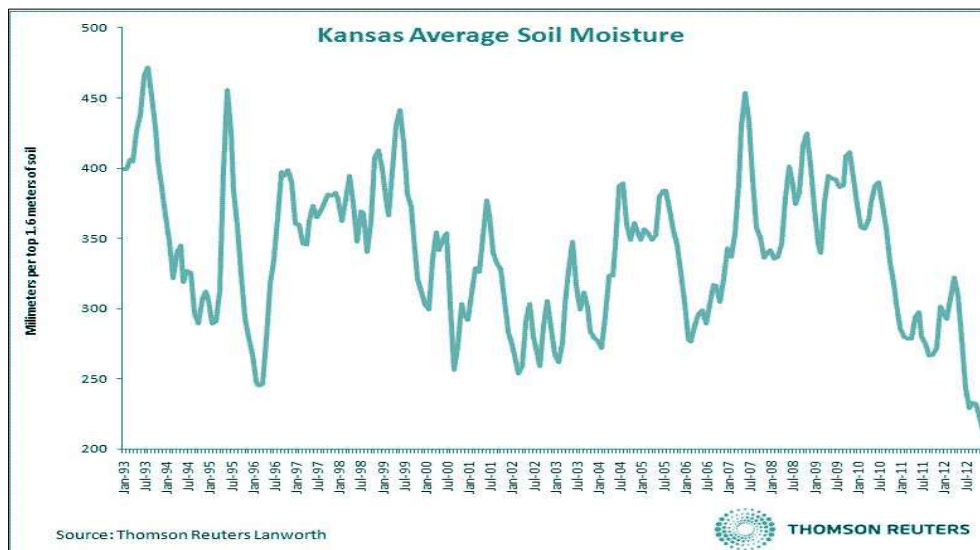
■ 2013년 미국 경질밀과 연질밀 작황 및 공급 양상

시카고상품거래소를 운영하는 CME 그룹은 캔자스시티상품거래소를 매수합병하며 캔자스시티거래소의 적색경질밀(HRW) 선물계약과 시카고거래소의 적색연질밀(SRW) 선물계약을 한 시장에서 취급하여 전체 미국 겨울밀 선물시장을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2013년 경질밀과 연질밀 시장은 공급상 이유로 인해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색경질밀은 최악의 상황에서 동면기에 진입한 반면에 적색연질밀 작황은 수 년 만의 최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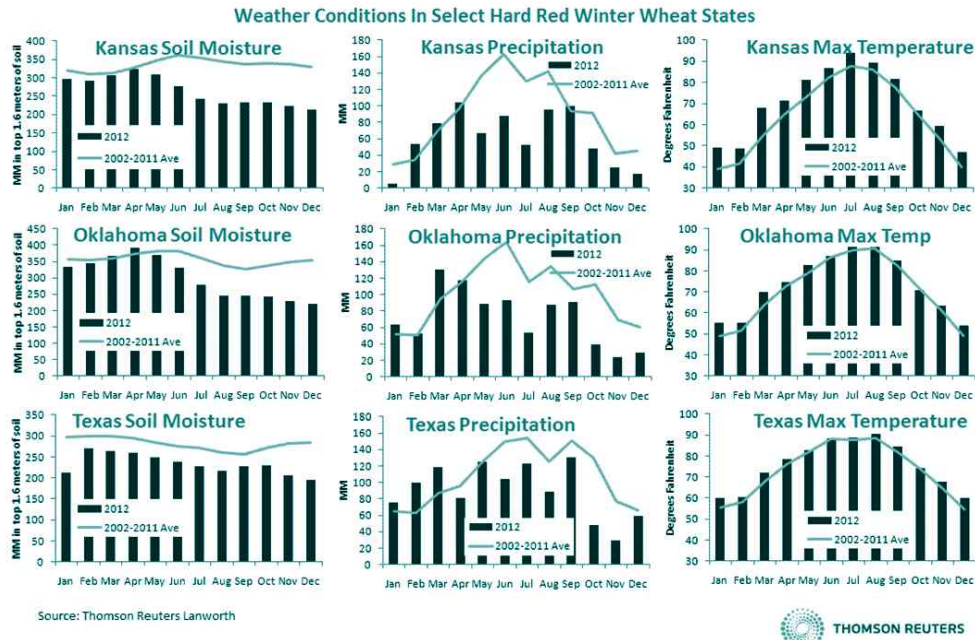
2012년 모든 작물이 가뭄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대평원 서부는 가뭄 피해를 심하게 입었으며 현재까지 토양이 건조한 문제를 겪고 있다. 여름 내내 타는 듯한 고온과 평년

에 못 미치는 강수량이 지속된 결과 캔자스 주에서는 저수량이 고갈되었고 토양수분이 20년 만의 최저수준이 되었다. 1월 31일 가뭄모니터 보고서에 의하면 적색경질밀(HRW) 주산지인 캔자스,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주 면적 100%가 심각한 가뭄 또는 그보다 심한 상황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겨울밀의 제1주산지인 캔자스 주의 겨울밀 작황등급은 1월 27일 기준 좋음/아주 좋음 등급이 20%로 12월 말에 비해 4%p 감소했다. NASS 캔자스 사무소에 의하면 캔자스 주에서는 12월 동안 강수량이 1인치 이상 내린 곳이 없었다고 한다. 캔자스 주의 기온은 평년대비 2~5℃ 높아 토양수분을 더욱 고갈시켰다.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월 강수량이 0.25인치에 못 미쳤으며 가뭄이 거의 해결되지 못했다. 네브라스카 주 겨울밀의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8%로 전월의 14%에서 하락했다.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건조한 토양으로 인해 봄에 파종하는 옥수수 와 대두도 피해를 볼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평원 북부에도 건조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겨울밀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겨우 3%이다. 토양이 건조하면 동면기 중에도 겨울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봄에는 발아가 저해된다. 또한 건조한 토양은 바람으로 인한 토양유실에도 취약하여 작황에 추가적인 피해를 준다.

캔자스 주 토양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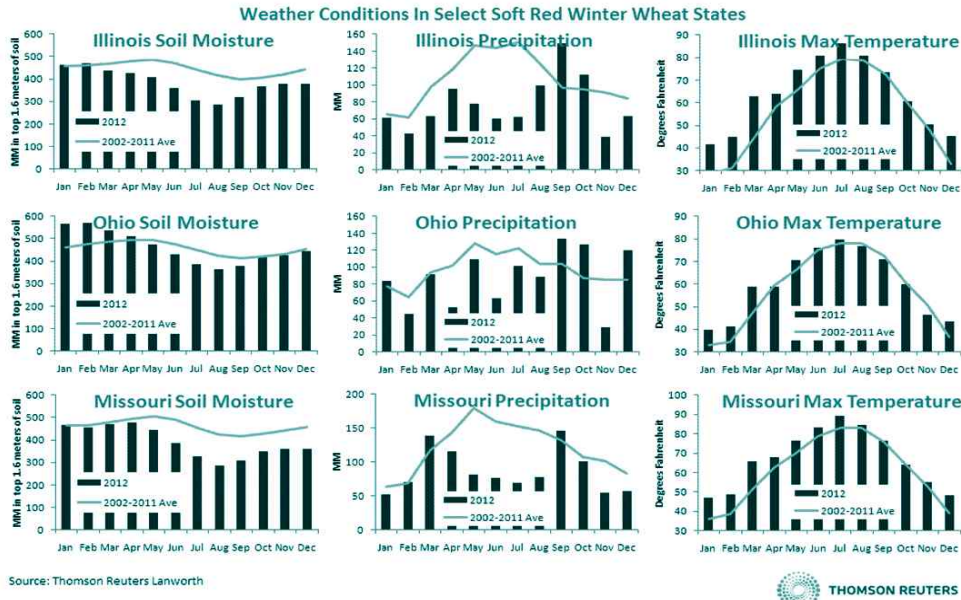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주의 토양수분, 강수량, 최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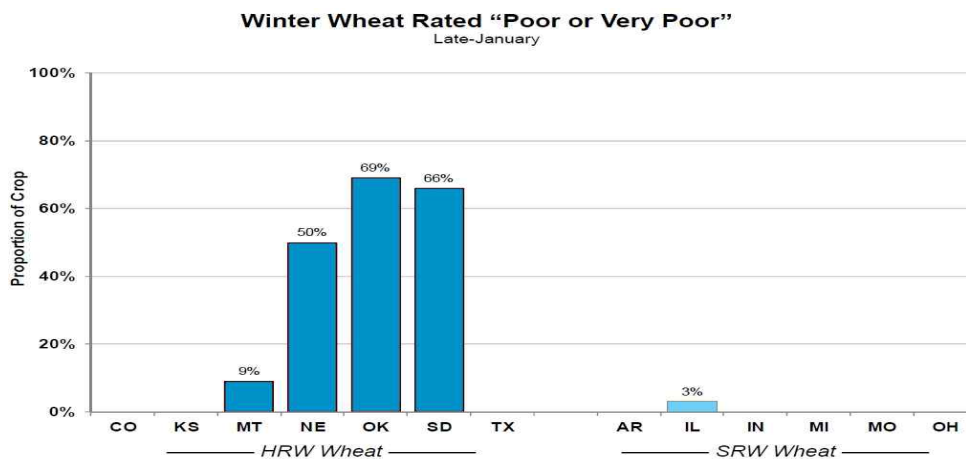
이와 같이 콘벨트 서부지역이 악천후와 토양수분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콘벨트 동부는 2012년 여름 이후 기후가 대폭 개선되었다. 적색연질밀 최대 재배지역인 일리노이, 미주리, 오하이오 주는 2012년 동안 적색경질밀 재배지역에 비하면 기후가 나빠지 않았다. 콘벨트 동부에는 최근 비가 내렸고 2013년 봄 강수확률이 증가했으며 향후 수개월 동안 작황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리노이, 미주리, 오키오 주의 토양수분, 강수량,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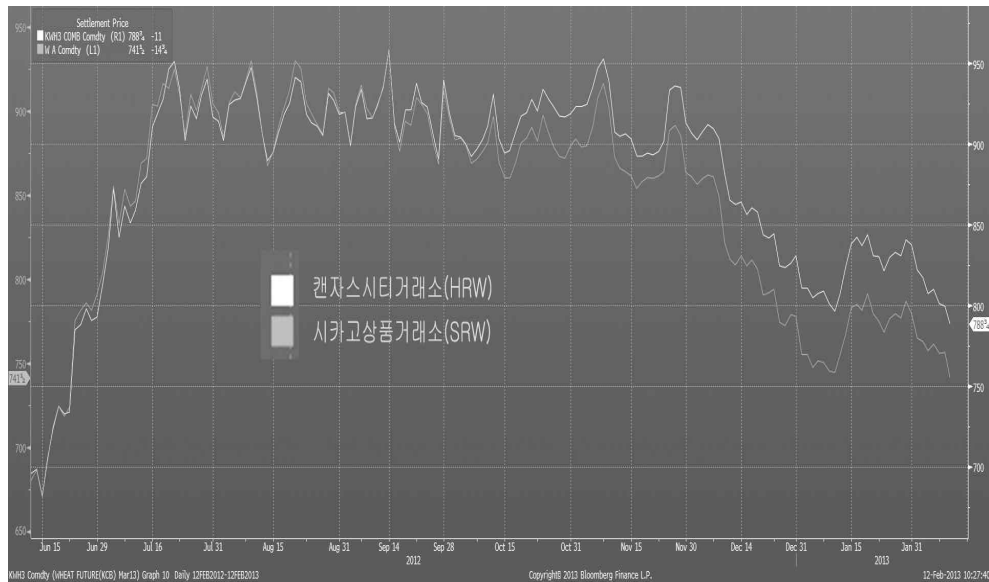
2012년 미국 중서부의 동쪽지역이 가뭄피해를 덜 받은 결과 적색연질밀과 적색경질 밀 사이의 작황등급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색경질밀 3대 주산지의 겨울밀 작황등급은 수 년 만의 최저수준으로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주에서 재배하는 거의 대부분의 밀이 나쁨/매우 나쁨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별 겨울밀 나쁨/아주 나쁨 등급 비교(1월 27일 기준)



이에 따라 적색경질밀(HRW)에 대한 선물가격을 대표하는 캔자스시티거래소 가격과 적색연질밀(SRW)에 대한 선물가격을 대표하는 시카고거래소 가격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캔자스시티거래소의 밀 가격이 시카고거래소 밀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캔자스시티거래소 및 시카고거래소 밀 가격 차이
(2012년 6월 13일~2013년 2월 11일, 센트/부셸)



자료: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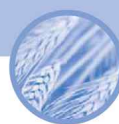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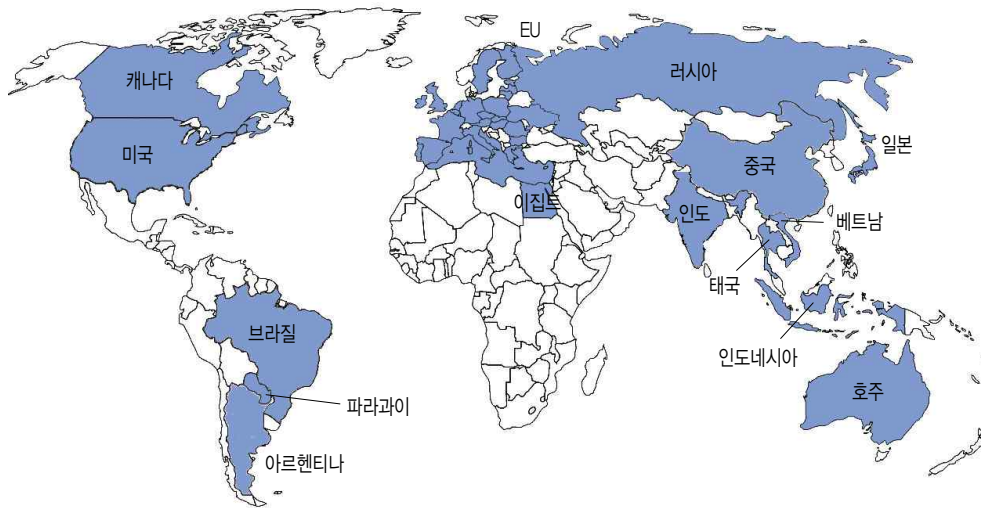
part

0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2013 World Grai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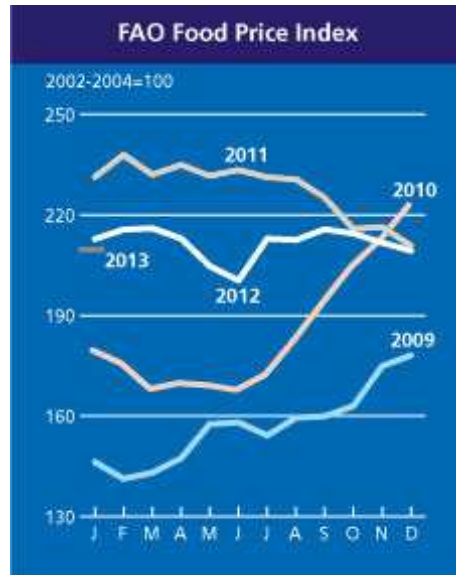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미국 바이오디젤 세제혜택 2013년까지 연장 가뭄피해 후 미국 옥수수 농가 윤작 실시 미국, 바이오에탄올 의무사용량 증량 미국 주산지 가뭄피해면적 축소	브라질 브라질 대두 비로 인해 품질 하락 브라질 항만 파업자들 중국 상선 점유
캐나다 호주 생산량 감소로 캐나다 밀 수출량 급증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건조기후, 대두 작황 위협 아르헨티나, 2012/13 밀 수출할당량 3월에 조정 아르헨티나 대두, 옥수수 수분 더 필요한 상황
	파라과이 파라과이 대두 가뭄피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국 12월 중국 대두 수입량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 해관총서, 2012 중국 옥수수 및 쌀 수입량 기록적 수준 중국, 수입량 급증으로 식량자급목표에 대해 재논의 중 중국, 식량 증산위해 농지개혁 가속화	러시아 러시아, 곡물수입관세 유예조치 실행 러시아 남부 겨울밀 작황피해 발생
베트남 베트남 1월 쌀 수출량 40만 톤으로 급증	EU EU, 미국산 에탄올 전체에 대해 반덤핑관세 제한 2013 유럽 밀 작황 현황
인도 인도, 밀 수출량 증량 고려	이집트 이집트, 밀 수입목표량 감축 이집트, 예산 부족으로 밀 입찰 체계 재검토
인도네시아 쌀 증산 위해 농지 용도변경 금지 초안 제정 인도네시아, 양식사료수요로 인해 대두박 수입량 연간 5% 증가	호주 호주 동부 밀 단백질함유율 평년보다 낮은 수준 호주, 7월이면 밀 재고량 부족해질 듯
일본 일본, 사료곡물 재고량 44% 증량 계획	

■ FAO, 2012년 평균 식량가격지수 하락했으나 2013년 식량가격 높은 수준 전망

2009~2013년 FAO 식량가격지수



자료: <http://www.fao.org>

UN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2013년에도 식량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낮은 재고량수준으로 인해 작황이 악화될 경우 가격 급등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2012년 여름동안 식량가격이 상승하여 2008년 애그플레이션의 재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FAO 식량가격지수가 12월에 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고 12월 식량가격 지수는 6월 이후 최저수준이 되었다. 곡물 가격의 하락을 주도한 것은 대두로, 대두 가격은 남미의 생산량이 기록적인 수준이 될 전망에 근거하여 하락하고 있다.

FAO의 식량가격지수는 곡물, 유지작물, 유제품, 육류, 설탕 가격의 매월 변동폭을 측정하며, 2013년 1월의 식량가격지수는 210포인트로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연평균 식량가격지수는 212로 설탕, 유제품, 유지류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1년 대비 7% 하락한 수준이나 여전히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FAO 선임경제학자인 Abdolreza Abbassian은 현재 식량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2013/14연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고량은 낮은 수준인 반면에 2013/14연도 세계 경기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월에 FAO는 2013년 세계 곡물 기말재고량이 4억 9,5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이전 추정치대비 5% 감소한 수준이었다.

Abbassian은 예상하지 못한 각국의 조치가 식량위기 상황을 악화시켰던 2008년과는 달리 2012년에는 세계적인 공조가 잘 이루어져 수출금지조치를 방지했으므로 상황이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남반구의 옥수수과 대두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북반구의 공급부족상황이 완화되어 공급충격(supply shock)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밀의 경우 소비량이 많으나 시장에 고품질 밀의 공급량이 부족하여 여전히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바이오디젤 세제혜택 2013년까지 연장

2013년부터 자동적으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증세를 시작하는 소위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막판 협상안이 미국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에는 2013년 말까지 바이오디젤에 대해 갤런당 1달러의 세제혜택(소득세 환급)을 연장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을 실행하면 총 20억 달러 이상의 정부지출이 소요된다.

9월~10월 유통연도 기준으로 미국 전체 대두유 생산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약 49억 파운드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오디젤 생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국회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산하는 디젤연료에 대한 갤런당 1달러의 세제혜택의 연장, 그리고 영세 바이오디젤 가공업자에 대한 갤런당 10센트의 세제혜택의 연장 또한 통과시켰다. 이를 실행하면 향후 10년간 총 22억 달러의 정부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초목에서 추출할 수 있는 셀룰로오스, 그리고 해초를 원료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때 갤런당 1.01달러의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실행하면 1년간 총 5,900만 달러의 정부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가뭄피해 후 미국 옥수수 농가 윤작 실시

미국 옥수수 주산지의 생산농가들은 2012년 옥수수 이후 옥수수를 다시 심은 경우의 2기작 옥수수에 대한 가뭄 피해가 가장 심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윤작 대신 윤작으로 돌아서고 있다. 2012년 아이오와와 일리노이에서 생산한 옥수수는 미국 옥수

수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은 지난 수년간 옥수수만 연작해 왔다. 그러나 2013년 봄에 아이오와와 일리노이의 일부 재배면적에서 대두가 파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뭄이 2013년에 재발할 잠재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옥수수 주산지에서 옥수수 대신 대두를 심는 것은 이미 높은 수준인 세계 옥수수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계 1위의 수출국인 미국의 옥수수 재고량이 금년 여름 말 기준으로 17년 만의 최저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옥수수 가격은 상승해 왔는데 이는 에탄올 부문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양 영양분이 고갈되고 단수가 감소되에도 불구하고 같은 농지에 계속해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옥수수의 연작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왔다. 2012년 전년에 옥수수를 재배했던 농지에 다시 옥수수를 재배한 경우 가뭄피해로 단수가 40% 감소했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농경제학자 Mike Duffy는 2012년 옥수수를 연작한 경우 단수가 평균 165부셀/에이커였던 반면 대두 이후 옥수수를 윤작한 경우 단수는 평균 180부셀/에이커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아이오와 주에서 옥수수를 연작한 경우 옥수수 생산비용은 부셀당 \$4.94로 대두와 옥수수를 윤작한 경우의 비용에 비해 70센트 더 높았다. Mike Duffy에 의하면 이는 연작으로 토양 영양분이 감소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비료가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3년 옥수수 재배면적이 거의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라보뱅크(Rabobank)의 아그리비즈니스 연구소 부소장 Sterling Liddell에 의하면 아이오와 및 일리노이의 재배면적은 감소한 반면 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미시시피 강 삼각주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미국 전체의 옥수수 단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가격상승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현재 재고량이 너무나 부족하여 생산량 감소의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보뱅크에 의하면 아이오와 및 일리노이에서 2013년 옥수수 대신 다른 작물을 파종한 면적이 최대 100만 에이커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오와 및 일리노이의 지난 5년간 단수 평균으로 추정해 보면 이는 2013년 미국 옥수수 생산량에서 3억 2,000만 부셀이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2012년 아이오와 주에서 옥수수 재배면적은 1,420만 에이커였으며 일리노이 주에서는 1,280만 에이커였다.

미국 농업부(USDA)는 3월 보고서에서 2013년 옥수수 생산량 및 재배면적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징후들을 보면 2013년 미국 옥수수 재배면적은 옥수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기록적으로 넓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몬산토 사는 지

난주 2013년 옥수수 재배면적이 2012년보다 1% 감소한 9,600만 에이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라보뱅크는 2013년 옥수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0.5% 증가한 9,760만 에이커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36년(재배면적 1억 195만 에이커) 이후 최대수준이다.

■ 미국, 바이오에탄올 의무사용량 증량

오바마 행정부는 1월 31일 제출한 법안에서 바이오연료 할당량을 9% 증량하자고 제안했다. 증량되는 13억 5,000만 갤런 중 절반은 바이오에탄올이며, 27억 5,000만 갤런은 1세대 바이오에탄올에 비해 온실가스를 절반만 배출하는 '선진(advanced)' 바이오연료이다. 선진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 중 1,400만 갤런은 풀, 관목, 나무 등 셀룰로오스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이다.

제출된 법안에 의하면 승용차 및 소형트럭 운송용 연료시장에서 바이오연료는 165억 갤런의 의무사용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 의무사용량 목표는 2022년에 360억 갤런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중 절반은 선진 바이오연료에 대한 의무사용량이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2013년 바이오디젤 의무사용량을 별도로 12억 8,000 갤런으로 설정했었다. 바이오디젤은 '선진' 바이오연료로 간주된다. 무역업자들은 2013년 '선진'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에 대해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브라질산 바이오에탄올과 미국산 바이오디젤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호국은 또한 RINs(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s: 재생연료 식별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연료회사들은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1갤런당 부여되는 RINs를 사용한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산업에서는 '위조' RINs의 문제가 계속 존재했다.

미국 옥수수의 40%가 에탄올 원료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가격이 급등하면서 에탄올 생산업자, 축산업자, 곡물 수출업자들은 부족한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야 했다. 그러나 2012년 가을 미국 정부는 축산업의 비중이 크거나 원유를 생산하는 여러 주에서 발안한 에탄올의무사용법의 유예요청을 기각했다.

한편 에너지부에 의하면 2012년 하반기 동안 미국 에탄올 생산속도는 높은 옥수수 가격 및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둔화되었다. 2012년 평균 에탄올 가격은 2011년 평균에 비해 8% 하락했다. 이와 같은 에탄올산업의 부진은 2013년에도 계속되었다. 1월 25일 까지 주간 에탄올 생산량은 2년 만의 최저수준이었고 4주간의 평균 생산량을 기반으로

계산해 보면 연간 에탄올 생산량은 122억 갤런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의무사용량인 136억 갤런에 비해 대폭 부족한 수준이다. 1월 31일 기준으로 미국 에탄올 생산능력의 15%에 해당하는 약 36여개의 에탄올 공장이 가동하지 않고 있다. 재생연료협회(RFA)의 Dinneen은 에탄올을 충분히 구매할 만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미국 주산지 가뭄피해면적 축소

2월 14일 발표된 주간 가뭄모니터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에 내린 눈과 비로 미국 주산지의 가뭄이 소폭 완화되었다고 한다. 2월 12일 기준으로 고원(High Plains)은 지난 주 동안 가뭄이 소폭 해갈되었으나 여전히 가뭄피해를 심하게 받고 있으며 심각(severe) 또는 그 이상의 가뭄피해면적이 82.51%로 전주의 87.25%에 비해 감소했다. 캔자스 주에서 최악의 가뭄수준인 이례적인(exceptional) 가뭄피해면적은 전주와 동일한 36.16%이며 두 번째로 심한 가뭄수준인 극도의(extreme) 가뭄피해면적은 전주의 79.54%에서 감소한 75.36%가 되었다. 네브라스카 주는 전주와 동일하게 이례적인 가뭄피해면적이 약 77.47%이며 극도의 가뭄피해면적은 96.28%이다. 콜로라도 주는 이례적인 가뭄피해면적은 전주와 동일한 24.92%이나 극도의 가뭄피해면적은 전주의 54.29%에서 50.99%로 감소했다. 오클라호마 주는 이례적인가뭄피해면적이 39.58%로 전주와 동일하나 극도의 가뭄피해면적은 전주의 89.64%에서 87%로 감소했다.

■ 호주 생산량 감소로 캐나다 밀 수출량 급증

캐나다 밀 수출량은 6년 만의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캐나다의 밀이 풍작이고 경쟁상대인 호주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2년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은 미국이었으며 호주는 2012년 러시아와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2위의 밀 수출국이였다. 그러나 호주의 2013년 밀 생산량은 전년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 캐나다산 밀이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농업식품부(AAFC: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는 2012/13양곡연도 캐나다 전체밀 수출량이 1,87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06/07년 이후 최대수준이다. 이 수출량 중 대부분은 양곡연도(8월 1일~7월 31일) 하반기에 선적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곡물위원회(Canadian Grain Commission)에 의하면 양곡

연도 초반 5개월 동안(8월~12월) 캐나다 전체 밀(보밀, 듀럼밀, 겨울밀) 수출량은 약 760만 톤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다.

통상적인 캐나다산 밀 구매국인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는 올해 전년대비 더 많은 밀을 수입했다. 캐나다 농업식품부의 밀 담당 Stan Skrypetz에 의하면 현재 캐나다에서 밀을 수입하고 있는 회사들은 모두 호주에서 밀을 수입했었는데 이들이 올해 캐나다에서 밀을 수입하는 이유는 호주의 밀 생산량이 전년대비 대폭 적은 수준이므로 다른 곳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2/13 호주 밀 생산량은 2월 12일 2,207만 7,000톤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년대비 26% 적은 수준이다. 호주와 러시아가 불리한 기후로 인해 밀 생산량이 감소한 결과 인도 또한 금년에 극적으로 많은 수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밀 수출량 전망치는 아직 캐나다 밀 수출량 전망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3년 캐나다 밀 수출속도가 가속화 된 것은 서부 캐나다에서 금년부터 밀 시장이 자유시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밀위원회(Canadian Wheat Board)의 유통독점을 종료하는 법안이 8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캐나다 곡물위원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5개월 동안 캐나다산 밀 43만 3,500톤(듀럼밀 제외)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스리랑카는 29만 5,100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캐나다산 밀 수입량은 전년대비 3배나 증가했다.

캐나다 농업식품부의 Skrypetz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캐나다에서 대량 수입을 하지 않는 중국 또한 캐나다로부터 고단백 밀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산 밀과 혼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12월까지 중국의 캐나다산 밀 수입량은 27만 4,100톤이다.

Skrypetz에 의하면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특히 적색경질밀(HRW)을 더 많이 수입하고 있고 한다. 미국 대평원 남부의 적색경질밀 작황이 가뭄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Skrypetz는 2013년 미국 적색경질밀이 2012년보다 작황이 더 안 좋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얼마나 더 나쁠 것인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브라질 대두 비로 인해 품질 하락

2월 14일 브라질 대두 생산자협회인 Aprosoja는 최대 대두 주산지인 Mato Grosso에서 구매자들이 일찍 수확한 물량 중 수분함량이 너무 높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대두

에 대해 구매를 거절하거나 가격을 대폭 할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마존에서 중서부지역에 이르는 지역에 지난 3주간 멈추지 않고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Mato Grosso의 곡물벨트에는 2월 초부터 강수량 200mm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의 농업경제기관인 Imea에 의하면 비로 인해 수확작업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주말까지 Mato Grosso 대두의 1/5이 수확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mea는 대두 42만 톤이 수확기의 과수분으로 인한 품질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추정했다. Aprosoja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대두가 Mato Grosso 생산량의 30%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파종기에 건조기후가 지속되었던 것 또한 대두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Aprosoja의 Nery Riba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매자들은 구매를 거절하기 시작했다. 대두의 품질이 정상적 범주를 벗어나 매우 나쁜 수준이다. 생산자의 대다수가 사일로(silo)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졌다.” 브라질 정부 통계국인 IBGE에 의하면 Mato Grosso에서는 대두 2,400만 톤과 옥수수 1,600만 톤을 수확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곡물저장시설의 용량은 3,000만 톤에 불과하다.

현지 곡물 브로커인 Terra Investimentos의 Bruno Perottoni는 인도된 대두의 수분율이 37%로 표준 20%에 비해 대폭 높은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구매자들의 지불의향금액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Perottoni는 또한 일부 생산농가에서는 수출계약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적물량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남쪽으로 1,000km나 떨어진 Parana에서 대두를 구매해서 저품질 대두와 혼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Perottoni는 브라질 정부가 대두 생산량 추정치를 계속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측정 과정에서 저품질 대두를 생산량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비가 멈추었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열대 특유의 화창한 날씨로 인해 향후에 수확되는 대두의 품질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브라질 항만 파업자들 중국 상선 점유

브라질 남동부 항만인 산토스(Santos)의 항만노동자들은 정부의 항만 현대화정책에 대한 반대의 일환으로 2월 18일 중국국적 상선을 점유했다.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는 브라질 경제의 성장을 막는 주요인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 595호를 통해 민영화를 통한 항만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브라질 정부는 낙후된 항구를 현대화하기 위해 향후 수년 동안 270억 달러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 20년 된 브라질의 항만규제

법을 대통령령 595호로 개혁하려고 했다.

항만노동자들이 점유한 중국국적 상선 Zhen Hua 10은 상해진화중공업(Shanghai Zhenhua Heavy Industry Company)이 제조한 크레인을 싣고 있는데 이 크레인들은 민영 컨테이너 터미널인 Embraport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 터미널은 브라질 현지 건설, 화학, 인프라 그룹인 Odebrecht 및 무역회사인 Coimex,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터미널 운영사인 DP World가 소유하고 있고 아직 운영이 시작하지는 않았다. 이 크레인들은 민영화가 100%된 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선에 적재 및 하역을 하는데 쓰일 예정이었다. 브라질에서 대부분의 항만 인프라는 국가소유이지만 많은 항만시설이 민영화되고 있다.

Embraport 대변인은 터미널 운영자들이 상선의 점유를 종료시키기 위해 파업자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만 노동조합은 정부의 개혁을 중단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들은 이 개혁이 임금 뿐 아니라 법적 안전망 또한 축소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존법 하에서는 인력충원은 중앙기관인 OGMO를 통해야 했지만 새로운 법이 실행되면 터미널 운영자들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 노동자들은 민간 운영자들이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산토스의 항만노동조합은 2월 22일 6시간의 작업 중단을 계획하고 있으며 항만개혁안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3월 18일 브라질 전체 항만에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곧 곡물 수확작업이 한창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파업은 시기상 공급량이 부족한 세계 곡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곡물시장은 주요 수출국의 가뭄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미의 대두 및 옥수수가 공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브라질 항만담당기관의 Leonidas Cristino(Special Secretary of Ports)는 2월 18일 브라질정부가 2013년 말까지 민간 투자자들에게 입찰로 내놓을 터미널 159개의 목록을 발표했다. 입찰은 화란식 경매(Dutch auction: 매도자가 최고 호가로부터 점차 가격을 낮추어 가다가 매수 희망자가 나오면 최초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도하는 경매 가격결정 방법)로 진행되며 첫 번째 입찰 목록에 산토스(Santos), 벨렘(Belem)의 터미널이 포함되어 있다.

■ 아르헨티나 건조기후, 대두 작황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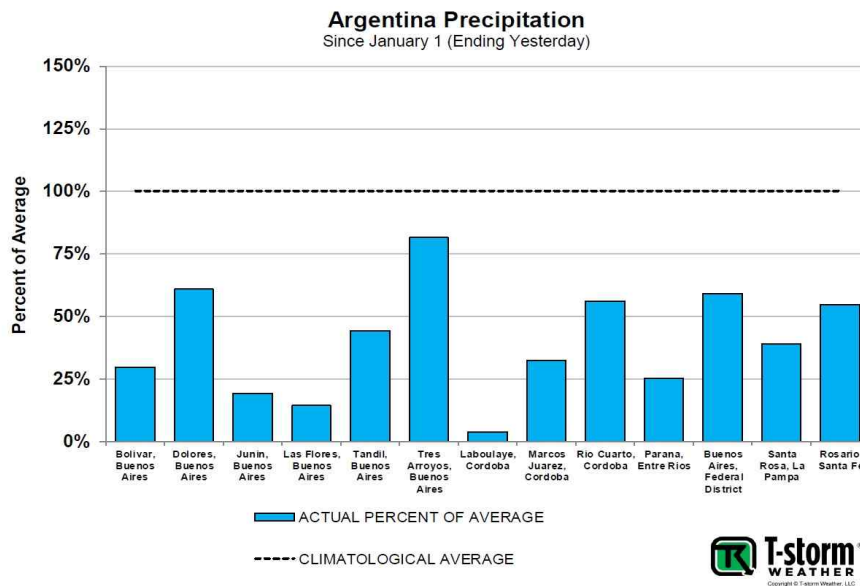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주간 작황보고서에서 건조기후가 대두 작황을 위협

하고 있으며, 주산지 여러 지역이 건조하여 잠재적 단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피해가 가속화되어 회복불가능해지기 전에 비가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황보고서에 의하면 1월 30일 기준 2012/13 대두 파종율은 전주대비 2%p 진전된 99.4%이며 파종이 안 된 지역은 팜파스 북부 일부지역 뿐이다. 옥수수 파종율은 전주 대비 2.3%p 진전된 98.7%였다. USDA는 2012/13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량을 5,400만 톤으로, 옥수수 생산량은 2,800만 톤으로, 밀 생산량은 1,100만 톤으로 전망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또한 보고서에서 옥수수 주산지인 코르도바의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부족하여 옥수수의 등숙(filling)이 저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3년 1월 초 아르헨티나 농업부는 악천후로 인해 2012/13 밀 생산량을 이전 추정치인 1,050만 톤에서 1,01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르헨티나는 8~11월 동안 계절 적이지 않은 호우가 내려 광범위한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고 12월 중순부터는 팜파스(Pampas)에 열파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극과 극의 기후를 겪었던 밀은 최근에 수확이 마무리되었다.

아르헨티나 평년대비 누적강수량(2013년 1월~2월 6일, %)



■ 아르헨티나, 2012/13 밀 수출할당량 3월에 조정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 식량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밀과 옥수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생산농가들의 밀 파종면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며 생산농가들이 대두나 보리와 같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작물로 작목전환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생산농가들은 파종 이전에 수출할당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고려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밀 생산농가 및 수출업자들은 세계 밀 가격이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밀의 파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밀 수출할당량을 최대한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밀 파종은 5월 말에 시작하여 8월에 완료되며 파종적기는 6월과 7월이다. CIARA-CEC 곡물수출상공협의회 회장인 Alberto Rodriguez는 2013/14 밀 생산량이 금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더 많을 것인가는 파종기 이전에 결정되는 수출가능물량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3/14 밀 수출할당량 발표일에 대해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몇 개월 뒤가 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업부는 최근에 수확이 완료된 2012/13연도 밀 생산량이 1,010만 톤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연초의 홍수피해로 감소한 것이며 2011/12연도 밀 생산량인 1,410만 톤에 비해 크게 적은 수준이다. 아르헨티나의 2012/13 밀 수확면적은 348만ha로 44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반면에 아르헨티나의 2012/13 보리 생산량은 정부가 밀 수출할당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05/06연도 생산량인 약 80만 톤에 비해 대폭 증가한 약 500만 톤이 되었다. 정부가 수출할당량에 대해 파종기 이전에 분명하게 발표하지 않는다면 밀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홍수발생 이전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13 밀 수출할당량을 600만 톤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농업부 대변인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수출할당량을 조정할 것이며 남은 구곡 수출가능물량은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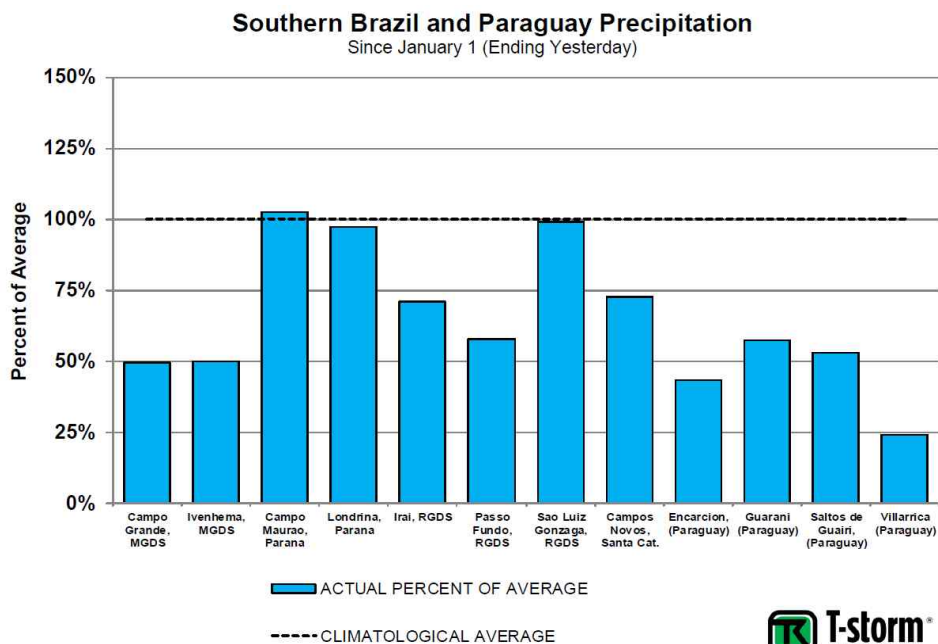
■ 파라과이 대두 가뭄피해

파라과이는 세계 4위의 대두 수출국이며, 파라과이에서 대두 수확기는 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이다. 수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라과이 생산농가들은 건조기후로 인해 단수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생산량 전망치는 여전히 기록적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라과이 농업부는 2012/13 대두 생산량이 84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가뭄피해로 적었던 생산량에 비해 두 배 이상인 수준이다. 수확율이 45%인 현 시점에서 평균단수는 3.0톤/ha로 추정되고 있다.

인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조기후가 파라과이에도 영향을 미쳐 파종이 늦은 대두의 단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파라과이 농업부의 리스크평가단 대표인 Edgar Mayeregger는 북부(San Pedro, Canindeyu 인근지역)에서는 단수저하가 목격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은 대부분 단수가 평균 수준이거나 또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도 달성되었다고 말했다.

브라질 남부와 파라과이 누적강수량(2013년 1월~2월 6일)



■ 12월 중국 대두 수입량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

1월 10일 중국 해관총서 공식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육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세계 1위의 대두 수입국이 되었으며 기록적인 5,838만 톤의 대두를 수입했는데 이

는 전년대비 11.2% 많은 수준이다. 또한 중국 대두가공업자들이 2월의 음력설을 앞두고 대두 수입속도를 가속화함에 따라 12월 월간 수입량은 589만 톤이 되었고, 이는 2010년 6월 이후 월간 수입량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중국 국립곡물유지정보센터(CNGOIC)의 한 애널리스트는 2013년 중국의 대두 수요 및 대두가공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나 증가속도는 2012년처럼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인구의 육류 및 가공육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축사료의 주재료인 대두박 생산을 위한 대두가공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3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중국의 식용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28.7% 증가한 845만 톤이며, 12월 중국 식용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21.7% 증가한 112만 톤이었다. 중국이 수입하는 식용유는 대부분 팜유이다.

■ 해관총서, 2012 중국 옥수수 및 쌀 수입량 기록적 수준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의하면 세계 1위의 곡물 소비국인 중국의 2012년 옥수수 및 쌀 수입량이 기록적인 수준이며 밀 수입량 또한 8년 만의 최고수준이다. 이는 중국 국내 수요가 높은 수준이고 2012년 상반기 세계 곡물가격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농업부 관료에 의하면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로 증가하는 국내 수요량을 국내 생산량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중국 해관총서에 의하면 2012년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대비 197% 증가한 520만 톤이고 밀 수입량은 전년대비 195% 증가한 369만 톤이며, 쌀 수입량은 전년대비 305% 증가한 234만 톤이다. 2012년 중국은 국내 생산량이 기록적인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으로 쌀, 밀, 옥수수 순수입국이 되었다. 중국 국립곡물유지정보센터의 한 애널리스트는 옥수수와 밀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은 육류 수요가 증가하여 가축사료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중국이 수입하는 밀은 대부분 호주산 저품질 밀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옥수수 재고량이 부족하여 재고수준 유지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한 것 또한 수입량 증가의 원인이다.

중국 정부는 2012년 상반기에 농민소득지지를 위해 곡물에 대해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수매가격을 설정했는데 이로 인해 수입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에 미국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곡물가격이 가뭄으로 인해 급등하자 중국의 수입량은 감소했다. 무역업자들은 곡물가격이 높아 2013년에도 중국의 수입량이 감소할 것이

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밀 소비국이자 생산국이며 2011년 비가 과도하게 내려 밀 품질이 저하되고 국내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자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제분밀의 수입을 재개했다. USDA는 2012/13연도 중국의 밀 수입량을 300만 톤으로 추정했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Commonwealth Bank)의 상품시장 전략분석가인 Luke Mathews는 지난 수년간 중국이 호주산 사료용 밀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왔다고 말했다.

2012년 중국은 대부분의 쌀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했는데 베트남산 쌀 가격이 중국산 쌀에 비해 20% 낮았고 많은 무역업자들이 저렴한 수입산 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하여 판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국영기업들의 쌀 수입할당량이 적어져 베트남산 저품질 쌀의 수입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수입량 급증으로 식량자급목표에 대해 재논의 중

중국의 고위급 관료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Development Research Centre) 소장은 중국 식량 수요의 증가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식량자급자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량 급증은 공산당에게 민감한 문제인데 공산당은 전통적으로 식량자급 및 식량안보를 최우선적 의제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또한 농산물 수입의 증가로 인해 중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이 피해를 받고 농촌의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농촌관련 정책결정부서의 수장인 Chen Xiwen은 지난 주말에 열린 포럼에서 중국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식량을 증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수입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식량 공급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업의 현대화 및 농산물 공급량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12년 식량 수입량이 중국 전체 식량 소비량의 12%에 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1978년 현대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농민 약 2억 6,000만 명이 도시로 이주했다. 그리고 중국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1982년과 2010년 사이 중국의 전체 농촌인구는 8,000만 명이 줄었다. 중국 정부는 도시가 확장되는 반면 농지 및 농촌인구는 축소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입량을 늘리는 것을 의제로 삼고 있다.

중국은 2015년까지 농업 5개년 개발계획에서 농산물 자급도 9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무원발전연구 중심은 정부가 농산물 수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원발전연구 중심의 소장 Han Jun은 지난 주말 열렸던 포럼에서 인구가 13억 명인 국가가 전체 농산물 공급을 자국 생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곡물에 대한 식량안보 및 주요 농산물의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 곧 자급자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옥수수의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면화, 설탕, 대두의 공급은 세계시장에 더욱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옥수수 수요량은 이미 세계 2위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옥수수는 가축사료용으로 쓰이며, 중국은 소득증가에 따라 육류, 유제품, 계란의 소비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곡물(대두 포함) 수입량은 2012년 처음으로 7,000만 톤을 넘어섰으며 식물성 유지류의 수입량 또한 845만 톤에 가까웠다. 중국의 곡물 수입량은 전년대비 157%나 증가한 1,398만 톤이며, 47억 9,000만 달러에 해당했다. 중국 농업부에 의하면 2012년 농산물 부문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491억 9,000만 달러였다.

중국은 쌀과 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지만 교역량은 크지 않다. 중국 농업부 장관은 쌀 공급량이 충분한 수준이며 2012년의 쌀 수입량 증가는 수요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가격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식량 증산위해 농지개혁 가속화

중국 중앙정부는 2013년에 대한 '제1문서(number one document)'에서 중국 농업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상업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이전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중국 농촌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평했다.

중국 정부는 농업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규모 농지의 운영, 협동조합이 규모의 경제면에서 유리하므로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여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국영뉴스보도업체인 신화통신을 통해 매년 중국 농촌정책의 우선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중국은 생산량을 증대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농촌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식량안보와 농산물 공급이다.

중국은 도시화로 인해 2억 명의 근로인구가 도시로 이주한 결과 농촌의 노동력이 급감했고 동시에 식량수요가 급증하여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또한 국가 재고량을 증량함으로써 농가수취가격을 지지할 예정인데 이 정책은 현재까지 시행된 결과 국내 가격을 국제수준에 비해 대폭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았으며 이는 수입량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한다. 제1문서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옥수수, 대두, 유채, 면화, 설탕을 구입하여 재고량을 증량할 것이며 동시에 수입관세 및 수입할당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는 ‘민감한’ 농산물 품목의 수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밀수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상업농을 위주로 농지를 병합하는 것은 중국 정부에게 큰 과제이다. 다수의 임대인들이 영세규모의 농작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대규모 토지소유권이전을 허가하는 것이 농업보다 수익률이 높은 비농업부문에 농지를 팔아 부족한 규모의 농지가 더 적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농촌에서 토지소유권이전의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상황이 야기되는 것 또한 우려사항이다.

중국 정부는 ‘토지소유권 이전시 농민들이 법률적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등록체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에서 농민들은 대부분 농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있다. 농촌에서 대부분의 농지는 마을 앞으로 집단적으로 소유되고 있으며 농민들은 수십 년 동안 임대를 한다. 이론적으로 마을 주민들은 마을 소유 농지를 판매할 것인지 혹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집단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이 농지의 판매여부를 결정하며 판매수익 또한 가져간다. 중국 학계는 오래 전부터 중국의 농지체계를 개혁해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토지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에서는 2012년 동안 식량 수입량이 전체 식량 공급량의 약 12%에 해당할 정도로 증가했으며 중앙정부 관료들은 자급자족이 선택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까지 말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직 대규모 수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꺼리고 있으며 교역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베트남 1월 쌀 수출량 40만 톤으로 급증

베트남 정부의 1월 28일 발표에 의하면 베트남의 1월 쌀 수출량이 전년대비 57.2%나 증가한 40만 톤이라고 한다. 베트남 통계청의 12월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의 2012년 12월 쌀 수출량은 51만 8,000톤으로 정부의 기존 추정치인 55만 톤에 비해 소폭

적은 수준이었다.

한편 베트남 농업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던 월간 보고서상 1월 쌀 수출량 추정치는 28일 정부 발표수치보다 많았던 53만 4,000톤이었다. 베트남 곡물수출금액은 2012년 1월 대비 76.4% 상승한 2억 5,900만 달러였다. 2012년 1월의 베트남 쌀 수출량은 25만 6,000톤이었으며, 2012년 연간 쌀 수출량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802만 톤이었다(정부의 이전 추정치인 805만 톤에서 하향 조정).

베트남 정부의 2013년 베트남 쌀 수출량 전망치는 750~760만 톤이다. 무역업자들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통상적으로 4분기에 들어서 통계치를 상향조정하는데 이는 그 이전 시기에 해외 수입업자들이 가격하락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베트남 1위의 쌀 주산지인 메콩강 삼각주는 연간 3기작을 하는데, 2월말이나 3월 초에 겨울-봄 작물이 수확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베트남산 쌀 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인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 밀 수출량 증량 고려

인도 국영 밀연구기관의 소장인 Indu Sharma는 인도의 밀 수확이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2월 말과 3월 기온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생산량이 전년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월 31일 토마스(K. V. Thomas) 인도 식량부 장관은 신곡 생산량을 보관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부 비축량에서 추가적으로 밀을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2011년 4년간 금지했던 밀의 민간 수출을 허용했고, 2012년 인도 정부는 정부 비축량 중 밀 450만 톤의 수출을 허가했으며 이중 200만 톤 이상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다. 토마스 인도 식량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는 수출을 더 많이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계 가격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많은 재고량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의 방법은 수출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호주의 공급량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인도의 수출 허가량 증량은 중동 및 아프리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의 곡물조달기관인 국영 기업 FCI(Food Corp. of India)는 정부 곡물창고에서 밀 450만 톤에 대한 수출허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쌀과 밀 재고량이 넘쳐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풍년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1월 1일 기준 정부

곡물창고의 밀 재고량은 3,440만 톤으로 3월 말까지 1사분기 정부의 공식 목표인 820만 톤의 네 배 이상이다. 마찬가지로 쌀 재고량은 3,220만 톤으로 정부의 공식 목표인 1,180만 톤보다 대폭 많다.

Food Corp. of India(FCI)는 생산농가들로부터 곡물을 구매해서 빈곤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식량을 공급하고 비상식량을 제공하며 농가소득을 보전한다. 토마스 식량부 장관은 인도 정부가 민간 무역업자들이 FCI 비축량에서 밀을 구매해 수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국영무역회사인 MMTC Ltd나 State Trading Corp.를 통해 정부 재고량에서 밀을 수출하고 있다.

2012년 인도 밀 생산량은 역대 최고수준인 9,390만 톤이었던 반면 국내 소비량은 연간 7,600만 톤으로 전년에 상응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인도네시아, 쌀 증산 위해 농지 용도변경 금지 초안 제정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의하면 순조로운 기후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쌀(조곡) 생산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쌀 자급율이 증가하고 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 2억 4,000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증가하는 식량수요에 대처하기위해 노력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원당의 세계 1위 수입국이자 밀의 아시아지역 최대 수입국이며, 매년 쌀과 옥수수를 각각 200만 톤씩 수입한다.

인도네시아 농업부 Suswono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쌀(조곡) 생산량은 2012년 6,896만 5,000톤(인도네시아 통계국 출처)에서 2013년 7,206만 4,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인도네시아의 기후가 건조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2013년에는 기후가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Suswono장관은 2013년 기후가 농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될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이 금년 6%이상일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식용유 생산국인데 Suswono장관은 2013년 팜유(비정제 형태) 생산량이 전년의 2,352만 1,000톤에서 15% 증가한 2,704만 6,000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커피 원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16.1% 증가한 76만 3,000톤이 될 것이며 코코아 원두는 전년대비 6% 증가한 95만 8,000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생산량 추정치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 조정되는 일이 많다. 인도네시아 코코아생산자연합은 금년 생산량을 43만 5,000~45만 톤 사이로 전망하며 인도네시아 커피수출업자연합은 내년 생산량이

65~70만 톤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80년대 초반에는 쌀 자급율이 100%였으나 농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감에 따라 생산량이 점차 감소했고, 현재 베트남으로부터 매년 쌀 100~200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 정책담당자 Gatot Irianto에 의하면 현재 인도네시아의 농지 중 매년 11만ha가 용도변경 되고있다고 한다. Suswono장관은 생산량증대를 위해 농지가 산업용 또는 주택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는 2013-2015 법 초안(land safeguards)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 이 초안에 동의하게 되면 2013년, 2014년, 2015년 동안 농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다음 표는 인도네시아 통계국의 2012년 추정치와 Suswono장관이 발표한 2013년 농산물생산량 전망치이다.

농산물	2012년 (백만 톤)	2013년 (백만 톤)	변동율 (%)
코코아	0.903	0.958	+6
커피	0.657	0.763	+16.1
옥수수	18.962	19.831	+4.6
팜유(비정제)	23.521	27.046	+15
쌀	68.965	72.064	+4.5
고무	3.040	2.771	-8.8
대두	0.783	1.500	+91.6
백설탕	2.58	2.82	+9.3

■ 인도네시아, 양식사료수요로 인해 대두박 수입량 연간 5% 증가

인도네시아 사료제조업협회(GPMT)에 의하면 어류에 대한 세계 수요의 증가 및 인도네시아 양식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대두박 수입량은 향후 5년 동안 연간 5%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UN FAO에 의하면 2012년 세계 어업 생산량은 1.3% 증가한 약 1억 5,8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증가량은 모두 양식업의 성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 사료제조업협회의 양식사료부서 담당인 Denny Indradjaja는 사료용 소비를 위한 대두박 수입량을 전년대비 6% 증가한 330만 톤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어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양식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양식업계에서 소비하는 대두박이 전체 대두박 수입량의 약 1/5에 해당한다고

추정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이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두박 수입량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문은 양계업이다. Indradjaja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이전에는 대두박을 주로 미국에서 구매했으나 2012년 가격이 인상된 후 브라질과 인도가 미국을 대체하게 되어 현재 전체 수입량 중 75%를 브라질과 인도로부터 수입한다고 한다. 미국 대두박 가격은 가뭄으로 인해 대두 공급량이 부족해진 후 2012년 9월 사상최고치에 도달했다.

그래프. 인도네시아 어류 수출금액 및 수출대상국

Indonesia fish



인도네시아 정부는 용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업의 현대화 및 산업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0만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양식학회(Indonesian Aquaculture Society) 회장인 Rokhmin Dahuri(구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는 인도네시아의 어류 생산량이 2012년의 1,500만 톤에서 약 1/4 증가한 1,9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해안지역의 양식 잠재력이 아주 크며 잠재적 양식 생산량이 연간 약 6,000만 톤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물 및 해수 어류 생산량이 7% 증가한 600만 톤이 될 것이며 양식업 생산량은 38% 증가한 1,300만 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므로 양식업에 완벽한 환경을 갖

추었고 중국 및 호주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국내 어류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어류 소비량은 연간 약 32kg이다.

■ 일본, 사료곡물 재고량 44% 증량 계획

일본 농무성에 의하면 일본은 연간(4월~3월) 사료곡물 재고량을 44% 증량할 계획이다. 일본은 연간 옥수수 수입금액이 30억 달러 이상인 세계 1위의 옥수수 수입국으로 재고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량 감소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국 이외의 수출국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배합사료는 대두박과 기타 사료곡물이 혼합되어 소, 닭, 돼지에게 공급된다. 일본은 옥수수 및 수수의 국내생산량이 거의 없으므로 정부가 이들의 수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정책은 세계 옥수수 공급량이 이미 부족하며 미국 기말재고량이 17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것이다. 2012년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일본의 사료제조업자들은 수입국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로 전환했다. 그러나 인프라의 문제로 인해 선적이 지연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입 비용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유사한 공급측 문제를 피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사료제조업자들에게 옥수수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재고량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료곡물 수입에 대한 지원을 함은 물론이고 사료제조업자들도 자비를 들여 일정 수준의 사료곡물을 의무적 재고량으로 비축해야 한다.

일본 농무성 담당자들에 의하면 2013/14연도(4월~3월)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옥수수와 수수 재고량 60만 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제정했다고 한다. 이는 현 수준의 재고량보다 35만 톤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중 32만 톤은 옥수수이고 3만 톤은 수수이다. 일본 사료곡물 재고량이 증량된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사료제조업자들의 자체 재고량은 현재 45만 톤이나 2013/14연도 내에 의무적으로 55만 톤 수준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일본 농무성의 농산물생산과장 Takehiro Osugi는 공급처를 미국에서 브라질 등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브라질에서 두 달간 선적 지연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50만 톤의 물량이 부족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부족량의 절반 수준인 25만 톤을 재고량에 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첫 11개월 동안 일본이 수입한 사료용 옥수수는 880만 톤으로 전년대비 6.7% 적은 수준이었다. 이중 미국산 옥수수는 70.8%로 전년의 수입비중인 87.9%에 비해 감소했다. 브라질산 옥수수는 11%,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는 9.2%, 아르헨티나산 옥수수는 5.5%였다. 2012년 옥수수 수입량의 감소분은 대부분 사료용 밀 수입량의 증가로 상쇄되었다.

(\$1 = 90.6350엔)

■ 러시아, 곡물수입관세 유예조치 실행

러시아 부총리 Arkady Dvorkovich는 2월 11일 러시아가 3월 중으로 곡물 수입에 대한 5% 관세유예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 조치가 이번 사분기에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무관세 수입조치는 다음 양곡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까지 유효할 것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미국과 EU로부터 곡물수입을 하는 것이 원활해 질 것이며 가뭄으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러시아의 곡물시장 상황이 완화될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가뭄피해로 인해 곡물 생산량의 1/4이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곡물가격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고 재고량이 고갈되었으며 정부는 국가 비축량에서 곡물을 방출했었다. 러시아는 주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했는데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유예조치가 실행되면 4월~6월 동안 미국과 EU로부터 곡물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4월 초부터 유예되기 시작할 것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간 적용되는 2010 관세동맹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러시아 관세절차에 의하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이 이 관세유예조치가 규정에 따르는지 허가를 내리는데 약 1달이 걸리고 규정에 따라 이 허가가 실행되는데 다시 1달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2012/13연도 러시아 곡물 기말재고량은 전년의 1,900만 톤에 비해 대폭 감소한 770만 톤이 될 것이라고 한다. 농업부장관 Fyodorov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러시아의 곡물 수입량 목표는 80만 톤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2012년 7월~12월 곡물 수입량이었던 50만 톤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 러시아 남부 겨울밀 작황피해 발생

러시아 국립 기상연구소장인 Roshydromet Alexandr Frolov는 주산지인 남부지역에서 겨울 동안 기후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겨울밀 작황이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작황이 불량한 겨울밀이 전체 중 10.5%라고 말했으며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가 추위가 다시 시작되면 더 많은 작황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리가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남부지역은 러시아 전체 곡물 생산량의 1/3을 생산한다. 러시아는 2012년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의 1/4이 감소하여 7,100만 톤이 되었다. Frolov는 1차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불가지역 및 유럽쪽 남동지역에 가뭄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립 기상연구소의 보다 상세한 기상전망은 3월 말에 발표될 것이다.

■ EU, 미국산 에탄올 전체에 대해 반덤핑관세 제안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14개월간의 조사 결과 미국산 에탄올은 보조금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후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에탄올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EU의 제안서는 모든 미국산 에탄올에 대해 반덤핑관세인 9.5%를 부과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EU의 회원국은 이에 대한 입법을 2월 22일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EU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야 관세부과가 실행될 수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제안은 2008년 미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세부과건과 유사한 과정을 따른 것인데 당시 부과한 수입관세는 톤당 400유로였다. 그러나 수입국의 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수출회사가 개별 에탄올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자 기반이 아닌 미국산 에탄올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자는 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부과하는 관세는 통상적으로 생산자에 따라 반덤핑관세 수준이 결정되는데, 관세 수준은 가격이 EU의 시가에 비해 얼마나 더 낮은 수준으로 판매되는지, 즉 산업피해구제수준(injury margin: 국내산업 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관세율로,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가 있음)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이며 연간 세계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의 2/3에 해당하는 850억 리터를 생산한다.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10억 리터 이상의 바이오에탄올을 수입하고 있다. 유럽의 바이오에탄올 수요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규제하면서 정부가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을 설정한 이후 증가했다. 미국에서 EU로 선적되는 에탄올 수출금액은 연간 9억 3,000만 달러(7억 유로) 이상이다. 유럽 에탄올산업의 EPure(EPure의 회원들은 EU 바이오에탄올의 80%를 생산함)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유럽의 에탄올산업이 미국의 저가 에탄올 수입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EPure는 미국 정부가 수출업자에게 세금공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EU 시장에서 미국산 바이오에탄올의 판매가격이 40%나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에탄올산업의 미국신재생에너지협회(Renewable Fuels Association)와 Growth Energy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제안이 WTO 반덤핑법의 여러 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유럽으로 바이오에탄올을 수출하는 미국 회사는 CHS Inc., Patriot Renewable Fuels, Valero Renewable Fuels이다. (\$1 = 0.7526유로)

■ 2013 유럽 밀 작황 현황

EU의 1위 및 2위 밀 생산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쌓인 눈의 깊이가 깊어 냉해가 문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프랑스에 현재 지속중인 한파도 다음 주면 종료되어 기온이 온화해질 것이라고 한다. 독일 통계국의 12월 20일 발표에 의하면 독일의 2013 겨울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7% 증가한 310만ha라고 한다.

그러나 EU의 3위 밀 생산국인 영국의 작황은 좋지 않으며 HGCA(Home-Grown Cereals Authority)의 선임애널리스트 Jack Watts는 밀 생산량을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2년 전에 영국에 발생했던 것 같이 봄에 가뭄 등 악천후가 발생한다면 작물이 이러한 위협에 더욱 취약할 것이며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또한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영국의 겨울밀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했을 것이라며 습한 기후로 인해 파종이 늦어진데다가 최근에 눈이 내려 겨울밀을 이후에 파종할 가능성 역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겨울밀 늦파종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제는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GCA는 11월에 영국 겨울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2% 감소한 176만ha가 될 것으

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 감소율은 '최선의 경우 실현될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2012년 영국 밀 생산량은 역대 두 번째로 습한 기후로 인해 전년대비 13% 감소한 1,330만 톤으로 감소했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주요 밀 수출국의 지위에서 내려와 대량의 밀을 수입하는 수입국이 되었었다. Jack Watts는 영국의 밀 작황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014년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독일의 한 무역업자는 영국의 이러한 전망에 따라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사료용 밀을 다른 국가에서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영국의 제분산업이 2013년에 도 대량의 수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집트, 밀 수입목표량 감축

이집트 국영 곡물조달기관인 GASC(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의 부회장인 Nomani Nomani는 1월 3일 국내 생산농가와 수입국가를 통해 6월 17일까지 필요한 밀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국내 밀 수매량이 증가했으므로 연간(회계연도 기준) 밀 수입목표량을 100만 톤 감축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수입목표가 기존의 480만 톤에서 38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6월 17일 이후의 5.5개월 동안 필요한 추가 공급량인 400만 톤은 국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집트는 총합 11개월 동안 필요한 공급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또한 현재 이집트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물량 뿐 아니라 향후 수확될 물량까지 합하면 앞으로 재고량 수준을 충분하게 유지할 확률이 더 커지게 되므로 이집트의 밀 공급은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11년 이후 GASC는 지속적으로 밀 재고량을 최소 6~7개월 분 공급량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11개월간 필요한 공급량을 유지하는 것은 평년보다 대폭 많은 것이다. 2012년 세계 밀 가격이 18.6%나 상승했으므로 이집트는 수입가격이 하락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국내생산량을 잘 활용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었다. 거래소에서는 이집트의 밀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2013년 수입량이 감소함을 뜻하므로 이는 밀 시장의 가격하락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역업자들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집트가 세계시장으로 복귀하여 구매입찰을 공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GASC는 신곡 밀의 수확 전까지 여전히 50만~60만 톤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12연도(7월~6월) GASC는 밀 793만 톤을 구매했는데 이중 533만 톤은 수입한 것이고 260만 톤은 국내시장에서 구매한 것이었다.

GASC의 Nomani부회장은 2012/13연도에도 전년과 동일한 793만 톤을 구매할 것으로 전망하나 이중 더 많은 물량을 국내시장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밀 생산량은 높은 가격으로 인한 생산인센티브 및 이집트 농업부가 새롭게 보급하는 고품질종자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GASC가 현재까지 구매한 물량은 총 684만 톤이며 이중 314만 톤을 수입했고 370만 톤을 국내시장에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집트는 2011년 2월 ‘아랍의 봄’ 시위로 30년간 장기 독재했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하야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져 인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아랍의 봄’시위 이후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는 6% 하락했고 금주에 재차 3.5%가 하락했다. 이집트 통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세계 1위의 밀 수입국인 이집트가 대량의 수입을 지속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GASC의 Nomani부회장은 이와 같은 추측을 부정하며 밀 수입목표의 하향 조정은 이집트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 때문이 아니라 국내 수매량 증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이집트의 2012년 밀 생산량은 869만 톤으로 2011년의 837만 톤에 비해 4% 증가했다. 이는 이집트의 2007-2011 평균생산량인 788만 톤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인데, 이집트의 밀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금년 이집트의 기후가 양호했고 종자가 개선되었으며 이집트 정부의 수매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 이집트, 예산 부족으로 밀 입찰 체계 재검토

세계 1위의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예산 문제로 인해 정기적인 정부 구매입찰을 포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의 구매입찰은 수십 년 동안 세계 밀 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해 왔는데, 이집트 곡물조달청(GASC)을 통한 밀 구매입찰은 세계 밀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 공신이므로 세계 밀 교역업자들은 이집트의 입찰을 항상 주시해 왔었다.

2013년 들어 북아프리카 지역의 곡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 이 지역은 경제 및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 전략적 곡물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는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서 적시에 밀을 구매할 능력이 제한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밀을 대량 수입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이집트 곡물조달청의 대표 Nomani Nomani는 지난주에 사임했다.

이집트 곡물조달청이 입찰을 통해 밀을 구매할 때 낙찰된 회사는 통상적으로 이집트 국립은행에게 신용장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신용장은 그 후 이 회사의 은행에

서 처리된다. 그러나 라보뱅크(Rabobank)의 상품금융부서장 Karel Valken은 최근 이집트에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지고 곡물조달청이 은행에서 현금 및 신용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용장이 제대로 이용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이로 인해 밀 교역량이 제한을 받고 적시 인도가 어려워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밀을 수입하는 데 동반되는 채선료와 금융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밀의 수입비용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집트 곡물조달청의 주요 목표가 비용을 가장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집트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입찰보다 수의계약(private deal: 경매·입찰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지향해야 한다면 이집트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금융적 측면에서 가장 유동성이 큰 업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간 소비할 밀을 재고량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2월 27일 이집트 정부에 의하면 이집트의 현재 밀 재고량 수준은 5월 29일까지 소비할 수 있는 물량, 즉 겨우 3개월분이라고 한다.

이집트 파운드는 2013년 1월 이후 8% 이상 하락했으며, 외환보유고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해야하기 이전인 2011년의 360억 달러에서 2013년 1월 136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집트 화폐가치의 하락은 에너지 및 식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대부분 달러화로 수입함) 비용을 상승시켜 정부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는 연간 1,880만 톤의 밀을 소비하며 이중 절반을 수입한다. 이집트의 밀 수입은 민간과 곡물조달청이 각각 절반씩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이집트 곡물조달청은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단일 업체이다. 그러나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곡물조달청의 누적 밀 수입량은 23만 5,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수준이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12/13년 이집트의 밀 수입량은 95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호주 동부 밀 단백질함유율 평년보다 낮은 수준

세계 2위의 밀 수출국인 호주는 4월 말 밀을 파종하여 12월 말 수확한다. 그런데 최근 수확이 완료된 호주 동부(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및 중부) 밀의 단백질 함유량이 평균에 못 미친다고 한다. 라보뱅크의 곡물유지류 선임애널리스트인 Graydon Chong은 호주 동부해안지역 전반적으로 밀 품질이 평년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단백질 함유율이 높은 경질밀(Australian Prime Hard wheat)과 평균적인 백밀

(Australia Standard White wheat)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고단백 밀에 대한 수급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세계 2위의 밀 수출국인 호주의 고품질 밀 공급량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호주로부터 제분밀을 수입하는 아시아 수입국들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고단백 봄밀을 더 많이 수입해야 할지도 모르며 이는 세계 밀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호주 정부는 밀 생산량을 이전 추정치에 비해 2.3%나 감소한 2,203만 톤으로 발표한 바 있다.

■ 호주, 7월이면 밀 재고량 부족해질 듯

세계 2위의 밀 수출국인 호주는 높은 수출속도로 인해 7월 중순이면 밀 재고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밀 수출속도가 높은 이유는 호주 무역업자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밀 수확이 시작하기 전에 밀을 수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Emerald Trading Group.의 마케팅부장 Brian Dalitz는 2013년 1월~5월 동안의 수출량이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또한 12월에 밀 생산량 전망치를 이전 추정치대비 2.3%나 하향 조정된 2,203만 톤으로 발표했다. 호주의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호주산 밀의 최대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은 더 높은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국가로부터 밀을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Profarmer의 상품애널리스트인 Malcolm Bartholomaeus는 유통연도 하반기의 호주의 수출량이 감소하지만 다른 수출국들의 생산량이 세계시장에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호주 공급량 감소가 세계 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로 인해 아시아 수입국들은 추가적인 운송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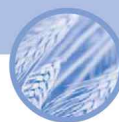
미국에서 겨울밀을 많이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어 시카고거래소의 밀 선물가격(Wc1)은 8월 말 이후 약 14%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세계 밀 공급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호주의 공급량 부족 문제는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수개월 사이에 생산량 부족의 심각성은 완화되었으나 흑해연안지역의 가뭄피해 이후 세계 밀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part

04

세계 기상 및 작황 정보

2013 World Grai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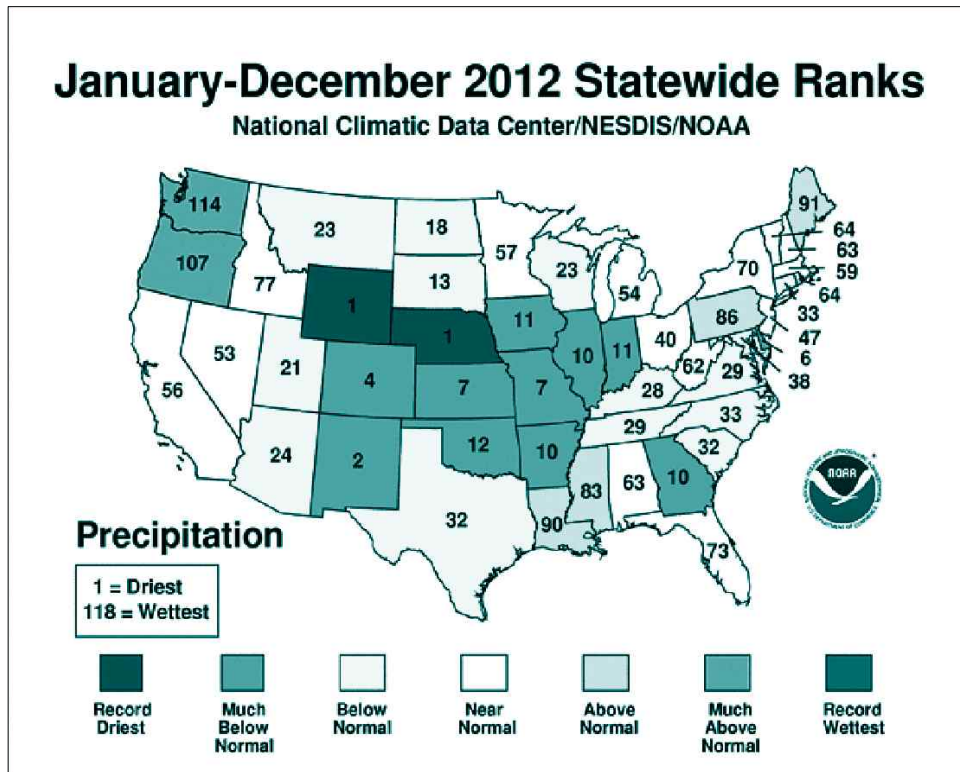
2012년 미국 농업기상 요약 / 167

2013년 2월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요약 / 175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현장조사 보고 / 183

2012년 미국 농업기상 요약

미국의 2012년 1월~12월 주별 강수량 상황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0(No. 4), January 23, 2013

1. 2012년 미국 농업기상

2012년 초에만 해도 가뭄피해는 미국 남부지역에 국한되었으나 이후 북쪽으로 확산되었고 봄, 여름 동안 심화되어 결국 1988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2012년은 기록적으로 기온이 높아 봄 기후가 기록적으로 온난했고 7월 기온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2012년 여름은 기록상 역대 세 번째로 더웠다. 7월 말 미국 가뭄모니터에 의하면 미국 전역의 약 2/3(63.86%)이 가뭄상황이었다. 9월 25일에는 가뭄피해지역이 전국의 65.45%로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적색경질밀(HRW) 재배지역은 연말

까지 지속적으로 심각한 가뭄피해를 받았다. 팔머가뭄지수(PDI: Palmer Drought Index)는 농업관련 가뭄피해보다는 장기적인 가뭄피해를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하나 이를 기준으로 가뭄피해면적을 비교해 보면 2012년 7월의 PDI는 61.8%로 1939년 12월 더스트보울(Dust Bowl)¹⁾ 현상이 발생하던 시절의 PDI(62.1%)이후 최대치이다. 2012년 같이 가뭄피해가 광범위한 면적에서 발생한 것은 역사적으로 드문 현상이다.

2. 겨울 (2011년 12월 - 2012년 2월)

12월 동안 미국 남서부에 많은 눈과 비가 내렸고 북서부에 폭풍우가 지나갔지만 미국 서부의 대부분 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폭 적은 수준이었다. 고원(High Plains) 남쪽의 밀 재배지역은 2011년의 기록적인 가뭄의 여파로 지속적인 피해를 받았다. 대서양 연안도 평년보다 기후가 건조하여 미국 남동부지역의 가뭄이 심화되었다. 겨울 동안 비가 충분히 내린 지역은 미국 중부 대평원 중부 및 남부에서 오하이오 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에 국한되었다. 국립기상데이터센터에 의하면 2011/12연도 겨울은 전반적으로 온난건조했고 2001/02연도 이후 가장 건조한 겨울이었다. 2011/12년 겨울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88%(5.7인치)였다.

3. 봄 (2012년 3월 - 2012년 5월)

미국 중부 및 동부에 전례 없이 온난한 봄으로 인해 파종속도가 가속화되고 작물의 생육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토양수분은 평년보다 증발율이 높았고 급속히 발달하는 작물의 수분필요량이 많아져 감소했다.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온난한 기후로 인해 고위도지역에 쌓였던 눈이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녹아내렸다. 3월~5월 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던 1910년 3월~5월 기온보다 화씨 2도가 더 높았다. 반면에 봄 강수

1) 1930년부터 1936까지 7년간 미 중부 평원지대에 극심한 가뭄 이후 발생한 대규모 황사현상. 이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식용수가 고갈되었으며 대규모 지역이 폐허가 되어 주민들이 이동하였다. 피해면적은 한반도 전체면적의 2배에 해당했으며 곧이어 대공황이 일어나 영세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가뭄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식물의 개체수가 적다, 즉 토양을 고정하고 있는 뿌리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양이 유실되며 황사가 발생하게 된다.

량은 평년의 97%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컸다. 봄에 가장 건조했던 지역은 콜로라도, 인디애나, 유타, 와이오밍이었으나 반면에 미네소타, 오레곤, 워싱턴에는 기록적으로 많은 비가 왔다.

■ 4월

전국적으로 온난하여 예상보다 소립곡류가 동면기에서 일찍 깨어났으며 봄 작업이 일찍 시작했다. 4월 1일 기준으로 옥수수 주산지 18개 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파종이 한창 진행 중이었으며 파종율은 3%로 전년 및 5년 평균보다 앞섰다. 4월 동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후가 온난건조하여 파종 진행속도 및 작물의 생육발달속도가 기록적이었다. 그러나 대평원 및 텍사스 서부지역은 토양이 전반적으로 건조하여 생산농가들이 파종의 진행을 망설였다. 4월 말 미국 남동부에서는 평년에 못 미치는 강수량 및 토양수분의 감소로 인해 일부 생산농가들이 파종을 중단하고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렸다.

■ 5월

평년보다 온난한 기후가 지배적이어서 4월과 마찬가지로 파종속도 및 작물의 생육발달속도가 급속한 수준이었다. 캔자스주에서 5월 6일 기준 겨울밀의 출수(heading)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이는 평년대비 약 3주 빠른 속도였다. 5월 27일 기준 캔자스 남부에서는 겨울밀의 수확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1952년 이후 가장 빠른 수확이었다. 대두 생산지역에서는 기후가 작황에 순조로워 6월 3일 기준 주산지 18개 주 중 11개 주에서 파종율이 평년대비 20%p나 앞섰다. 미국 중서부에 5월 동안 비가 적게 내렸고 토양수분수준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5월 동안은 대부분 지역에서 토양수분이 충분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건조기후 및 기록적인 고온이 지속되면서 대평원 중부 및 남부의 겨울밀 작황이 영향을 받아 5월 6일에서 6월 3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겨울밀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11%p나 감소했다.

4. 여름 (2012년 6월 - 2012년 8월)

1988년 이후 최악의 가뭄이 옥수수, 대두, 수수, 목축지에 피해를 주었다. 반면에 여름 중반~후반에 미국 남부, 동부, 중서부 일부지역에서는 비가 내려 성숙기 진입 이전의 여름작물 작황을 회복되었다. 루이지애나 주는 8월 말 허리케인 아이작으로 인해 비가 과도하게 내렸다. 허리케인 아이작으로 인해 미국 중남부와 중서부 일부지역은 가뭄이 해갈되었다.

국립기상데이터센터의 1차 정보에 의하면 2012년 6월과 8월은 각각 역대 3번째와 18번째로 건조한 월이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가장 더웠던 여름의 기록 10개 중 7개가 21세기 들어 발생했다(2002, 2003, 2006, 2007, 2010, 2011, 2012). 2012년 7월~8월 평균강수량은 평년의 90%(7.39 인치)로 2011년(강수량 7.38인치)을 제외하면 1988년 이후 가장 건조한 여름이었다. 한편 지역별 편차가 커서 네브라스카와 와이오밍 주에서는 역대 가장 건조한 여름이었으나 플로리다 주에서는 역대 가장 습한 여름이었다. 여름에 가장 건조했던 지역은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뉴멕시코, 사우스다코타였다.

■ 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화창하여 작물의 생육발달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고온건조한 기후는 작황에 악영향을 주었다. 미주리 주 일부에서는 옥수수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Rootless corn syndrome) 아이오와 주에서는 수분이 부족하여 잎이 시들었다. 7월 1일 기준으로 옥수수의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48%로 6월 3일의 72%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는 1988년(23%) 이후 이 시점의 좋음/아주 좋음 등급에 대해 최저수준이었다. 고온현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겨울밀의 건조 및 수확은 급속히 이루어졌다. 7월 1일 기준 전국 겨울밀 수확율은 기록적인 69%였다.

■ 7월

고온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나 성숙속도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7월 8일 기준 콜로라도, 미시간,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의 겨울밀 수확율은 평년대비 49%p 앞섰다. 콘벨트 동부는 7월 말에 필요했던 비가 내렸으나 7월 29일 기

준 옥수수의 94%가 이미 결정적인 수분기(pollination)에 진입했으므로 이미 가뭄피해를 입은 작황이 개선되지 못했다. 콘벨트의 여러 지역에서 2기작 대두의 발아율이 토양 수분부족으로 인해 낮은 수준이었다. 7월 29일 기준 대두의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29%였는데 이는 7월 1일의 45%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이며 1988년(24%) 이후 최저수준이다.

■ 8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폭 못 미쳤으나 8월 기온은 평년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한편 허리케인 아이작으로 인해 루이지애나 남동부에 내린 강수량은 16인치를 초과했다. 8월 초에 콘벨트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비가 내려 늦심은 옥수수 작황이 도움을 받았으나 이미 가뭄피해를 입고 성숙기에 진입한 옥수수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재배지역에서는 옥수수를 수확하지 않고 줄기를 가축사료용 사일리지(silage)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작황이 너무 좋지 않아 곡물보다는 줄기의 영양분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8월 초 기후가 건조하고 화창하여 봄밀의 수확속도가 평년보다 대폭 높은 수준이었다. 8월 중순에는 콘벨트 동부에 적시에 비가 내려 늦심은 대두의 꼬투리 발달(pod fill)에 도움이 되었고 작황이 개선되었다.

5. 가을 (2012년 9월 - 2012년 11월)

미국 중부에서는 건조기후가 강해졌고 이로 인해 대평원에서 경질밀(HRW)의 입모가 불량해졌다. 대평원 남부는 9월에는 기후가 순조로웠으나 10월과 11월 동안 극도로 건조한 기후가 지배적이었다. 한편 캘리포니아 북부, 미국 북서부, 대평원 북부는 9월 동안 극도로 건조했으나 10월과 11월 동안 상대적으로 습한 기후가 발달했다. 콘벨트 동부를 포함한 미국 동부지역에는 가을 동안 비가 내려 가뭄이 거의 해갈되었으나 남서부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심화되었고 콘벨트 서부에는 토양수분부족문제가 심각해졌다. 국립기상데이터센터에 의하면 미국의 가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화씨 1.1도 높았고 평균강수량은 평년의 85%(5.71 인치) 수준이었다.

■ 9월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높아 작물의 발달속도를 높였고 밭작업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대호 서쪽지역의 강수량이 평년의 25%에 못 미쳐 작황 및 토양수분수준은 더욱 악화되었다. 아이오와 주에서는 9월 초의 바람피해로 인해 옥수수의 약한 줄기들을 서로 엮는 작업을 했다. 9월 9일 기준 사실상 봄밀 수확은 완료되었다. 9월 9일 기준 여러 지역에서 2013년 겨울밀의 파종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대평원 및 태평양 연안 북서부지역에서는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파종의 시작이 지연되었다. 아칸소 주에서 뇌우로 인한 쌀 도복피해가 발생하여 9월 중순에 쌀 수확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전국적으로 쌀 수확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9월 말 기후가 순조로워 대두의 성숙이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미국 중서부지역의 생산농가들은 관심을 옥수수에서 대두로 옮겼다. 9월 30일 기준 대두 수확율은 41%로 5년 평균대비 22%p 앞선 수준이었다.

■ 10월

기온은 평년에 가까우나 강수량은 평년에 못 미쳤다. 생산농가들은 여름작물의 남은 수확을 마무리하고 겨울작물을 파종했다. 그러나 대평원에서 겨울밀의 발아 및 입모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1월 4일 기준 겨울밀의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39%에 불과했는데 전년 동기의 비율은 49%였다.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의 겨울밀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각각 37%, 21%, 34%였는데 전년 동기의 비율은 45%, 42%, 21%였다. 건조기후로 인해 11월 4일 기준 옥수수 수확율은 95%로 5년 평균대비 24%p 빨리 진행되었다. 한편 콘벨트 동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대두 수확이 지연되었다. 미국 중서부 중부 및 서부에서는 수확작업이 마무리되었다.

■ 11월

대평원 중부 및 남부의 강수량은 평년의 5%에도 못 미쳤고 겨울밀의 발아 및 생육발달이 제한을 받았다. 11월 25일 기준 겨울밀의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33%로 1986년 등급측정이 시작한 이후 최저수준이었다. 옥수수는 봄에 파종이 일찍 시작했고 여름 동안 생육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11월 4일 기준 옥수수 수확율은 이미 95%였다. 이는 1987년 이후 가장 빠른 수확속도였다.

6. 겨울(2012년 12월 - 2013년 1월)

■ 12월

12월 동안 간헐적으로 미국 중부지역에 비가 내리기도 했으나 경질밀 작황은 변함이 없거나 악화되었다. 이는 입모을 불량 및 심각한 토양수분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한편 연질밀 재배지역, 특히 오하이오 강 유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 미국 동부, 특히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부터 인터마운틴웨스트에 이르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비가 내렸다. 그러나 미국 서부의 기후는 불안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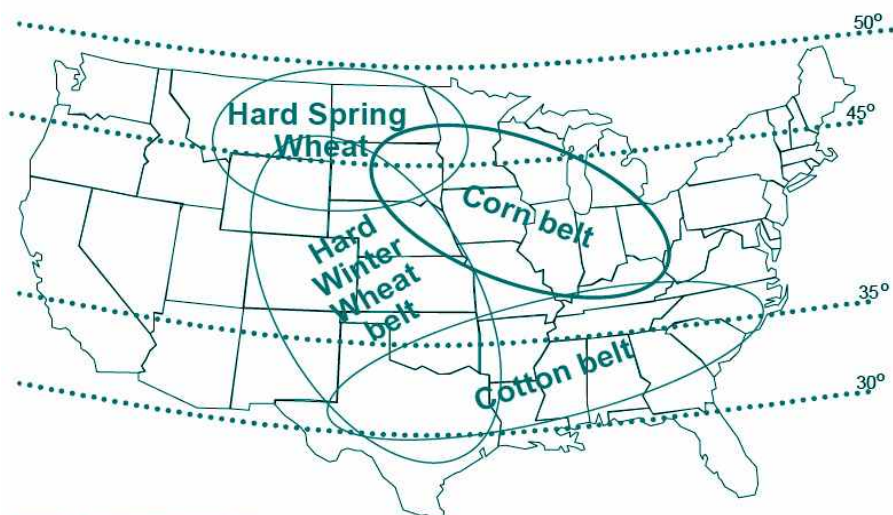
■ 1월

1월 동안 대평원에 산발적인 비가 내렸으나 미국 중부지역에는 가뭄이 확장되었다. 1월 27일 기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의 겨울밀 나뭇/아주 나뭇 등급은 각각 69%, 66%, 50%로 절반 이상이 나뭇/아주 나뭇 수준이었다. 캔자스 밀의 나뭇/아주 나뭇은 39%였다. 대평원 북부지역에는 강설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쌓인 눈이 겨울밀에 보온효과를 더해 주었다. 대평원 남부에도 이따금 비가 내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의 효과를 상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미국 서부지역은 서늘하면서 건조했으나 1월 말 폭풍전선으로 인해 남서부지역에서는 가뭄이 일부 해갈되었다.

강수량은 지역차이가 컸다. 적색경질밀 재배지역의 강수량은 0.1인치 미만이었으며 사실상 쌓인 눈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미시시피 강 삼각주지역의 강수량은 10인치 이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미시시피강 동쪽지역의 토양수분수준이 보충되었다.

평원 남부지역은 건조기후로 토양수분이 고갈되어 겨울밀 작황이 악화되었으며 쌓인 눈이 거의 없어 작물이 추위에 노출되었다. 1월 27일 기준 캔자스 겨울밀의 나뭇/아주 나뭇은 39%로 12월 30일의 31%에 비해 더 악화되었다. 오클라호마 겨울밀의 나뭇/아주 나뭇은 69%로 12월 30일의 61%에 비해 더 악화되었다.

미국의 곡물 주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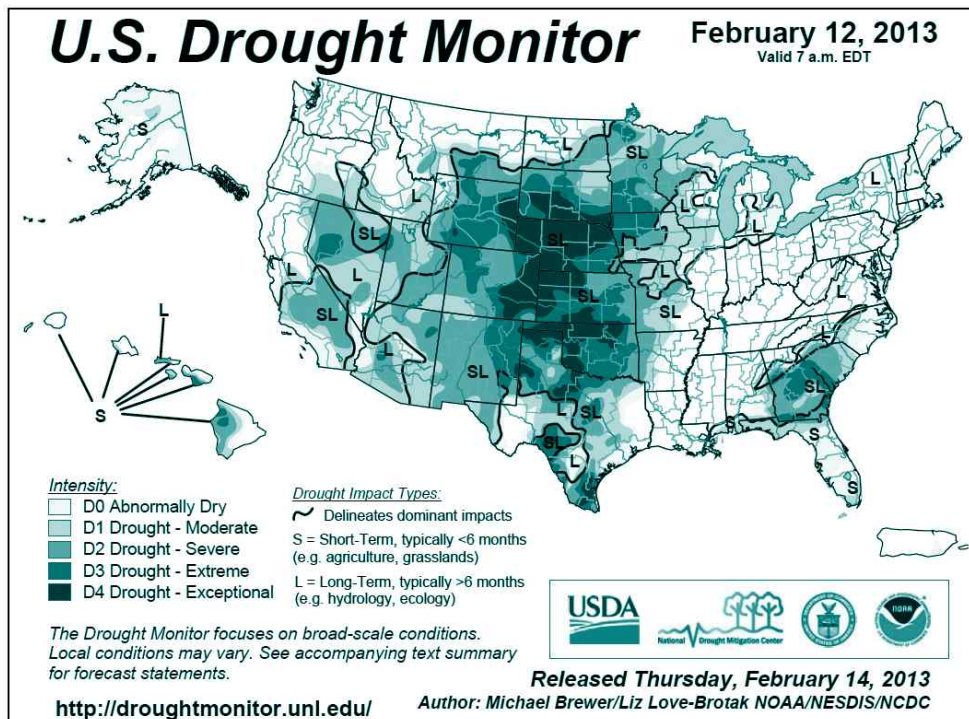


Sour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3년 2월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요약

1. 미국

미국 2월 가뭄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0(No. 8), February 20,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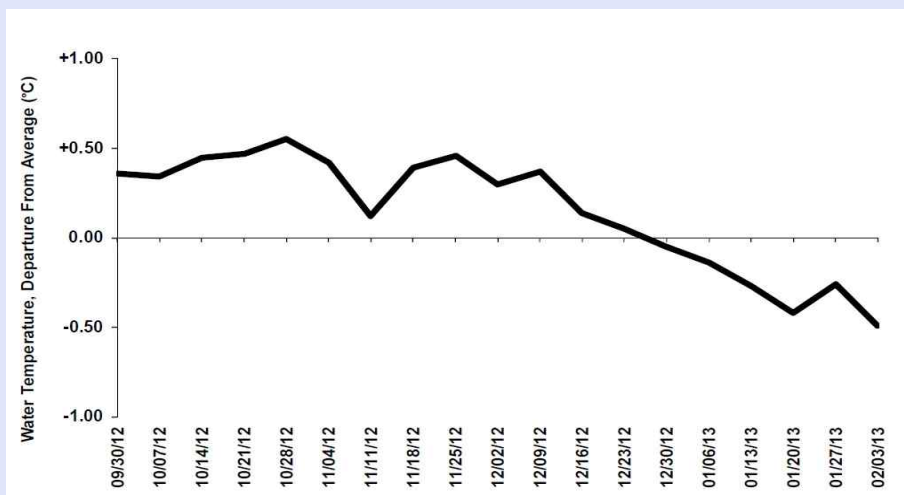
USDA/NASS는 2월 첫째 주에 캔자스 서부에 모래바람이 불어 캔자스 주 겨울밀의 19%가 강풍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2월 초 연이은 폭풍이 많은 양의 비를 내려 콘 벨트 중부, 중서부, 남동부의 가뭄이 완화되었다. 적색경질밀(HRW) 재배지역인 서부 지역은 서늘하면서 건조했다. 1월말 비가 내려 남서부지역에서는 가뭄이 일부 해갈되었으나 북서부지역에는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아 입모율이 불량한 상황이었다.

2월 중순 강수량은 지역차이가 컸다. 적색경질밀 재배지역의 강수량은 0.1인치 미만이었으나 미시시피 강 삼각주지역의 강수량은 10인치 이상이었으며 토양수분 수준이

보충되었다.

2월 말 대평원 북부의 동쪽지역은 폭풍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평원 남부지역에도 필요했던 비와 눈이 내렸다. 그러나 대평원 중부 및 고원 북부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이 수분이 더 필요한 가운데, 2월 17일 기준 미국 전체 겨울밀의 49%가 나뭇/아주 나뭇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생산농가들은 봄 파종을 준비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에서는 옥수수와 수수가 이미 파종되고 있다.

태평양 적도 부근 표층수온 증감 상황 및 전망(2012년 9월~2013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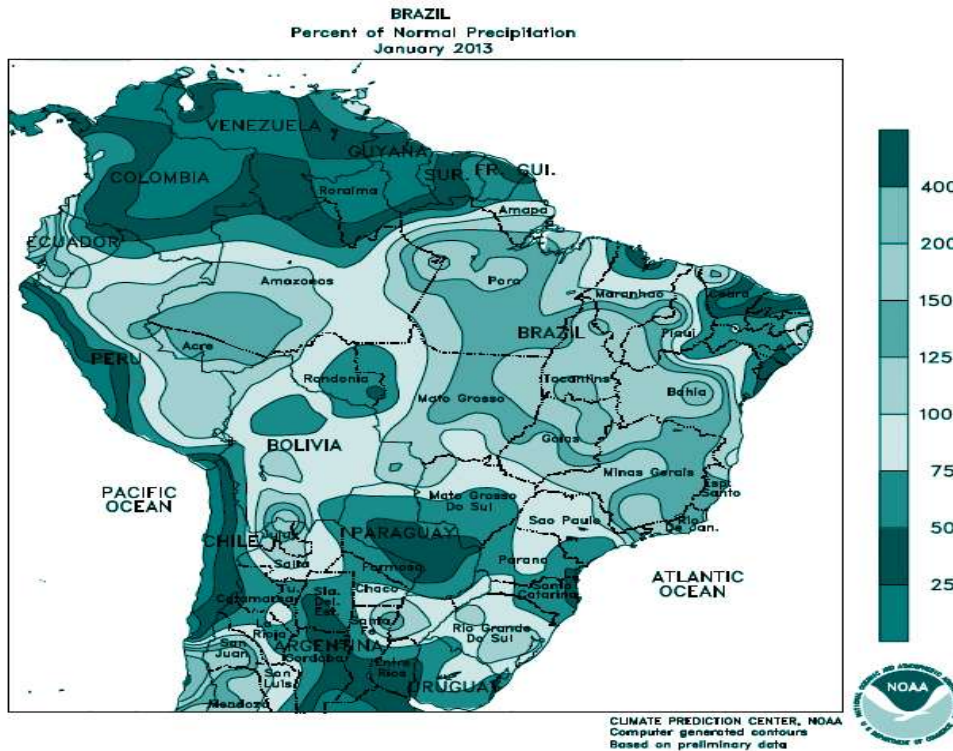


자료: 호주 기상청

엘니뇨/라니냐는 2013년 봄까지 중립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상기후현상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서부의 대기 및 강수량 패턴은 일반적으로 라니냐현상에 상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2/13연도 현재까지(2012년 10월 1일 ~ 2013년 2월 20일)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북서부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고 남서부지역은 평년보다 건조하다.

2. 브라질

브라질 2013년 1월 강수량(평년대비, %)



자료: USDA, 「WEEKLY WEATHERAND CROP BULLETIN」, Volume 100(No. 8), February 20, 2013

1월

1월 동안 거의 모든 재배지역에서 강수량이 평년과 유사하거나 더 많았다. 중서부지역(Mato Grosso, Goiás, Mato Grosso do Sul)에 비가 내려 성숙기에 진입하지 못한 대두와 파종한지 얼마 되지 않은 2기작 옥수수의 생육상황이 좋아졌으나 발작업 진행 속도는 둔화되었다. 북동부지역은 12월 동안 건조했으나 1월에 비가 내려 생육상황이 나아졌다. 브라질 남부는 1월 초에 비가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기후가 건조해져 성숙기에 진입하지 못한 옥수수와 대두의 수분이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중부 및 북동부의 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높아(낮 최고기온 30℃ 중반) 대두, 옥수수 등의

생육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남부지역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1월말 건조기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낮 최고기온이 30℃ 중반에 이르렀다.

■ 2월

2월 초 남부지역은 계절적이지 않게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어 옥수수와 대두의 수분이 감소했다. 이 지역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2~3℃ 높으며 낮 최고기온은 30℃ 초중반이어서 가뭄이 악화되었다. 파라과이에서도 기후가 유사하였다. 그러나 주산지인 브라질 중부지역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충분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다. 브라질 중부 및 남동부 주산지, 내륙 북동부에는 국지적으로 호우(강수량 25~100mm 이상)가 내려 대두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브라질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중서부지역(마투구루수, 고이아스, 마투구루수두술 북부)에서 대두 수확이 진행 중이며 수확이 끝난 농지에는 곧바로 2기작 옥수수를 파종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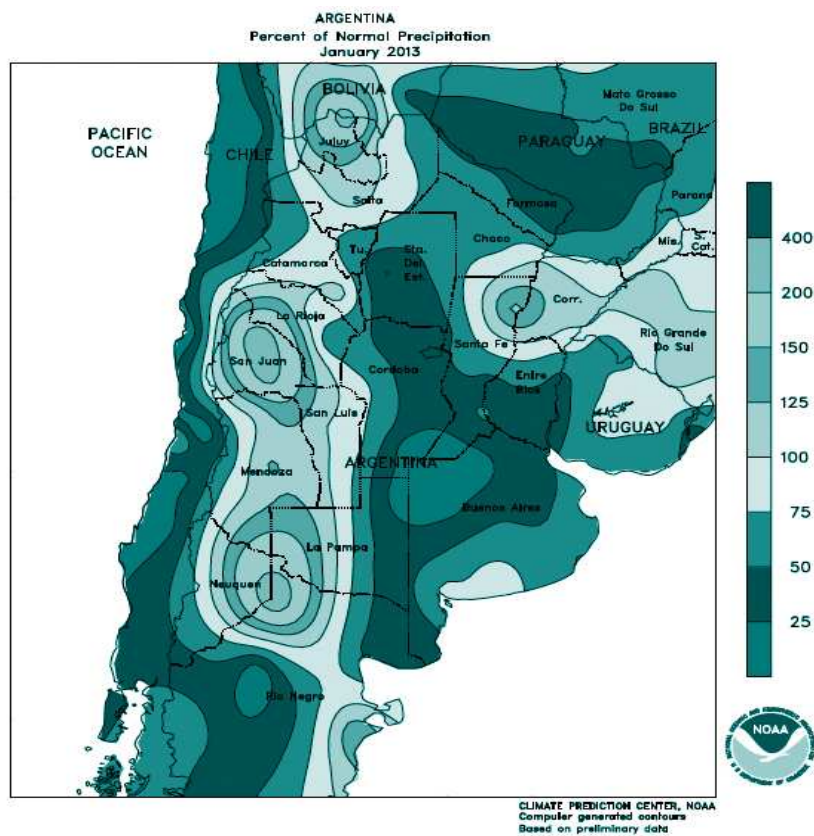
2월 중순 건조했던 남부 주산지에 필요했던 비가 내려 옥수수와 대두가 도움을 받았다. 리우그란테두술(Rio Grande do Sul)은 건조기후가 가장 오래 지속되었으므로(3주 이상) 이번에 내린 비가 큰 도움이 되었으나 주간 총 강수량이 10~50mm로 여전히 평년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건조기후가 2주간 지속되었던 지역인 Santa Catarina, Parana, Mato Grosso do Sul 남부지역에는 호우(강수량 25~135mm)가 내려 옥수수, 대두의 수분이 증가했다. 중서부 지역(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북부)은 계절적으로 온난하고(낮 최고기온 30℃ 초반) 습한 기후로 인해 대두 및 기타 여름작물이 도움을 받았다. 대두 재배지역인 북동부 내륙지역은 건조기후가 서쪽으로 확장되어 Bahia 서부 및 인근 Goias의 총 강수량이 25mm미만이였다.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작물의 생육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졌으나 이에 작물의 수분 필요량이 더욱 증가했다.

2월 말 남부 및 중부지역에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북동부 내륙지역은 계절적이지 않은 건조기후가 심화되었다. 남부지역에서는 비로 인해 여름작물(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및 밭아종인 2기작 옥수수(safrinha)의 작황이 좋아졌으나 성숙기에 일찍 진입한 대두의 수확속도가 지연되었다. 반면에 중동부지역(바히아, 미나스제라이스 등) 및 인근한 중서부지역과 북동부 내륙지역은 건조기후가 지배적이다. 중서부지역(고이아스, 마투구루수두술 북부)은 건조기후로 인해 대두의 수확 및 후작인 옥수수의 파종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보다 동쪽에 있는 바히아 서부지역 및 인근 토

칸턴스, 피아우이, 마라냥에서는 건조기후로 인해 대두의 수분이 감소했다. 주산지의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 고온현상이 심하여(최고 3-4℃ 높고 낮 최고기온은 30℃ 중후반) 수분의 증발이 많이 일어났다.

3.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2013년 1월 강수량(평년대비, %)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0(No. 8), February 20, 2013

■ 1월

수개월 동안 과도하게 비가 많이 내렸으나 1월동안 건조하고 이따금씩 온화해지는 기후로 인해 여름작물 및 유지작물의 수분이 감소했다. 주산지인 코르도바(Cordoba) 남부와 라팜파(La Pampa) 북부에서 동쪽으로 파라나(Parana)강 하류에 이르는 지역(산타페 남부, 엔트레리오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의 총강수량은 50mm 미만(평년의 50% 미만)이었다. 기후가 건조해져 초반에는 그동안 과도했던 습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건조함이 지속되자 옥수수과 대두에 필요한 수분이 고갈되었으며 특히 늦게 파종하여 아직 뿌리가 충분히 내리지 못한 작물의 작황피해가 가장 컸다. 월평균 기온은 평년에서 1℃전후 수준이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30℃ 중반이어서 수분증발율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었다. 보다 북쪽에서는 강수량이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어서 여름작물, 유지작물에 적시에 수분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북서부지역은(산티아고델에스테로, 차코, 포르모사) 기온이 높아(월평균기온 평년보다 1-2℃ 높은 수준이며 낮 최고기온 40℃에 이름) 작물의 수분필요량이 많았다.

■ 2월

2월 초 옥수수, 대두 주산지인 중부지역에 비가 재개되었으나 일부 주산지에는 건조기후가 지속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서지역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조기후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2~3℃ 높고 낮 최고기온이 30℃ 중후반에 이르므로 수분증발율이 높은 수준이다. 북부 지역에는 보통~약한 소나기(강수량 5-50mm)가 계속 내렸으며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2~4℃ 높고 낮 최고기온은 수일 동안 40℃를 초과했다. 따라서 늦파종한 옥수수와 대두의 발아속도가 가속화되었으나 수분증발율이 높은 수준이다.

2월 중순 중부지역에 계절적이지 않게 온난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있어 옥수수, 대두의 수분이 더욱 감소하고 있다. 특히 12월 이후 건조기후가 지속되었던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서부지역에서는 단수의 추가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비가 즉시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의하면 옥수수, 대두 파종율은 2월 7일 기준 각각 97%, 99%로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한다.

2월 말 오랜 기간 건조했던 중부 주산지에 소나기가 내려 기름이 일부 해갈되었다. 코르도바, 산타페, 엔트레리오스, 라팜파 북부지역,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지역에는

총강수량 10~25mm의 비가 내려 다양한 생육단계의 곡물 및 유지작물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기에는 강수량이 부족했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서부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또한 주간기온은 평년보다 2~5℃ 높아 수분증발율이 높았다(낮 최고기온 30℃ 중반). 북부지역에는 많은 양의(25~100 mm) 비가 내려 늦과종하여 아직 성숙기에 진입하지 않은 여름작물, 유지작물의 수분수준을 증가시켰다. 북부지역도 중부와 마찬가지로 주간기온이 평년보다 2~5℃ 높았으며 산티아고델에스테로(Santiago del Estero)에서 포르모사(Formosa)에 이르는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40℃까지 올랐다.

4. 유럽

■ 1월

1월 동안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고 기온은 평년과 유사하거나 낮아 겨울작물 및 유지작물의 생육상황에 유리했다. 프랑스 북부 및 독일 서부에 건조한 지역(국지적으로 평년의 50%에 못 미침)이 있었지만 북유럽 겨울밀 재배지역의 평균강수량은 평년의 80~150% 수준이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총강수량이 40mm에서 국지적으로는 100mm를 초과하여 겨울밀의 생육상황이 좋아졌다. 발칸반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기후가 온화하여 동면기 겨울밀 작황에 유리했으나 겨울밀에게 보온효과를 주는 눈이 녹아내렸다.

■ 2월

2월 초 유럽대륙 기후는 온난하고 습하여 북유럽에서는 동면기 겨울밀에게 도움이 되었고 남유럽에서는 생육발달기의 겨울밀에게 도움이 되었다. 일련의 대서양성 폭풍 전선이 형성되어 중부 및 북부유럽에 광범위한 비가 내려 봄 생육발달에 필요한 저수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온난한 대서양성 기단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쌓였던 눈이 녹았으며 이에 작물이 혹한기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2월 중순 유럽대륙 전반적으로 충분한 토양수분으로 인해 겨울밀 작황이 순조로웠다.

2월 말 한랭전선으로 인해 최근 평년보다 온난했던 기후가 종료되었다. 결과적으로

북부 및 중부유럽은 기온이 하락하고 눈이 더 많이 내려 동면기의 겨울밀에 유리했다. 한편 남부 및 서부유럽에는 소나기가 내려 생육발달기의 겨울밀에 유리했다.

5. 구소련(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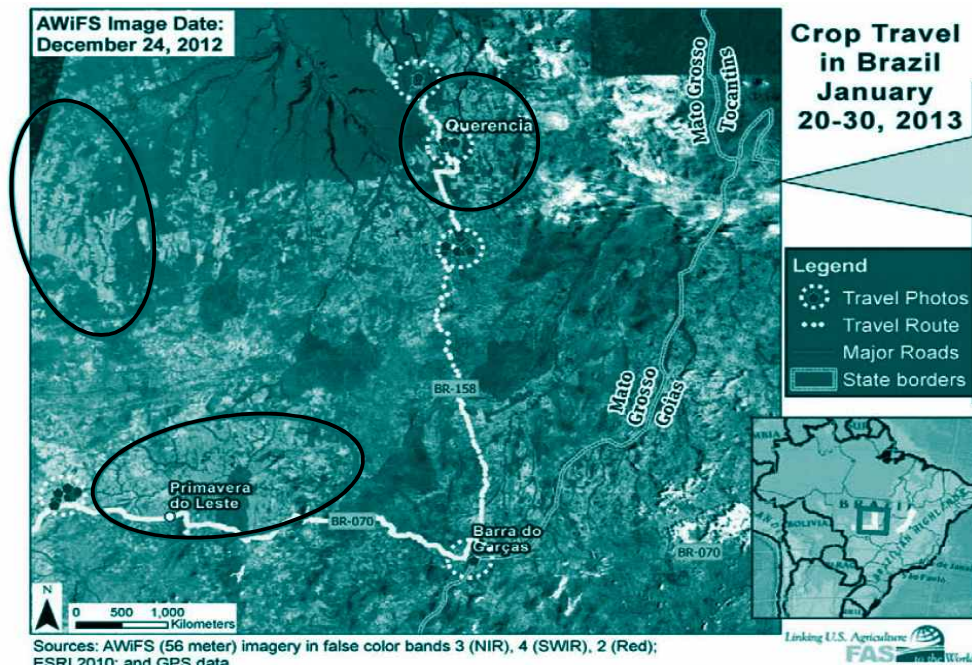
2월 초 한랭전선이 중부와 서부에 간헐적인 비와 눈(강수량 기준 2-15mm)을 내렸다. 북부 재배지역에는 눈이 추가로 내린 후 쌓여 겨울밀에게 보온효과를 더해주었다. 그러나 남쪽 재배지역에는 온난기단(평년보다 최고 6℃ 높음)으로 인해 쌓였던 눈이 녹았다.

2월 중순 폭풍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부터 러시아 중부 및 북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비와 눈(강수량 5-30 mm)이 내렸다. 이로 인해 남쪽에는 온난기류가 이동해 왔으며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최대 10℃까지 높아 남부지역에 쌓였던 눈의 대부분이 녹았다. 이에 따라 겨울밀이 혹한에 노출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남부 및 러시아 남구의 낮 최고기온이 10~20℃여서 추위에 대한 작물의 취약성이 커졌으며 일부 겨울밀은 봄이 되기 이전에 생육기로 조기진입할 위험이 발생했다.

2월 말 서부지역은 습하나 중부 및 동부지역은 건조했다. 이 지역은 11월 1일 이후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광범위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남쪽 재배지역은 2주 연속으로 주간 평균기온이 5℃이상이므로 일부 겨울밀이 동면을 끝내고 생육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동면기가 조기에 종료될 경우 뒤늦게 한파가 찾아오게 되면 겨울밀이 냉해에 취약하게 된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현장조사 보고

브라질 마투구루수지역 위성사진(1월 20~30일 현장조사)



주: 원 안의 지역은 대두 주산지임.
2013년 1월에 대두의 수확과 2기작 옥수수의 파종이 진행 중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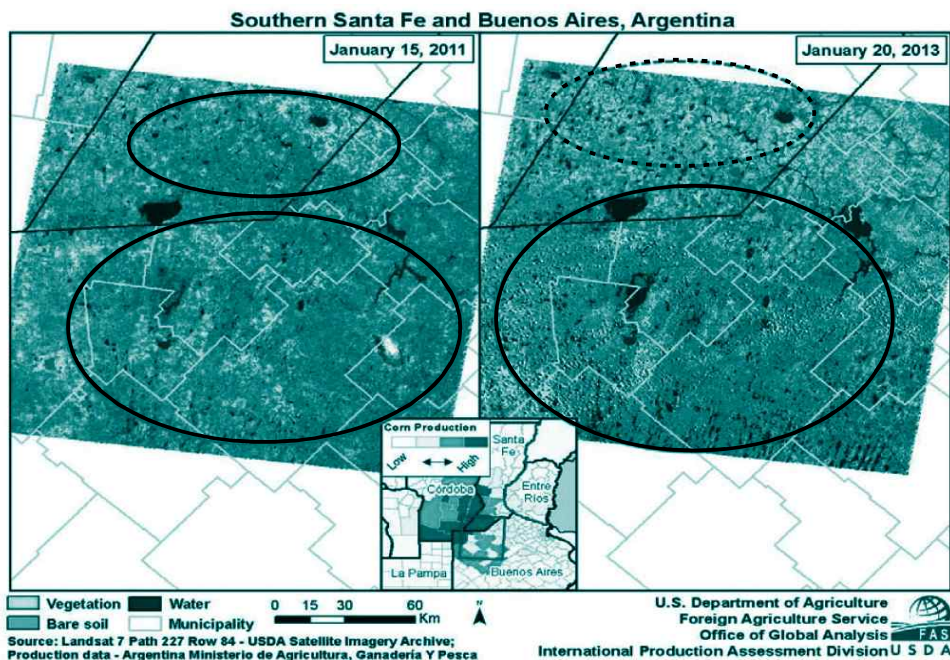
■ 강수 이후 브라질 옥수수 단수 증가

USDA의 2012/13 브라질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전월대비 150만 톤(2%) 증가한 7,250만 톤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년의 기록적인 생산량보다 50만 톤 (1% 미만) 적은 수준이다. 브라질 옥수수 재배면적은 전월과 동일하게 기록적인 1,550 만ha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30만ha(2%) 증가한 수준이다. 브라질 옥수수 단수는 5년 평균 대비 12% 증가한 4.68톤/ha로 추정된다. 브라질 1기작 옥수수의 단수는

* 본 내용은 USDA FAS에서 2013년 2월 7일 발표한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을 바탕으로 작성됨.

주산지인 파라나(Paraná)와 고야스(Goiás)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상향 조정되었다. 리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의 작황은 복잡적이다. 리우그란지두술의 단수는 2월 말 기후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safrinha라고 불리는 2기작 옥수수를 대량 재배하는데 브라질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54%가 2기작 옥수수이다. 2기작 옥수수(safrinha)는 1월에 일찍 파종한 대두가 수확된 이후 파종된다. 2013년 1월 말 USDA FAS의 애널리스트들은 마투구루수(Mato Grosso)의 2기작 옥수수(safrinha) 주산지를 현지조사했다. 마투구루수(Mato Grosso)에 내린 비로 인해 일찍 파종한 대두의 수확이 지연되었으나 생산농가들은 대두 수확을 완료하고 2기작 옥수수(safrinha)를 파종할 수 있었다. 마투구루수에서 옥수수 파종은 3월 초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빨리 파종할수록 옥수수 단수가 높으므로 생산농가들은 가능한 한 빠른 파종을 원했다. 2기작 옥수수(safrinha) 단수는 우기의 지속기간이 결정한다. 2012년 마투구루수지역의 우기는 6월까지 연장되었고 그 결과 2기작 옥수수(safrinha)의 단수가 기록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우기는 통상적으로 4월 중순~말에 종료된다.

아르헨티나 산타페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위성사진(2013.01.15일과 20일)



주: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유통연도 초반의 홍수와 현재 북동부지역의 표토층 건조 상황으로 인해 파종면적이 유실된 것으로 나타남.

■ 아르헨티나 옥수수 작황

USDA는 2012/13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량을 전월대비 4% 감소한 2,70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11/12 생산량인 2,100만 톤에 비해 29% 많은 수준이다. 수확면적은 전월과 동일한 350만ha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에 가뭄피해를 받았던 수확면적에 비해 3% 적은 수준이다. 옥수수 단수는 전월대비 4% 감소한 7.71톤/ha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32% 높은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옥수수 작황 및 발달단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기후변화가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어려웠다. 등숙기 단계 옥수수의 일부는 수분부족과 옥수수 응애(corn mite) 피해 때문에 잎이 황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때 강수량이 과도했었다가 현재 표토층의 수분이 부족해진 지역의 생산농가들은 조밤나방/armyworm), 이화명나방(stem borer, 줄기를 천공시킴) 및 잎마름병(blight), 흑수병(smoot)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토양수분은 40~80mm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 더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중부 및 북부에서는 수확이 시작했으며 남부에서는 늦파종이 마무리되고 있다.

■ 브라질 대두 단수, 많은 양의 비가 내린 후 상황 조정

2013년 1월 USDA FAS 애널리스트들은 브라질 대두 주산지인 마투구루수(Mato Grosso)와 생산량의 변동이 큰 지역인 바히아(Bahia)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두 지역의 대두 작황은 모두 매우 좋았다. 마투구루수에서는 일찍 파종한 조생종 대두의 수확이 시작되었으며 이 지역 대두 단수는 작년처럼 좋은 수준이라고 보고되었다. 바히아에서는 2012년 가뭄피해로 인해 단수가 낮은 수준이었었는데 금년 대두 단수는 전년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투구루수에서는 조생종 대두 수확기 동안 비가 내려 수확이 지연되고 대두 품질이 하락했으나 한편 이 비는 중생종 및 만생종 대두의 단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마투구루수의 대두 수확기는 2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금년 브라질 생산농가들은 높은 대두 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재배면적을 전년대비 10% 늘렸으며 이에 브라질 대두 재배면적은 기록적인 2,750만ha로 추정된다.

■ 아르헨티나 대두 작황 개선되고 있으나 건조기후 우려 있음

2012/13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량은 전월대비 2% 감소한 5,300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대비 32% 많은 수준이다. 재배면적은 전월과 동일한 1,950만ha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1/12년 고온건조하여 옥수수 작황이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많은 생산농가들이 악천후에 잘 견디는 보다 안전한 작목인 대두로 전환했다. 대두는 투입비용이 다른 작목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수출세가 높은 수준이나 다른 곡물과는 달리 수출제한이나 수출할당물량이 정해져있지 않다. 단수는 전월대비 2% 감소한 2.72톤/ha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수준이다.

2012/13 아르헨티나 대두 파종은 완료되었으며, 너무 건조하여 파종이 지연되었던 북부지역에서도 완료되었다. 이른 파종을 한 대두의 대부분은 결협기(pod-set)단계인 반면 2기작이거나 늦파종을 한 대두는 대부분 생식성장단계여서 수분수준에 민감하다. 현재 생산농가들은 살충제 살포시기를 정하기 위해 유충현황을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간 넓은 지역에 제한적으로 비가 내렸으나 수분이 부족하므로 작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part 05 [부록] 통계

2013 World Grain Market



세계 곡물 통계 / 189

주요 수출국 대두가공품 통계 / 193

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144,412	2.75	269,908	12,413	11,258	270,066	52,606
1981/1982	144,375	2.83	277,902	11,726	10,232	278,456	50,503
1982/1983	140,526	2.98	284,974	10,731	9,884	277,833	56,781
1983/1984	144,613	3.12	306,942	12,515	10,708	292,600	69,316
1984/1985	144,067	3.23	316,758	10,740	10,615	298,287	87,662
1985/1986	144,728	3.23	317,986	11,485	10,311	306,784	97,690
1986/1987	144,809	3.21	316,051	13,063	10,686	308,060	103,304
1987/1988	141,432	3.29	315,092	11,572	10,452	312,026	105,250
1988/1989	146,582	3.35	332,117	14,015	11,701	323,373	111,680
1989/1990	147,811	3.45	345,247	11,484	10,589	335,392	120,640
1990/1991	146,966	3.53	351,371	12,115	10,593	343,821	126,668
1991/1992	147,486	3.55	353,235	14,453	12,028	350,794	126,684
1992/1993	146,480	3.58	354,003	14,876	12,954	355,574	123,191
1993/1994	145,332	3.62	354,700	15,837	16,138	359,239	118,953
1994/1995	147,342	3.66	364,148	21,058	19,380	363,850	117,573
1995/1996	148,352	3.69	368,791	19,820	18,127	366,581	118,090
1996/1997	150,083	3.77	381,382	19,110	16,666	376,768	120,260
1997/1998	151,708	3.79	387,433	26,646	24,232	377,539	127,740
1998/1999	153,114	3.83	394,915	25,633	25,219	388,228	134,013
1999/2000	155,860	3.91	409,176	22,837	20,268	397,550	143,070
2000/2001	152,443	3.90	399,260	24,100	22,203	393,697	146,736
2001/2002	151,349	3.93	399,472	26,883	26,053	412,489	132,889
2002/2003	146,894	3.83	378,199	28,684	26,476	405,916	102,964
2003/2004	149,316	3.92	392,312	27,427	25,003	411,277	81,575
2004/2005	151,839	3.93	400,920	28,260	26,071	406,276	74,030
2005/2006	153,852	4.04	417,312	29,734	26,618	411,511	76,715
2006/2007	154,503	4.04	419,901	31,442	28,673	418,392	75,455
2007/2008	154,948	4.14	432,595	31,477	30,035	425,725	80,883
2008/2009	158,203	4.22	448,701	28,957	27,323	435,545	92,405
2009/2010	156,130	4.21	441,122	31,136	28,205	435,406	95,190
2010/2011	157,507	4.25	449,091	34,899	32,863	443,562	98,683
2011/2012	158,927	4.36	465,027	39,156	35,966	455,064	105,456
2012/2013 (추정)	158,435	4.38	465,808	37,490	34,444	466,269	101,949

□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236,901	1.84	435,867	90,126	89,496	443,433	112,657
1981/1982	238,911	1.86	444,995	100,376	97,042	441,758	112,545
1982/1983	238,353	1.98	472,739	100,949	93,230	447,850	129,929
1983/1984	229,923	2.11	484,307	101,794	97,994	465,073	145,359
1984/1985	231,669	2.20	508,913	103,646	101,573	484,075	168,124
1985/1986	229,826	2.15	494,811	82,452	80,505	482,527	178,470
1986/1987	227,895	2.30	524,082	89,274	86,488	508,470	191,296
1987/1988	220,087	2.27	498,710	111,565	112,247	531,254	159,434
1988/1989	217,878	2.27	495,276	105,151	102,384	516,684	135,259
1989/1990	226,333	2.36	533,132	103,419	98,797	526,684	137,085
1990/1991	231,015	2.55	588,801	103,843	99,003	549,477	171,569
1991/1992	222,770	2.44	543,510	109,948	108,361	550,254	163,238
1992/1993	222,061	2.53	562,634	110,039	108,810	546,474	177,869
1993/1994	221,044	2.53	558,470	103,717	98,561	547,828	183,355
1994/1995	213,326	2.45	523,031	98,215	99,877	543,801	164,247
1995/1996	216,715	2.48	537,516	99,195	97,293	544,183	155,678
1996/1997	227,103	2.56	581,345	106,924	98,470	564,908	163,661
1997/1998	226,424	2.69	610,232	104,370	103,698	575,957	197,264
1998/1999	219,179	2.69	590,436	101,298	100,075	576,990	209,487
1999/2000	212,528	2.76	586,828	113,449	109,183	581,156	210,893
2000/2001	215,655	2.70	583,231	101,531	99,985	585,322	207,256
2001/2002	214,535	2.72	583,792	105,903	106,277	587,107	204,315
2002/2003	213,601	2.66	569,712	105,612	103,977	602,831	169,561
2003/2004	207,731	2.67	555,356	108,511	101,226	581,738	135,894
2004/2005	215,976	2.90	626,620	111,288	110,567	605,534	156,259
2005/2006	217,798	2.83	618,716	117,399	112,046	616,235	153,387
2006/2007	211,737	2.81	596,275	111,847	114,137	618,126	133,826
2007/2008	217,123	2.82	612,330	117,240	113,525	614,226	128,215
2008/2009	224,253	3.04	683,419	144,517	137,960	636,943	168,134
2009/2010	225,291	3.04	686,745	136,983	133,792	650,667	201,021
2010/2011	217,132	2.99	652,021	132,759	131,640	653,988	197,935
2011/2012	221,757	3.14	696,637	157,292	148,465	689,206	196,539
2012/2013 (추정)	215,845	3.03	653,614	131,666	139,253	681,012	176,728

□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131,189	3.12	408,734	80,308	74,263	411,826	102,541
1981/1982	133,040	3.32	441,753	68,083	72,177	421,225	127,163
1982/1983	125,245	3.51	439,869	59,535	66,623	424,356	149,764
1983/1984	119,699	2.91	348,272	60,955	58,542	406,641	88,982
1984/1985	128,969	3.55	458,366	67,008	66,256	428,446	118,150
1985/1986	130,999	3.66	479,020	55,302	53,470	417,666	177,672
1986/1987	131,859	3.61	475,444	55,077	52,484	445,661	204,862
1987/1988	126,860	3.56	450,997	59,128	57,323	456,354	197,675
1988/1989	126,108	3.18	400,413	68,461	66,465	450,832	145,260
1989/1990	127,310	3.63	461,690	72,176	73,603	475,526	132,851
1990/1991	129,102	3.73	481,963	58,389	58,547	473,577	141,395
1991/1992	132,498	3.72	492,950	62,053	63,107	494,366	141,033
1992/1993	133,080	4.02	535,605	63,263	60,289	509,088	162,714
1993/1994	130,703	3.64	475,773	58,861	56,973	507,161	129,438
1994/1995	135,169	4.14	559,332	66,126	68,911	538,207	153,348
1995/1996	134,966	3.83	516,371	70,422	65,702	531,717	133,282
1996/1997	141,477	4.19	592,817	65,572	64,846	559,029	166,344
1997/1998	136,250	4.22	574,378	63,347	63,206	573,373	167,208
1998/1999	138,919	4.36	605,803	66,938	66,501	581,213	191,366
1999/2000	138,979	4.38	608,409	75,767	70,960	600,783	194,199
2000/2001	137,169	4.31	591,412	76,856	75,047	608,681	175,121
2001/2002	137,554	4.37	601,233	74,666	71,579	621,995	151,272
2002/2003	137,307	4.39	603,417	76,941	75,918	626,893	126,773
2003/2004	141,944	4.42	627,097	77,250	76,941	649,099	104,462
2004/2005	145,434	4.92	716,080	77,700	75,982	688,084	130,740
2005/2006	145,748	4.80	700,639	81,012	80,291	706,124	124,534
2006/2007	149,435	4.78	715,120	93,968	90,269	725,247	110,708
2007/2008	160,572	4.95	794,555	98,632	98,256	773,041	131,846
2008/2009	158,830	5.04	800,382	84,458	82,470	782,516	147,724
2009/2010	158,640	5.19	823,714	96,854	89,745	818,418	145,911
2010/2011	163,897	5.08	832,325	91,478	92,385	851,220	127,923
2011/2012	169,679	5.2	882,472	117,025	99,000	861,363	131,007
2012/2013 (추정)	174,806	4.89	854,376	90,026	95,670	872,986	118,041

□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49,761	1.63	80,926	25,342	26,217	83,943	16,522
1981/1982	49,971	1.72	86,083	29,316	29,107	87,335	15,061
1982/1983	52,060	1.80	93,455	28,617	28,366	90,961	17,304
1983/1984	50,748	1.64	83,104	26,221	25,485	86,006	13,666
1984/1985	53,713	1.73	93,063	25,249	25,419	88,964	17,935
1985/1986	51,991	1.87	97,006	26,061	27,325	92,612	23,593
1986/1987	51,577	1.90	98,049	28,552	29,071	102,126	20,035
1987/1988	54,062	1.92	103,654	30,114	28,143	101,018	20,700
1988/1989	55,659	1.72	95,857	23,558	23,901	97,347	19,553
1989/1990	58,355	1.84	107,192	27,275	26,562	104,120	21,912
1990/1991	54,419	1.92	104,290	25,392	25,546	104,620	21,747
1991/1992	54,944	1.95	107,297	28,098	28,220	109,290	19,794
1992/1993	56,595	2.07	117,206	29,296	30,047	115,894	21,857
1993/1994	60,258	1.95	117,582	27,729	28,178	120,808	19,080
1994/1995	62,150	2.21	137,646	31,982	32,762	132,389	25,117
1995/1996	61,063	2.04	124,698	31,643	32,462	131,673	18,961
1996/1997	62,430	2.11	131,942	36,764	35,631	133,941	15,829
1997/1998	68,528	2.30	157,950	39,314	38,164	145,057	27,572
1998/1999	71,299	2.24	159,826	37,928	38,550	158,769	29,251
1999/2000	71,914	2.23	160,347	45,634	45,572	159,306	30,230
2000/2001	75,439	2.33	175,759	53,817	53,076	171,500	33,748
2001/2002	79,466	2.33	184,815	52,996	54,368	184,332	35,603
2002/2003	81,484	2.42	196,887	61,339	62,884	191,152	42,883
2003/2004	88,395	2.11	186,621	56,042	54,082	189,042	38,492
2004/2005	93,163	2.32	215,760	64,752	63,477	204,353	48,622
2005/2006	92,895	2.38	220,647	63,803	64,087	216,022	53,531
2006/2007	94,309	2.50	235,962	71,090	68,963	224,869	62,497
2007/2008	90,591	2.42	219,545	78,628	78,336	229,479	52,271
2008/2009	96,340	2.20	211,636	76,894	77,391	221,046	43,358
2009/2010	102,164	2.55	260,245	91,862	86,838	237,964	60,615
2010/2011	102,998	2.56	263,589	91,116	88,796	251,962	69,922
2011/2012	102,895	2.32	238,725	90,423	93,206	256,182	55,249
2012/2013 (추정)	108,899	2.47	269,499	98,861	96,550	262,315	60,122

자료: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주요 수출국 대두가공품 통계

■ 대두박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724	408	0	199	260
1981/1982	1,034	736	0	211	347
1982/1983	1,720	1,547	0	226	294
1983/1984	2,374	2,117	0	225	326
1984/1985	3,077	2,875	0	226	302
1985/1986	3,489	3,155	0	226	410
1986/1987	3,891	3,467	0	227	607
1987/1988	4,291	4,050	0	224	624
1988/1989	4,785	4,863	0	225	321
1989/1990	4,965	4,004	0	221	1,061
1990/1991	5,550	5,574	0	221	816
1991/1992	6,165	6,191	0	223	567
1992/1993	6,800	6,090	0	238	1,039
1993/1994	7,000	6,287	0	245	1,507
1994/1995	6,950	6,600	0	265	1,592
1995/1996	8,200	8,277	0	265	1,250
1996/1997	8,867	8,876	0	270	971
1997/1998	10,357	9,235	1	275	1,819
1998/1999	13,468	13,423	0	325	1,539
1999/2000	13,712	13,309	0	335	1,607
2000/2001	13,718	13,730	5	325	1,275
2001/2002	16,559	16,586	0	325	923
2002/2003	18,663	18,468	0	365	753
2003/2004	19,761	19,221	2	450	845
2004/2005	21,601	20,650	0	500	1,296
2005/2006	25,012	24,222	1	535	1,552
2006/2007	26,061	25,625	1	544	1,445
2007/2008	27,071	26,816	3	630	1,073
2008/2009	24,363	24,025	4	660	755
2009/2010	26,624	24,914	2	711	1,756
2010/2011	29,312	27,615	0	750	2,703
2011/2012	27,945	26,043	0	815	3,790
2012/2013 (추정)	29,100	28,000	0	890	4,000

□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10,615	7,740	0	2,346	1,292
1981/1982	9,945	8,346	0	2,076	815
1982/1983	10,600	8,240	0	2,095	1,080
1983/1984	9,702	7,709	0	2,089	984
1984/1985	10,188	8,441	0	2,010	721
1985/1986	9,686	7,383	0	2,412	612
1986/1987	11,281	8,367	0	2,705	821
1987/1988	10,129	7,347	0	2,337	1,266
1988/1989	11,362	8,679	0	2,603	1,346
1989/1990	12,311	9,430	0	2,871	1,356
1990/1991	11,135	8,201	0	2,883	1,407
1991/1992	11,728	8,704	0	3,247	1,184
1992/1993	12,205	8,009	0	3,885	1,495
1993/1994	14,491	10,661	0	4,122	1,203
1994/1995	15,837	10,445	0	4,927	1,668
1995/1996	17,096	12,226	100	5,364	1,274
1996/1997	15,728	10,557	192	5,365	1,272
1997/1998	15,729	9,587	244	6,360	1,298
1998/1999	16,651	9,813	69	6,665	1,540
1999/2000	16,478	9,950	98	7,086	1,080
2000/2001	17,725	10,673	184	7,063	1,253
2001/2002	19,407	11,862	342	7,580	1,560
2002/2003	21,449	13,657	350	8,055	1,647
2003/2004	22,450	14,792	282	7,696	1,891
2004/2005	22,740	14,256	252	8,960	1,667
2005/2006	21,920	12,895	195	9,328	1,559
2006/2007	24,110	12,715	167	11,118	2,003
2007/2008	24,890	12,138	180	12,257	2,678
2008/2009	24,700	13,109	83	12,418	1,934
2009/2010	26,120	12,985	86	13,000	2,155
2010/2011	28,160	13,987	58	13,500	2,886
2011/2012	28,630	14,678	30	14,000	2,868
2012/2013 (추정)	28,600	14,675	50	14,400	2,443

□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22,055	6,154	0	15,958	148
1981/1982	22,348	6,266	0	16,071	159
1982/1983	24,235	6,449	0	17,515	430
1983/1984	20,644	4,863	0	15,980	231
1984/1985	22,253	4,426	0	17,707	351
1985/1986	22,635	5,476	0	17,318	192
1986/1987	25,182	6,618	0	18,539	217
1987/1988	25,455	6,191	0	19,342	139
1988/1989	22,628	4,937	16	17,689	157
1989/1990	25,146	4,914	33	20,133	289
1990/1991	25,696	5,110	45	20,661	259
1991/1992	27,062	6,442	63	20,733	209
1992/1993	27,546	5,804	86	21,851	186
1993/1994	27,682	4,972	68	22,828	136
1994/1995	30,182	6,205	64	23,974	203
1995/1996	29,508	5,524	91	24,085	193
1996/1997	31,035	6,451	108	24,694	191
1997/1998	34,633	8,722	60	25,964	198
1998/1999	34,285	6,979	101	27,305	300
1999/2000	34,102	6,912	65	27,289	266
2000/2001	35,730	7,335	50	28,363	348
2001/2002	36,552	7,271	134	29,545	218
2002/2003	34,649	5,728	157	29,096	200
2003/2004	32,953	4,690	259	28,531	191
2004/2005	36,936	6,659	134	30,446	156
2005/2006	37,416	7,301	128	30,114	285
2006/2007	39,037	7,987	142	31,166	311
2007/2008	38,359	8,384	128	30,148	266
2008/2009	35,473	7,708	80	27,898	213
2009/2010	37,836	10,124	145	27,796	274
2010/2011	35,608	8,238	163	27,489	318
2011/2012	37,217	8,837	196	28,622	272
2012/2013 (추정)	34,882	7,983	227	27,126	272

□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306	107	0	199	0
1981/1982	324	200	0	124	0
1982/1983	337	225	0	112	0
1983/1984	422	250	0	172	0
1984/1985	663	350	0	313	0
1985/1986	712	450	0	262	0
1986/1987	628	450	0	178	0
1987/1988	600	360	0	240	0
1988/1989	1,100	890	0	210	0
1989/1990	1,285	950	0	335	0
1990/1991	1,890	1,420	0	470	0
1991/1992	1,785	1,180	0	605	0
1992/1993	2,250	2,005	0	245	0
1993/1994	2,880	2,200	0	680	0
1994/1995	2,200	1,580	0	620	0
1995/1996	3,200	2,600	0	490	110
1996/1997	2,920	2,450	0	580	0
1997/1998	3,800	2,600	0	1,200	0
1998/1999	4,295	2,800	0	1,425	70
1999/2000	3,376	2,469	0	977	0
2000/2001	3,574	2,363	7	1,124	94
2001/2002	3,697	2,573	14	1,152	80
2002/2003	2,694	1,510	3	1,185	82
2003/2004	4,459	3,675	1	699	168
2004/2005	3,616	2,243	13	1,365	189
2005/2006	5,540	4,268	3	1,347	117
2006/2007	5,176	4,143	3	1,020	133
2007/2008	6,705	5,285	5	1,450	108
2008/2009	5,750	3,808	8	1,975	83
2009/2010	5,910	3,117	7	2,570	313
2010/2011	7,520	4,800	7	2,900	140
2011/2012	7,680	4,385	6	3,330	111
2012/2013 (추정)	7,920	4,250	6	3,700	87

□ EU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11,331	177	17,963	29,294	886
2000/2001	13,175	253	17,712	30,711	809
2001/2002	14,042	332	19,961	33,406	1,074
2002/2003	12,950	344	20,545	33,335	890
2003/2004	11,084	399	22,012	32,729	858
2004/2005	11,300	529	21,910	32,680	859
2005/2006	10,760	698	22,824	32,875	870
2006/2007	11,550	552	22,207	33,228	847
2007/2008	11,715	424	24,449	35,169	1,418
2008/2009	10,131	465	20,993	31,579	498
2009/2010	9,880	473	20,728	30,138	495
2010/2011	9,675	610	21,654	30,722	492
2011/2012	9,573	884	20,814	29,706	289
2012/2013 (추정)	9,300	630	21,200	29,937	222

■ 대두유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158	64	56	42
1981/1982	219	120	74	67
1982/1983	348	274	74	67
1983/1984	490	427	71	59
1984/1985	638	510	68	119
1985/1986	734	636	80	137
1986/1987	831	732	76	160
1987/1988	934	852	87	155
1988/1989	1,028	882	91	210
1989/1990	1,080	994	96	200
1990/1991	1,179	1,122	101	156
1991/1992	1,329	918	106	461
1992/1993	1,491	1,122	120	710
1993/1994	1,539	1,395	136	718
1994/1995	1,553	1,427	149	695
1995/1996	1,896	1,590	175	826
1996/1997	1,966	1,993	204	595
1997/1998	2,281	1,966	213	697
1998/1999	3,141	3,111	224	503
1999/2000	3,121	2,843	236	545
2000/2001	3,190	3,080	247	408
2001/2002	3,876	3,630	327	327
2002/2003	4,394	3,920	387	414
2003/2004	4,729	4,238	394	511
2004/2005	5,128	4,757	396	486
2005/2006	5,998	5,597	397	490
2006/2007	6,424	5,970	459	485
2007/2008	6,627	5,789	1,026	297
2008/2009	5,914	4,704	1,420	87
2009/2010	6,476	4,453	1,915	195
2010/2011	7,181	4,561	2,520	295
2011/2012	6,839	3,787	3,070	277
2012/2013 (추정)	7,120	4,150	3,040	207

□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2,601	1,153	3	1,490	285
1981/1982	2,406	852	12	1,505	346
1982/1983	2,564	1,020	10	1,550	350
1983/1984	2,352	990	54	1,550	216
1984/1985	2,459	985	163	1,606	247
1985/1986	2,348	452	122	1,919	346
1986/1987	2,726	949	114	1,902	335
1987/1988	2,440	608	69	1,944	292
1988/1989	2,736	696	41	2,195	178
1989/1990	2,983	866	5	1,991	309
1990/1991	2,669	685	18	2,075	236
1991/1992	2,816	660	65	2,156	301
1992/1993	2,908	689	82	2,350	252
1993/1994	3,468	1,345	379	2,418	336
1994/1995	3,776	1,460	125	2,500	277
1995/1996	4,081	1,600	149	2,665	242
1996/1997	3,736	1,273	130	2,646	189
1997/1998	3,728	1,184	245	2,753	225
1998/1999	3,960	1,441	228	2,741	231
1999/2000	3,943	1,137	147	2,931	253
2000/2001	4,333	1,533	69	2,932	190
2001/2002	4,700	1,775	146	2,935	326
2002/2003	5,205	2,394	85	2,895	327
2003/2004	5,560	2,718	26	2,959	236
2004/2005	5,630	2,414	3	3,091	364
2005/2006	5,430	2,466	28	3,091	265
2006/2007	5,970	2,462	4	3,395	382
2007/2008	6,160	2,388	67	3,955	266
2008/2009	6,120	1,909	6	4,275	208
2009/2010	6,470	1,449	37	4,980	286
2010/2011	6,970	1,668	0	5,185	403
2011/2012	7,090	1,885	0	5,210	398
2012/2013 (추정)	7,080	1,670	1	5,410	399

□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5,112	740	0	4,134	787
1981/1982	4,980	942	0	4,325	500
1982/1983	5,462	918	0	4,472	572
1983/1984	4,931	827	0	4,349	327
1984/1985	5,202	753	9	4,498	287
1985/1986	5,269	570	4	4,560	430
1986/1987	5,798	538	7	4,915	782
1987/1988	5,885	850	88	4,956	949
1988/1989	5,324	754	62	4,803	778
1989/1990	5,898	614	10	5,480	592
1990/1991	6,082	366	8	5,506	810
1991/1992	6,507	746	0	5,555	1,016
1992/1993	6,250	663	5	5,903	705
1993/1994	6,328	695	31	5,869	500
1994/1995	7,082	1,217	8	5,857	516
1995/1996	6,913	450	43	6,108	914
1996/1997	7,145	922	24	6,471	690
1997/1998	8,229	1,397	27	6,922	627
1998/1999	8,202	1,076	38	7,101	690
1999/2000	8,085	624	37	7,284	904
2000/2001	8,355	636	33	7,401	1,255
2001/2002	8,572	1,143	21	7,635	1,070
2002/2003	8,360	1,027	21	7,748	676
2003/2004	7,748	425	139	7,650	488
2004/2005	8,782	600	12	7,911	771
2005/2006	9,248	523	16	8,147	1,365
2006/2007	9,294	851	17	8,426	1,399
2007/2008	9,335	1,320	30	8,317	1,127
2008/2009	8,503	995	41	7,378	1,298
2009/2010	8,897	1,524	47	7,173	1,545
2010/2011	8,568	1,466	72	7,619	1,100
2011/2012	8,954	664	68	8,306	1,152
2012/2013 (추정)	8,607	1,043	159	8,120	755

□ EU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2,529	952	84	1,666	227
2000/2001	2,984	889	29	2,137	214
2001/2002	3,198	892	62	2,291	291
2002/2003	2,950	711	29	2,304	255
2003/2004	2,531	556	62	2,112	180
2004/2005	2,575	525	181	2,190	221
2005/2006	2,480	269	717	2,895	254
2006/2007	2,670	243	977	3,388	270
2007/2008	2,710	334	1,036	3,402	280
2008/2009	2,350	399	794	2,739	286
2009/2010	2,280	387	550	2,407	322
2010/2011	2,236	461	906	2,737	266
2011/2012	2,220	746	383	1,980	143
2012/2013 (추정)	2,156	500	450	2,080	169

자료: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발 행 일 2013. 2
발 행 인 이동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